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5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8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천 앙 희

아파트앞 야산에서 가끔 뻐꾸기가 운다. 예전엔 뻐꾸기 소리를 아름다운 봄의 새소리로만 들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 소리가 마치 후회의 소리, 절규의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 몰래 알을 낳아놓고 기르지도 않는다. 둥지 근처 숲속에서 엿보다 아무도 없으면, 제 새끼만을 살리기 위해 남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린다. 그런 것도 모르고 둥지의 다른 어미새는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로 알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다. 사람살이로 말하자면 원수의 새끼를 키운 셈이다.

무슨 까닭으로 그랬는지 그 속을 알수는 없지만 아무튼 짐승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것이다.

제 몸을 당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만 우는 뻐꾹새. '뻐꾹, 뻐꾹'하는 소리가 때론 '비겁, 비겁'으로 들린다. 비겁한 자신을 꾸짖어 깨닫고 질책하고 한탄하는 소리일까. 아니면 나를 향해 너는 어떠냐고 질문하는 소리일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새도 있다. 무소새는 평생 둥지를 갖지않고 살아가는 무소유의 새다.

'잘못지킨 어미의 자리'

그래도 새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책임감은 강한 새이면서 자식사랑을 무소유로 가르치는 현명한 새인것이다. 무소새를 생각할 때마다 나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진다.

무소새만도 못한 내가 사람인척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사람의 어미라고 다 어미이며, 사람의 어미라고 다 새의 어미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연 사람중의 누가 무소새의 무소유를 비웃을 수 있으며 과연 사람중의 누가 뻐꾹새의 소행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

뻐꾸기의 탐심과 무소새의 무소유가, 뻐꾸기의 무책임과 무소새의 모성애가 사람인 나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한다. 나는 내자리를 얼마만큼 잘 지켰는가, 잘 지켰노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나는 뻐꾸기처럼 숨어서 울 염치도 없다.

내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참회할 것은 자식으로 어미로 잘못지킨 내 자리이다.

〈사인〉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온누리에 자비를"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동참한 3천여명의 불자들은 이기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혔다. 〈관련기사 3 · 18 · 20면〉

〈사진 = 고영배 기자〉

"종교간 벽 허물자"

초파일 맞아 분위기 확산…언론 · 방송 등 앞장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종교간의 벽 허물기 분위기가 잔잔하게 번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방송 평화방송, 중앙일보 등 방송언론이 부처님오신날 특별대담을 방이고, 한국신학대학은 봉축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가톨릭 로마교황청이 3년전부터 봉축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종교간의 화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종교간의 화합무드는 각 종교간 사회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하는등 일차적인 움직임을 비롯해 90년 불교방송이 성탄특집방송을 낸것과 지난해 화계사가 성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낸것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로마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는 1일 '부처님오신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내고 "이미 맺고 있는 우정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우정을 맺자"면서 "자비와 용서의 사람이 되어 세계평화를 위해 나서자"고 말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타종교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종로성당에서 '불교의 이해' 강좌를 개설했다. 또 '기독교의 이해' 강좌를 비롯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6대종교 강좌도 개설할 방침이다.

14일 불교방송 생방송 '살며 생각하며(24:00~02:00)' 진행자 덕신스님과 전화로 연결돼 출연한 최성우 신부(평화방송 '신부님 신부님 우리신부님' 진행자)는 "이웃종교인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한다"며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이처럼 종교가 정신문화를 선도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금년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타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화해무드는 향후 종교간의 유대강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중근 기자〉

'천상천하유아독존'

월하스님 방장법어

월하스님(조계종 종정)은 8일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방장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법어는 '천상천하유아독존'.

한편 스님은 14일 통도사 봉축 법요식에서 부방장스님을 통해 "본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법문했다.

승가대 군승선발교 지정 요청

조계종, 국방부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8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중앙승가대학교를 군승사관후보생 선발학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교원의 이같은 요청은 중앙승가대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 승격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인사복지국 관계자는 실사를 거쳐 상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정될 경우 대상자는 올해 입학한 1학년부터라고 밝혔다. 중앙승가대학교가 군승사관후보생 선발학교로 지정되면 군승부족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 쌀 1백가마 북돕기 추진위에 전달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15일 총무원에서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이하 불교추진위)에 쌀 1백가마를 전달했다.

인곡 총무원장은 이날 총무원을 방문한 불교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 효림스님에게 태고사에서 모은 쌀 1백가마를 전달하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하고, 시도교구종무원 및 각 사찰에서 추가적으로 모아진 쌀도 불교추진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지난달 21일부터 총단차원의 '북한동포돕기 태고종도 한 가정 쌀 한 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다음주 휴간

21일 전국사암 하안거

정축년 하안거 결제법요식이 21일(음 4월15일) 열려 조계사와 영축 덕숭 고불총림을 비롯 전국 사암에서 스님들이 일제히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본사 사령

- 편집국 취재1부 기자 김주일 · 김정은
- 편집국 취재2부 기자 윤기석 · 김지연
- 경영관리국 영업부 사원 김종일

〈1997년 5월 15일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5월 문화인 물 - 초의스님



신록의 계절 5월의 문화인물은 한국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스님입니다. 초의스님은 연담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은 대선사일뿐 아니라 조선후기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 문인입니다. 초의스님은 대흥사 일지암에서 40여년간 머물며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스님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 석학들과 긴밀하게 교류했고 따라서 일지암은 불교와 유학이 자연스럽게 사상 · 문화적으로 접목 발흥된 산실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서산 사명 처영스님 등 고승 대덕들의 부도와 비가 무려 60기나 되고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해 조선후기 불교의 중흥을 이룬 대가람입니다. 25일은 제17회 '차(茶)의 날'입니다. 차의 날에 서산 · 사명대사와 초의선사를 추모하며 차향 가득한 해남으로 떠나보시죠.

禪 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5월 테마여행 - 대흥사 · 일지암

■ 참가 안내

◇출 발: 5월 24일(토) 저녁10시 · 조계사 앞
◇안 내: 여연스님(일지암 주지) ◇회비: 4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연복사 범종 언제 울리려나 9면
석왕사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19면
절음식 이렇게 만드세요 14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형태 / 규격(폭×높이)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3-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6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사 설

대불련 신행에 거는 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가 창립 35주년을 맞이 했다. 그 동안 대불련은 '한국불교 바로세우기'를 위해 중심부에 서서 지성불교의 선봉장이 되어왔다. 70~80년대에는 민중불교운동론을 주창하여 불교의 현실참여에 교두보역할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20여만명의 회원이 배출되어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80년대말에 창립되어 현재 1000여명의 교수불자로 구성된 한국교수불자연합회도 대불련 출신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불교지식인운동의 중추가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본보(제127호)에 발표된 "대불련 신행의식과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접하면서 많은 걱정이 앞선다. 미래불교의 등불이 될 대불련의 조직과 활동이 90년대 들어와서 점점 침체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간의 결속력이 미흡하고, 보시와 수행의 실천이 극히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60%에 달하는 대불련회원들이 절에가도 시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대불련의 조직과 운영을 자립적으로 해야 하므로 공부하는 대학생들로서는 재정마련이 큰 부담이 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종단을 비롯한 불교계의 관심부족과 대학생포교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라고 밝혀졌다. 결국 인재를 기르는 불사를 소홀히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장래가 불투명한 셈이다.

수십억을 들여 큰절을 세우고 불상을 봉안하는 눈에 보이는 불사도 필요하지만, 미래 한국 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을 키우는 불사는 더욱 중요하다. 대불련이 하루속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조직과 활동에 활기를 되찾아야 한국불교가 산다. 대불련 신행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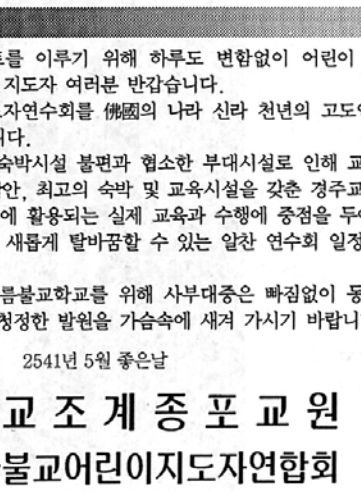
첫째, 각 종단협의회와 각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불련은 현재 23개지부와 173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거대한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조직운영비의 80%를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니 활성화가 어렵다. 정의롭고 순수한 대학생 불자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졸업후 사찰과 각계각층의 신행단체에서 청년회나 각종 신도회에 적극 참여하여 불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형성될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포교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정비가 시급하다. 이는 종단의 포교원과 교육원이 앞장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전략과 교육체계를 세워야 한다. 임원들과 회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과과정은 불교수행의 뼈대가 되며, 사상적인 인식과 일상적인 수행이 조화를 이루게 편성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도법사와 지도교수의 담임제 및 상담등을 통해 올바른 신행생활의 길을 인도하도록 한다.

셋째, 수행결사와 수계대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대불련이 올해를 '신행혁신의 해'로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수행결사와 수련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지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넷째, 한국교수불자연합회나 대한불교청년회 등과 연대·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불련회원들은 같은 캠퍼스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협력체제 구축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불련 활성화가 가장 큰 불사이며 한국불교중흥의 초석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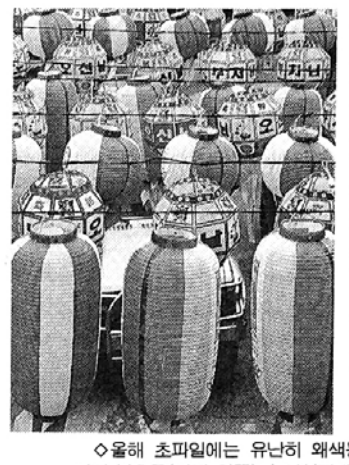
뜻이 통하는군요

현대만평 박구원

열린마당

왜색 등

2541년 올해 초파일을 전후로 비가 내린날이 많아서인지 각 사찰과 간선도로에는 비닐을 사용한 장등(長燈) 환등(環燈)이라 불리는 일본풍등이 많이 걸렸다. 이에대해 교계에서는 말이 많다. 가장 성스러운 부처님오신날 왜색(倭色)등의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색등의 사용유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 초파일에는 유난히 왜색등이 사찰에 많이 내걸렸다. 사찰에 걸린 봉축등(사진 왼쪽)과 일식집에 걸린 등.

전통등 실용성 보완 왜색등 폐기

지현 〈조계종 봉축기획단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사찰에는 많은 등이 달렸다. 연등도 달리고 주름등도 달리고 전통등도 달렸다. 비닐로 만들어진 장등과 환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사찰에서 장등과 혼등 사용을 선호하는 것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실용적이라는 측면이다. 장등과 환등을 사용할 경우 기후의 변화에 무관하다. 연등의 경우 자칫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세게 불면 제모양을 잃어 보기에도 흉할뿐 아니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비닐을 재료로 만들어진 장등과 환등은 가격이 다소 비싸나 장기간 보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한지로 만든 등에 비해 경제적이다. 이밖에도 장등과 환등은 한지등에 비해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이같은 이유를 살펴볼 때 연꽃등이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사찰에서 사용하는 연꽃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지로 만든 등을 달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즘처럼 심각한 경제난과 실용주의 등을 표방하는 사회적현상을 감안, 비닐등과 같이 사용과 보관이 용이한 등을 달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왜색풍의 장등 환등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등역사를 살펴보면 수박등, 목어등, 종등 등 다양한 등을 달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이같은 전통등을 개발해 사용과 보관이 용이한 실용적인 등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등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에 걸맞는 등을 개발 보급한다면 봉축분위기 고조는 물론 새로운 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있는 장등 환등이 '왜색적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더 이상 회자 않을 것이다.

결국 전통등을 바탕으로한 현대식 등 개발은 우리의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등문화 변질 심각… 집집마다 제작을

진철승 〈불교문화교육硏 실장〉



등은 불교에서 무명업장을 깨는 지혜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용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초파일 행사자체가 억압되고 동시에 왜색 불교문화와 의식이 강제되면서 다른 불교문화와 더불어 이 등문화도 극심한 변질을 겪게됐다. 전통적인 양식의 등 제작기술이 단절되고 상업적이고 편의적인 몇가지 양식의 등만이 초파일과 각종법회 거리에 장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등공양 정신을 왜곡시킬 뿐아니라 한국고유의 전통문화 상실이라는 결과를 빚고 있다. 더구나 왜식등이 일제시기에 강제 이식된 차원을 넘어서 최근에도 불구 용품업계에 의해 일본진출 및 국내 불교계의 편의적인 요청을 빌미로 다양하게 수입 제작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중대한 사태라고 본다.

등은 빈자일등의 감동적인 설화로 부터 발전하여 부처님께 바치는 육법공양중의 대표적인 공양물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각종불교행사의 핵심적인 장식물로 활용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래된 불법과 불교의식 풍습은 전통적인 등놀이 습속과 결합하여 더욱 다채롭고 찬란한 등문화를 창조하였다. 신라와 고려의 정월 이월연등및 고려말로부터 시작되어 조선조 내내 민간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까지 전개된 사월초파일 연등관련 사료들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등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최근 조계종 봉축위등에서 전통등을 재현하고 그 보급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말기를 바라며 전통등에 기초한 일가일등(一家一燈) 제작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럴때만이 편하다고 무작정 사용되는 왜색등이 줄어들고 우리의 전통등문화가 다시 활기를 띠고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왜색등 유래와 현황

해마다 거른돼 왔지만 이번 초파일은 각 사찰에 유독 왜색등(燈)인 장등(長燈) 환등(環燈)이 범람했다.

이를두고 교계일각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현재 사용중인 전래 연꽃등이 반수공예품이라 할수 있어 노력과 제작비용이 많이들어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늘고 있는 왜색등은 비에 젖지않고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이점 때문에 사용이 늘고있다.

장등 환등은 일본의 신사, 음식점, 홍등가등에서 쓰이는 등으로 일본에서는 사찰에서도 이 등을 걸지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장등 환등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수씨(홍법기획 대표)는 "장등 환등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계에서 십자가를 걸기위해 유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던 것이 전국목회자협의회에서 '성스러운일에 일본 홍등가의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함에따라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등이 불교계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점검이 요청되고 있다.

장등 환등은 본래 값싸고 가볍게 여러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불교계 일부에서 사용됐으나 당시 사찰의 반응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종이에서 비닐로 바뀌고 75년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 공포된 후 간선도로에 연등설치가 시작되면서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더니 요즘은 대도시 사찰에서 버젓히 연꽃·팔모등의 자리를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11일부터 내린 봄비가 초파일인 14일까지 이어져 지역에따라 2백㎜ 안팎의 호우때문에 비에젖지않는 주름 장등 환등의 사용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장등 환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주문제조돼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등·환등·주름등 70년대 유입
日선 음식점·홍등가 호객용 이용

정성껏 연잎말고 붙이는 풍습 살려야

불교에서 등공양은 향공양과 더불어 공양육물의 하나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만큼 우리 전통등은 정성을 소중히 했었다. 아직도 불교계는 초파일을 앞두고 사부대중이 둘러앉아 연잎을 말고 붙이는 풍습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연꽃등 사용이 매년 줄고 있다. 최근에는 법당에 거는 1년등만이 연꽃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사찰은 아예 연꽃등을 걸지않고 있다.

교계에서는 전통등을 살리기 위해 왜색등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장등 환등이 주름식 비닐등으로 비에 젖지않고 여러번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만큼 우리전통 연등에 응용하여 사용하자는 의견도 비등하다.

전통등의 기본모양을 갖추면서 환등 장등의 좋은점을 개량하여 발전시켜서 다양하게 사찰에서 사용할 때만이 인스턴트시대의 사회흐름에 퇴화되지 않는 우리 전통등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조상들은 기도내용에 따라 연꽃을 비롯 각종 꽃과 과일 어류 또는 동물모양의 등을 만들어 기원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참외 마늘 거북 학 탑 누각 항아리 병 만세등 등 40여가지에 이르는 전통등을 현실에 맞게 되살려내는 관심과 계몽이 요구된다.

김원우 기자



"정진하는 지도자, 희망찬 미래불교"

■일 시 : 불기2541년6월14일(토)~15일(일)

■장 소 : 경주 교육 문화회관 (보문단지 內)

■동 참 금 : 5만원 (군종병, 도서벽지 지도자 50% 본회지원)
(1박 3식, 가방, 연수자료집, 어린이 가슴에 여래의 꽃을, 어린이 교재 고학년, 저학년, 포스터)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 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분

■미리 접수 받습니다
(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5월 15일~31일까지 선착순 600명
- 우체국 601310-0037877-11 예금주 : 대불어(조중환)
- 접수담당 : 박혜진, 강은화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강의준비물 : 풀, 가위, 색종이-양면 1묶음/같은색 1묶음, 꽃나라 색종이 1묶음, 신문지, 잡지

■문 의 : 본회 사무국
☎(051)808-4569~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ZSBOSAL 2번 운영자 수신편지이용)

모시는 글

다가오는 21C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하루도 변함없이 어린이 포교일선에서 정진하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佛國의 나라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그동안 숙박시설 불편과 협소한 부대시설로 인해 교육효과를 높이지 못한 점을 감안, 최고의 숙박 및 교육시설을 갖춘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여름불교학교에 활용되는 실제 교육과 수행에 중점을 두어 교육 효과를 한단계 높이고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알찬 연수회 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알차고 유익한 여름불교학교를 위해 사부대중은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정진하는 지도자의 청정한 발원을 가슴속에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2541년 5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23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내 용	강 사	비 고
• 여름불교학교 강의 1 어린이에게 참선교육은 이렇게 시킨다	대효스님	원명선원 회주
• 여름불교학교 강의 2 어린이에게 비른 부처님 가르침을	철오스님	본 회회장
• 여름불교학교 강의 3 새롭고 흥미로운 불교학교	우수사찰 발표	
• 여름불교학교 강의 4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워드	김 민	청주 주성전문대 청소년 문학과 교수
• 여름불교학교 강의 5 천진불심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이 상 호 서울지구	선재연구모임놀이분과장/ 서울지구지도교사
• 여름불교학교 강의 6 부처님 노래와 율동	권 양 숙	풍경소리
• 여름불교학교 강의 7 이럴땐 이런 놀이 -그룹별 집중게임, 놀이	윤 대 일	가일레크리에이션 이벤트 기획실장
• 여름불교학교 강의 8 알록달록 종이로 꾸며보는 부처님 세상	송 명 화	한국종이접기협회 전임강사

연등축제 젊음생동… "미래 밝다"



◇제등행진을 마치고 종각사거리 회향식장으로 들어오는 불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는 스님들. 〈사진=고영배 기자〉

-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설해지는 조계종 종정법어가 없었다는 것은 조계종단뿐만 아니라 전 불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정스님의 법어는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정신적인 귀의처로서 그 역할이 지대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한국불교 역사상 초유의 법어없는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게 한 관계자들은 각성하고 참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분단이후 최초로 남과 북에서 동시에 공동발원문이 봉독돼 의미깊은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을 계기로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발원문이 조계종단 차원이 아닌 종단협의회 차원으로 봉독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통등 20종 재현 '눈길'

- 올해는 전통연등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봉황·목어·북·종·수박 등을 비롯 20여 종류의 전통연등은 시민들의 주 관심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수집과 더불어 검증작업을 거쳐 전통 등을 보다 많이 재현한다면 봉축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은행 본점앞 컵등시연회에는 물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해 연등을 만들었다.

기자방담

초파일을 보내며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세상 어둠을 깨치기 위해서 이땅에 나투신 부처님을 갖가지 행사로 기렸다. 전통문화를 일깨우는 흥겨운 마당과 어린이 청소년들과 외국인의 참여가 크게 늘어 미래불교를 밝게한 봉축행사를 현장 취재기자들의 방담으로 다시 조명한다. 〈편집자 주〉

명칭만 번지르르했던 것 같습니다. 공중파에 비해 오히려 케이블 TV에서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불교TV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자체제작프로그램, 예를들면 '깨달음의 땅 수자타 아카데미'. '붓다의 고향을 가다' 등을 인도에서 현지 제작해 신선도를 높인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만 각 방송 특집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정작 사찰에 가야하는 불자들은 특집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실정이지요.

-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군포교를 위한 군불자사병 큰잔치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사병들을 위한 교리퀴즈 및 찬불가 경연대회, 장기자랑, 연등만들기 대회 등이 펼쳐져 사병과 함께하는 한마당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 부처님오신날 행사내용이 나눔 및 돕기에 너무 치중된 느낌입니다. 자비행의 실천은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의 행사가 주가되어야 하다는 지적입니다. 각 단체들이 실시한 북한돕기 성금모금도 식상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부처님 오심의 본래 의미를 살려주는 행사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 거리행사는 지난해에 비해 단조롭고 산만하게 진행됐다는 평입니다. 등시연회외에는 일반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구요. 또 종묘공원 앞 관소리공연등 몇몇 행사에서는 진행요원들이 없어 산만했습니다.

- 이번 봉축행사는 전반적인 사회의 불황탓인지 문화행사가 많이 축소된 느낌입니다. 매년 큰 사찰들이 열던 대형음악회도 이번엔 열리지 않은 가운데 봉축문화행사중 국립무용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정기공연으로 개최한 춤극 '이차돈의 하늘'이 돋보였습니다.

- 불황과 경기침체 탓인지 연등도 예년에 비해 20~30% 줄었다고 합니다. 조계사 등 대도시 사찰은 평년수준을 이뤘으나 지방의 사찰이나 산 속 암자는 지난해 보다 40%이상 줄었다는 것이 해당 사찰스님들의 분석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비까지 내려 연등을 밝히는 손길이 더욱 줄었지요.

- 올해 봉축기념 세미나는 생명복제·해체철학·복장유물·문화유산보존·민족통일·청소년 실태 등 관심을 끄는 다양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관념적이고 초세간적인 불교가 아니라 현 사회의 쟁점을 불교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세미나는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의 관심도 끌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지구촌불자 인터넷 봉축

-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불자들에게 국내외에 봉축소식과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조계종은 봉축이후에도 사찰과 불교단체를 인터넷으로 포괄하여 한국불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서비스분야가 미력하지만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 2백여개의 직장·직능법회는 예전처럼 봉축법회를 따로 열지 않고 초파일 전후 정기법회에 맞춰 봉축행사를 펼쳤습니다. 불황여파로 참여도는 다소 낮았지만 경제난 등 국가적인 어려움과 각 직장·직능의 불황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연등을 밝힌 차분한 분위기였지요.

- 이번 봉축행사기간에 '97 고양 세계꽃박람회'가 같이 열려 12일 불교전통의식인 영산대재가 봉행됐습니다. 개막시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주최측을 곤혹스럽게 했으나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은 아랑곳않고 3시간동안 영산재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시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북한돕기 노란연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보기간이 부족해 참여가 부진했다는 평입니다. 노란연등은 서울 정토포교원(원장 법륜)에 80여개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에 1백20개가 공양됐습니다.

- 불교청 부산지구는 백(白)등과 50여개의 만장을 들고 행렬에 참여해 현재 양분되어 있는 부산 청년불교의 안타까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불교관련 출판물이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서점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도 지난해 보다 줄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침체속에서 〈고려시대의 불화〉등 몇몇 잘 만들어진 불서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출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불황탓 문화행사 축소…연등수 줄어

학술행사 성과…북돕기 너도나도 동참

- 연등축제에 여타종단이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고, 진각, 관음, 보문, 총지, 원효종 등 6개 종단 총무원장 및 부원장이 법요식에 참석했으나 봉축행사의 꽃이랄 수 있는 제등행렬에는 보문종과 총지종만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여타종단의 제등행렬 불참이라는 오명은 그나마 벗었으나 조계종을 비롯한 모든 종단은 이번 행사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공중파 봉축프로 빈약

- 공중파 방송의 봉축프로그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KBS, SBS의 경우는 자체제작을 하거나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한데 비해 MBC에서는 특선영화정도로 그쳐 봉축특집 프로그램은

목어

어느 기업인의 호소

5월 15일 스승의 날 오전. 성남전자공업주식회사의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었다.

이유는 이 회사대표 변동호사장(47)이 그날아침 4개 일간지에 '스승의날에 참스승을 찾습니다'라는 이색 광고(36×17㎝)를 냈기 때문이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주로 목사들인데 "광고내용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광고의 요지는 이렇다.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있는 것일가요? 이 모든 혼돈의 원인은 나와 내 가족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 양심도 윤리도 도덕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는 종교가 깨어나야 합니다. 종교지도자가 민족을 살리는 참스승으로 떨치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흥익인간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참스승이 사라진 오늘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종교지도자들께 충심으로 고합니다. 민족의 참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카세트 공테이프를 만든다는 회사 대표로서 종교인도 아닌 변사장이 적지않은 광고비를 쓰면서 종교지도자들에게 왜 이런 호소를 했을까. 본인과 직접 통화를 못해 단언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종교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일것 같다.

"민족이 지금 길을 잃고 있는데 저 세상의 구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눈있고 귀있는 종교인이라면 어찌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오신날 봉축여운이 채 가시기 전이기에 변사장의 글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특히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조계종은 '참스승'이란 단어를 예사롭게 볼 수 없었을 것 같다. 불자도 아니면서 단비 기다리듯 종정법어를 기다린 사람들을 실망시켰기에, '초파일후 갈등론'이 나돌고 있기에.

만약 조계종에서 다시 불협화음이 일면 세인들은 종단지도자들을 스승의 자리 또는 그 후보에서 탈락시킬지 모른다. 그런 불상사가 제발 없어야 할텐데….

"자기중심적 사고 버리자"

'천천히 함께' 교계 지도자 108인 의견 조사

"한사람 열걸음보다 열사람 한걸음씩"

부정부패·생명경시 사회풍조 고쳐야

교구본사 주지, 신행단체장, 교계언론사 간부 등 교계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 '나'라는 아상을 버려야 한다'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등 자기중심적 가치 척도를 극복, 개인과 전체를 함께 존중하는 사회풍조가 조성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혜창)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가 공동으로 봉축캠페인 '천천히 함께'의 일환으로 교계 지도자 108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56명이 대답한 결과 드러났다.

교계지도자들은 사회문제를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33%)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참회하는 삶(30%), 사회공동체의식의 회복(25%) 순으로 응답했다. 또 과거 근대화 논리에서 벗어나는 '모두가 부처'라는 인간존중사상(26%)과 참회(19%), 무소유정신(16%), 자자포살(14%)을 꼽았다. 이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회풍조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부패(줄대기풍조, 27%)와 이기주의(23%)를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경시 풍조와 이기주의, 과다 경쟁의식 등이 만연하다는데 교계지도자 다수가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의 생활문화·습관 중 고쳐야 할 것으로는 '빨리빨리' 조급증과 자기중심적 사고, 대충주의에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견해를 같이 했다.

한편, 교계 지도자 41%는 '천천히 함께'라는 캠페인 표어를 접했을 때 '경쟁사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대형사고(28%), 교통사고(18%), 부정부패(10%)를 들었다. 또한 '천천히 함께'캠페인의 저변화를 위해 불교계 내부적으로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중요하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필선 기자

"출가 4박 5일"

제27회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인 고려시대때부터 나라의 스승인 열여섯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인 송광사에서 〈출가 4박 5일〉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된 자신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출가수행자의 생활로서 묵언과 참선, 발우공양 등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불교신자는 물론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소 힘이 들지는 모르나 맑고 충만한 산사의 기운과 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피서지에서의 휴가보다 더욱 보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1997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차	기간	모집인원	신청기간	연 령	대상
1차	1997년 6월29일-7월3일	100명	5월20일~6월10일	제한없음	불일회원
2차	7월 6일-7월10일	〃	〃	20세~60세	일반인
3차	7월13일-7월17일	〃	〃	〃	〃
4차	7월20일-7월24일	〃	〃	〃	〃
5차	7월27일-7월31일	〃	〃	〃	〃
6차	8월 3일-8월7일	〃	〃	〃	〃
7차	8월10일-8월13일	120명	〃	중1 - 고3	불일학생회(중·고교)
8차	8월14일-8월17일	100명	〃	20세-35세	불일청년회

◈ 7차 불일학생회와 8차 불일청년회의 일정은 3박 4일입니다.

■ 모집요강

① 신청대상

- 제 1 차 수련법회 (4박 5일) : 송광사 전국 불일회 회원
- 제2-6차 수련법회 (4박 5일) : 일반인
- 제 7 차 수련법회 (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중·고등부및 중·고등부 학생회원
- 제 8 차 수련법회 신청대상(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청년회원및 전국 불교 청년회원
- 자원봉사신청 지원대상 : 송광사 수련법회 참가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10명 내외
- 참가등보 : 6월 25일까지 개별등보
- 동참금 : 1-6차(일반인수련회) : 7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7차(중고등학생수련회) : 4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8차(청소년수련회) : 5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 신청서작성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로 신청

1. 이 름	(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주소) (우편번호)	4. 직 업	
5. 전화번호	(자택) (직장)	6. 종 교	
7. 수련법회 경험 유·무 (있으면 참가년도 참가사찰명 자세히 기재)		8. 원하는 차수	제 차 수련번호 제 차 자원봉사
9. 참가하고자하는 이유(상세하게)			

* 팩스(FAX)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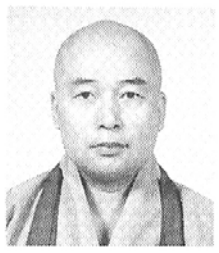
● 문의처 : 전화/0661)755-0407,0109(오전 7시 - 오후 6시까지만 가능)전송/0661)755-0408
● 접수처(주소) :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담당자 앞

불기 2541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1 교구본사 송 광 사 주지 현고.

"법보시 최상의 포교이자 불사"

군법당 · 교도소 14년 법공양 각성 스님



"법보시가 최상의 포교이자 불사입니다."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도심포교원인 약사포교원 원장 각성스님. 스님은 14년전부터 "모든 보시 가운데서 참으로 훌륭한 베품은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니, 늘 법보시에 힘쓰도록 하라"는 〈증일아함경〉의 말씀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있다.

지난 '82년 천호동 토굴에서 2년간 용맹정진하다 포교의 뜻을 두고 '84년 10월 이곳에 포교원을 개원한 후 매년 〈불교성전〉 〈반야심경〉 〈지장경〉 〈법화경〉 등의 경전 1천여권 이상을 직접 제작, 신도들과 군법당 교도소 등에 법보시하고 있는 스님은 책이 필요하다는 불자가 있으면 우편요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정성스레 경전을 보낸다.

강동경찰서 경승과 영등포구치소 종교위원을 맡으면서부터는 전국 각지의 재소자들이 책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특히 '85년 개설한 불교통신대 정법대학에 꾸준히 5명내외의 재소자들을 입학시켜 모든 교재와 불서를 무료로 제공, 불자로서의 새 삶을 인도하고 있다.

스님은 "법보시는 전법사(傳法師)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불사"라고 강조한다.

김재경 기자



청주 17비행단서 법문



월탄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은 13일 청주 17전투비행단 '봉측전야제 법회'에서 법문을 설했다.

소년가장 등 12명에 장학금



현해 월정사주지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불우아동 등 12명에게 15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미아3동 어린이집 개원



지하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스님(승가대 총장)은 6일 미아3동 어린이 집을 개원했다. 강북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미아3동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6개반 89명의 아동을 수용한다.

북동포돕기 성금모금



도후 강원불교연합회 회장스님(신흥사 주지)은 9일 춘천베어스타운호텔에서 국민화합기원법회를 열고 2002월드컵 강원도 유치 기원식을 갖는 한편 북동포돕기 성금모금행사를 벌였다.

은평구민위한 기원 법회



성운 은평구사암연합회 회장스님(삼천사 주지)은 6월 5일 진관사에서 현충일 기념 호국충혼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연다. 스님은 이에앞서 11일 논산훈련소에서 5천여장병에게 계를 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우이동지역서 경로잔치



동광 도선사 주지는 6일 안양교도소를 위로 방문했다. 이에앞서 2일 우이동 돌집에서 지역노인 5백여명을 초청,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학생 50명 생활비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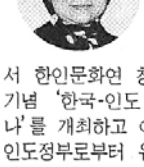
용산 복지법인 공덕원 이사장스님은 9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정동호(동국대 4), 장수진(문현여고 1) 등 50명의 학생들에게 생활보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생활보호자에 보조금



법경 능인정사 주지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활보호대상자 30명에게 생활보조금을 전달했다.

안양에 대의왕사 창건



일관 해동불교대학 교수스님은 1일 안양시 박달동에 대의왕사를 창건 개원했다.

(0343)69-1562

연세대서 전각전 · 강좌



청사 안광석옹은 6월 5일 오후2시 연세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전각작품전' 기념 특별교양강좌 '전각강화(篆刻講話)'를 강연한다.

회갑기념 논총 봉정 받아



이영자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은 26일 오후6시 엠베서더 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회갑기념 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 봉정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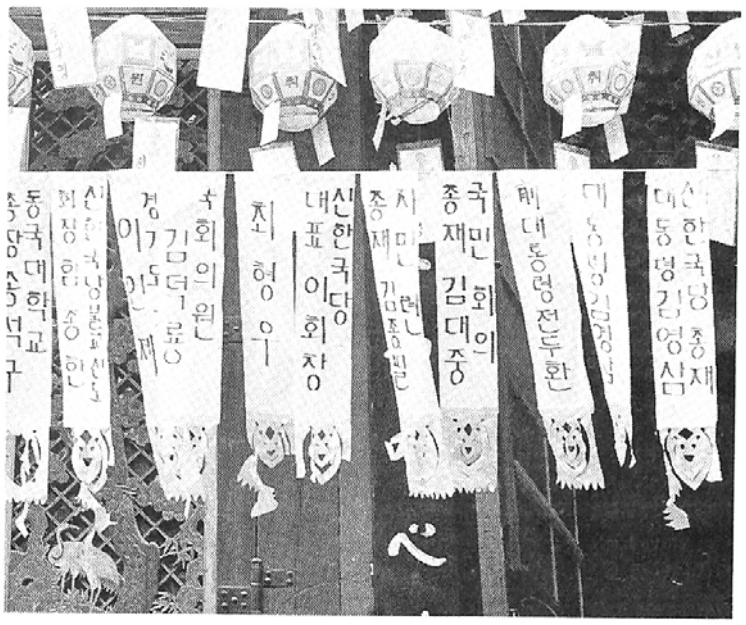
한국-인도 학술 세미나



김양식 한인문화연구원 원장(시인)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인문화연 창립 16주년 기념 '한국-인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인도정부로부터 유공상장 및 상패를 받았다.

안산 불교미술회 창립전

박연범 안산 불교인미술작가회장은 9~16일까지 안산 올림픽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안산 불교인미술작가회 창립 전시회를 가졌다.



Focus "대선에 꼭 당선을 …"

14일 부처님오신날. 대선 주자들의 서원이 그 어느때보다 간절하다.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유명사찰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3당대표,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연등공양이 줄을 이었다.

각 정당불자회도 지난해 보다 많은 연등을 달았는데 신한국당은 8백여개 사찰에, 국민회의는 42개, 자민련은 5백여개의 사찰에 연등을 달았다. 또한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수산(首山)'이라는 법명으로 봉축메시지를 냈다. 대선경쟁 열기만큼이나 불심잡기 연등공양 경쟁이 뜨겁다.

〈조계사=고영배 기자〉

"우리 전통문화 소중함 일깨웠어요"

차문화잔치 · 고려연등의식 재연 감승희 원장



"부처님 오신 날과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고려연등의식 재연은 어지러운 현시국의 국태민안과 국가발전을 기원하고 고려의 의례 복식 무용 음악 다구 등을 고증, 재현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됐습니다"

18일 덕수궁에서 열린 '고궁차문화큰잔치'와 '제2회 고려연등의식재연'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차생활문화원 감승희 원장은 "고려연등 행사를 연례화시켜 불교전통의식의 전승과 전통 차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석주(조계종 원로) 태응(불교TV)스님 등 대덕스님들과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종규 삼성출판사회장 등 다인(茶人) 등 8백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특히 '가루차 겨루기'가 처음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 김원장은 "한복입기와 우리 차마시기 운동 등 불교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차문화 큰잔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다.

〈숙〉

게시판

♣ 알림

사랑의 쌀모음=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지역주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덕유마을의 저소득층 가정 20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쌀'을 모으고 있다. (032)325-2161

하루찻집=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24일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무의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환경개선 기금마련을 위한 하룻찻집을 돈암동 조디악에서 개최한다. (02)986-0162

다보법회=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스님초청 5월 다보법회가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최된다.(02)703-0108

무료 백내장 녹내장 시술=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구로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해준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한다. (02)852-0525

♣ 강좌

생활도예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2개월과정의 생활도예교실을 연다. 강의는 월, 수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042)633-1141

수족침=(사)청여원(원장 이문우)은 제2기 수족침 교실을 개설한다. 교육기간은 21일부터 2개월 간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이다. 수강료 5만원. (02)796-6644

♣ 모집

모니터요원=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소식지 〈대불련21〉의 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 불자면 누구나 가능. (02)732-0239

자원봉사자=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정진석)는 만성질환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조리및 세탁봉사자와 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전봉사를 할 수 있는 자 등이다. (053)427-1907

"불신여론 해소 문화재보존 앞장"

신임 문화재위원장 고병익 박사



"문화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탈피,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전문위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2일 새로 선출된 문화재위원회 고병익위원장(97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장 · 73). 그는 우선 지난해 '가짜총통 국보지정사건'에 따른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최근 '경주경마장 건설문제'에서 나타난 보존과 개발의 첨예한 대립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원만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문화재지정에 관해 모든 문화재위원들은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 신중을 기해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원장은 또 "우리 문화재 중 반수 이상이 불교관련 문화재"라며 "우리 문화를 해외로 알리는데 불교계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5 · 18영가천도 백일기도 입재"

이순자씨 11일 개운사



이순자씨가 전두환 前대통령 재임 당시 희생된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한 백일기도 입재식을 11일 서울 개운사에서 봉행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지하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천도위령재에는 장남 재국씨(도서출판 시공사 사장)와 3남 재만씨 내외가 함께 참석했다. 이씨의 이번 백일천도기도 입재는 89년 설악산 백담사, 지난해 김천 수도암에 이은 3번째.

이씨는 백일동안 자택과 절을 오가며 〈지장경〉을 독송하는 등 전 前대통령 재임시 억울하게 숨진 위령들을 천도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위령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영령을 포함 북한의 아웅산테러 희생자, 김현희씨와 소련에 의한 KAL기 폭발 희생자 등이다. 이씨는 이 영령들의 신위(神位) 7백여명부를 직접 경면주사로서 위패를 모셨다.

지하스님은 "이씨가 이번 백일기도를 잘 마치면 전씨가 출소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발심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이날 재국씨는 입재식 날짜에 맞춰 발간한 책 〈고려불화〉 〈유마경〉(시공사 刊) 1백여권을 개운사에 법보시했다. 한편 수감중인 전 前대통령도 이날부터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재〉

700명 신위 위패 경면주사로 직접써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캠페인 347,740원 △대불련 부산지부 2,218,530원 △성남정토법당 2,083,380원 △경주불교청년회 918,000원 △대전정토법당 600,000원 △녹색연합 400,000원 △청년정토회 385,000원 △이금림 1,000,000원 △박승주 1,000,000원 △이혜성 700,000원 △양청길 500,000원 △구동태 외 89명 5,020,76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5,079,900원 △한 끼 굶기 운동 440,000원 △무주상보시 1,110,000원

〈13일 현재 총 389,119,013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티벳 불교 성지 순례

확장이전 기념 특별가로 불자 여러분들을 세계의 성지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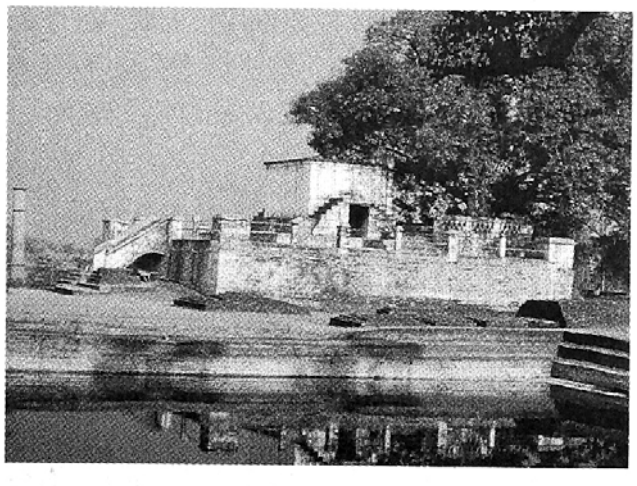
중국 · 티벳 · 네팔 10일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서울

■출발일 : 6/1 7/1, 8/1, 9/1

■동참금 : 240만원

(10인 이상 단체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어버이날 · 부처님오신날 특선 ◀

태 국 5 일
■일 정 : 서울-방콕-파타야-방콕-서울
■출발일 : 5/30, 6/13, 6/27 ■동참금 : 49만원

일본핵심 4 일
■일 정 : 서울-오사카-교토-나라-오사카-벳부-아소산-후쿠오카-서울
■출발일 : 5/31, 6/14, 6/21 ■동참금 : 75만원

대만 불광사 5 일
■일 정 : 서울-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출발일 : 5/29, 6/12 ■동참금 : 59만원

스리랑카 6 일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콜롬보-서울
■출발일 : 6/6, 6/20 ■동참금 : 108만원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0 일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루판-우루무치-북경-서울
■출발일 : 6/6, 7/11, 8/8, 9/12 ■동참금 : 175만원

혜초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3층 (조계사옆 안국동 로타리)

전 화 : (02)733-3900



◇하나로포럼 선정회는 12일 '불국정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상사 남 허물볼 시간 없어요"

하나로포럼서 혜암스님 시국관련 법어

"세간사(世間事)에 큰일은 없어, 생사를 해탈해 道를 깨치는 것만이 진정한 일대사(一大事)야."

혜암 조계종원로회의 의장스님의 법어가 현 시국과 관련, 관심을 모았다. 혜암스님은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하나로포럼에서 증명법어를 통해 김현철씨 사건이나 한보사태 등 세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란(大亂)에만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쳐 생사를 해탈하는 일대사에 매진해 달라"고 설했다.

혜암스님은 또 "모든 죄는 자신이 지어 자신이 받을 뿐이니 남 허물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무슨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고 반문하며, 불자들이 세간사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관심일법(觀心一法)이 총섭제행(總攝諸行)임을 알아 道 닦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석원 前 성균관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대표(기독교), 이재룡 대종교 전리실장, 최동희 천도교 상주전도사, 이행래 한국이슬람교 이맘 등 각 종교계 대표들이 토론에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은 '불국정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 중생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의 '4섭법(四攝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신화공주(身和共住),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화무쟁(口和無諍),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화동존(意和同尊), 법과 도덕을 잘 지키는 계화동수(戒和同守) 등 '6화경(六和敬)' △8정도 △6바라밀 등이 그것.

탐방 체육진흥공단 무량회

"자비나누면서 참나 배워요"

고아원 · 양로원 · 결핵원 결연 위문활동 '꾸준'

올림픽공원 일대에 부처님의 법음과 법등을 전하고 있는 무량회(회장 이태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진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12일 무량회는 올림픽회관 1층 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 연수국장 법경스님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관불식을 통해 아기 부처님의 법신을 물로 씻으면서 회원 각자의 마음에 묻어있는 번뇌의 속때를 함께 씻어내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연화복지학원 소속 장애인법우들도 함께 참여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무량회 회원 1백여명은 지난 12일 올림픽회관 내 법당에서 관불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오심을 봉축했다.

'91년 10월 18일 올림픽회관에서 13명의 불자들이 발기대회(초대회장 박삼옥)를 가진 무량회는 두달 뒤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으로부터 '무량회' 휘호를 받고 故 이기영박사의 '현대인과 무량심'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6년만에 150명의 회원을 확보한 직장법회로 성장했다.

그동안 탄허 · 관응스님 등 우리나라의 내로다하는 스님 · 학자들을 초빙, 2백회가 넘는 법회를 열었다. 또 직장내의 어려운 환경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 분기별로 쌀과 성금을 전달하고 양로원, 고아원, 결핵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봉사 · 위문활동을 펼치는 등 자비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재민돕기성금을 전달하고 군부대불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무량회가 이처럼 수행과 보시행을 고루 실천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교리 · 경전공부와 108참회 정진, 참선 등으로 다져진 불심 때문이다.

이태현회장은 "창립때 세운 반야지혜의 완성과 4무량심(四無量心; 보살이 가지는 慈 · 悲 · 喜 · 捨의 무한한 자비심)의 실천, 이익중생(利益衆生)을 이상으로 하는 3대 서원을 이루기 위해 공부한 만큼 실천하는 모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담마록카 부종정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일 스리랑카 담마록카 부종정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담마록카 부종정은 "6년째 여래종과 교류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간의 원활한 불교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래종 종정 인왕 · 총무원장 혜안스님을 비롯 스리랑카 게데니아대학 다야교수 등이 배석했다.



한국불교硏, 티벳하우스와 결연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14일 인도 '티벳하우스'(원장 라마 도붐 툴쿠)와 자매결연을 맺고 세계 불교학계와 첫교류를 시작했다.

한국불교硏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98년에는 '티벳의 성스러움-지혜와 열정'을 주제로 티벳 풍물전, 민속공연 등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99년에는 양국 불교의 경전 · 언어 · 사상 등의 분야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소자 2천여명에 대중공양

성동구불교협의회(회장 정우 · 구룡사 주지)는 9일 화담스님(은선사) 청하스님(보현정사) 목화원장(불심정사)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동구치소에서 재소자 2천여명에게 대중공양을 실시하고 봉축법회와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정우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것은 복된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며 "초파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동작구 불교연합회 봉축법회

동작구불교연합회(회장 혜철 · 청련사 주지)는 9일 서울 동작구민회관에서 봉축 대법회를 개최했다. 혜철스님은 봉축사에서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대비원력을 세워 더많은 이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림사주지 성도, 미타사주지 만화, 백운사주지 제현, 우암사주지 종연, 보광사주지 동효스님, 김기욱 동작구청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웅사 법당에서 장병들이 교리퀴즈에 열심이다.

"빽! 삐익!"

"1번팀 답해주세요."

"춘다입니다."

부저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이 뒤섞인 1군 사령부 법당 법웅사(주지 조길조법사) 대웅전은 교리퀴즈 열기로 가득차 있다.

찬불가 경연 · 교리퀴즈 신심 높여

군법당 법웅사 초파일봉축 사병잔치

1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으로 열린 '교리퀴즈 및 찬불가 경연대회'는 1군지역 3백여명의 사병들이 참여하는 불자사병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2인1조로 총 30팀이 참가,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팀은 4개팀.

다섯문제를 먼저 맞춘 팀에게 우승이 주어진다. 출연자들이 문제를 놓치면 방청석 사병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퀴즈문제에 모두들 열심히 귀기울인다. 사병들에게 불교교리를 재미있게 가르칠 목적으로 미리 예상문제를 배포하고, 4박5일 휴가 및 탁상시계 등 푸짐한 상품을 내놓아 사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날 퀴즈대회의 우승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군사령부 본부 소속 백승엽상병과 이상민일병팀이 차지했다.

다른 퀴즈대회와는 달리 중간에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어 법음의 향기를 퍼뜨려 흥을 돋우었고, 같은 부대원들이 답을 맞추면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등 한마음이 되어 불교교리를 차근차근 익혀나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교리퀴즈대회를 마련한 조길조법사는 "군법당 본래의 목적은 사병들의 정신교육 및 포교인데 비해 기존의 행사가 간부 및 일반신도들에게 치우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자사병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김주일 기자

실무지식 얻고… 팀웍 다지고…

조계종 재가종무원 공부모임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이 각종 공부모임을 통해 불교와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팀웍을 다져나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저녁시간 교육원 2층 회의실. 포교원에 근무하는 종무원들은 교육원 2층 회의실에 모였다. 김관태 포교과장, 김경호 연구과장을 비롯 10명. 3월초부터 시작한 '한국불교사' 마지막 시간이다. 고완수 연수과장이 중국과 한국선종의 개괄적인 흐름을 요약해 발표했다.

공부모임을 제안한 김관태 포교과장은 "종무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이후에는 포교원의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재가종무원들은 매주 모여 교리 · 실무공부를 한다.

총무원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업무와 관련된 조세법 지적법 등기실무 등 주로 업무와 밀접한 내용들로 '직원실무학습'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문인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기도 한다.

교육원은 한국 근현대불교사 학습에 이어 3월부터 승가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우리 모임에션

붓다클럽 '붓다대상' 시상

붓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문인종)은 10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제5회 붓다대상 시상식과 소년소녀 가장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내 행정기관 및 단체, 개인의 추천 · 심사를 거쳐 결정된 붓다대상 수상자에는 전통예술부문에 조을선씨(82), 효행부문에 송춘희씨(49), 사회봉사부문에 김부자씨(51)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50만원씩을 각각 수여받았다.

붓다클럽은 이어 3년전 同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소년소녀 가장 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직장불자회도 봉축법회

○…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 사무처관리국장)는 9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영주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근일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생활속에서 불심을 키우고 수행하는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대구교도소불심회(회장 이무양)는 20일 오후 대구교도소에서 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스님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불심회원 60명과 재소자 3백여명이 참석.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는 10일 수성구 반야사에서 법현스님(도성사 주지)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 이날 법회에는 수행위원장인 법상스님(반야사 주지)과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대전교도소 80여명 수계

대전교도소불자회(회장 정진우)는 9일 오후 교도소내 종교관에서 대전사암연합회장 월해스님(금강정사 주지)을 수계법사로 봉축기념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재소자 80여명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됐다.

KAL 월드투어 97.6.18~97.6.30

선착순 단2회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중국 구화산(지장보살) 성지순례 보타산(관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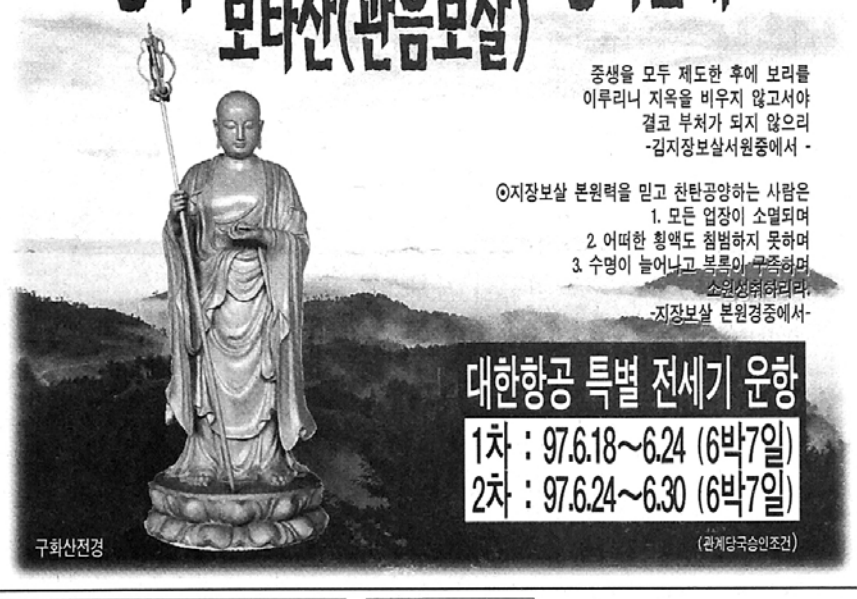
불기 2541년

후원 : 대한항공 / BBS 불교방송 / 구화산 불교협회 육신보전

중생을 모두 제도한 후에 보리를
이루리니 지옥을 비우지 않고서야
결코 부처가 되지 않으리
-김지장보살서원중에서 -

⊙지장보살 본원력을 믿고 찬탄공양하는 사람은
1. 모든 업장이 소멸되며
2. 어떠한 횡액도 침범하지 못하며
3. 수명이 늘어나고 복록이 구족하며
소원성취하리라.
-지장보살 본원경중에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1차 : 97.6.18~6.24 (6박7일)
2차 : 97.6.24~6.30 (6박7일)
(관계당국승인조건)



구화산 성지순례 ₩960,000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방문지 및 내용	식사
1 6/18 6/24	서울 상해	전세기 전용버스	12:00 12:50 오후	전세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상해 도착 영화사 순례후 휴식 HOTEL : 상해빈관 /보륭	x 기 중
2 6/19 6/25	상해 보타산	비상호 (신천) 전용버스	10:00 12:00	비상호륜으로 상해 출발 보타산 도착후 순례 불긍거관음원 보제사, 법우사 호텔 투숙후 휴식 HOTEL : 보타산대주점	호 호 호
3 6/20 6/26	보타산 영파 항주	폭속선 전용버스	07:30 11:00 오후	신천으로 보타산 출발 영파 도착후 순례 천도사 아육왕사 항주로 이동후 호텔 투숙 HOTEL : 신교 /항주민	호 중 중
4 6/21 6/27	항주 구화산	전용버스	전일	항주 성지순례 서호 영은사 전용버스편으로 항주 출발 구화산 도착 호텔 투숙후 휴식 HOTEL : 동이빈관 /취룡	호 중 호
5 6/22 6/28	구화산	전용버스	전일	구화산 순례 백세궁 참배 육신보전 "영가천도 대법회" 회상사, 기원사, 상선당 전대사 호텔투숙후 휴식 HOTEL : 동이빈관 /취룡	호 호 호
6 6/23 6/29	구화산 남경 상해	전용버스	전일	전용버스편으로 구화산 출발 남경도착후 중식 남경대교 관광후 상해행발 시내 도착 호텔 투숙후 휴식 HOTEL : 상해빈관 /보륭	호 중 한
7 6/24 6/30	상해 서울	전세기	14:00 17:00	상해시내 견학 홍구공원, 임시정부청사 등 전세기편으로 상해 출발 서울 김포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성불하십시요	호 기

장강 · 삼협 (1차) ₩1,280,000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방문지 및 내용	식사
1 6/18	서울 상해	M.5504 2	12 55 13 50	항공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상해 도착 옥불사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식사후 호텔투숙 HOTEL : 상해빈관	x 기 중
2 6/19	상해 소주 상해	열차편	전일	열차편으로 소주이동 유원졸정원 순구 열차편으로 상해 이동 호텔투숙 HOTEL : 상해빈관	호 중 한
3 6/20	상해 중경	J.5572	10 40 13 25	국내선으로 중경이동 중경지역 관광 중경임시정부 청사 나전사, 이딩공원 호텔투숙 HOTEL : 중경호텔	호 중 중
4 6/21	중경 삼협	유람선	전일	유람선 탑승 장강 유람 풍도도착후 하선 "귀신성 관광" 승선 장강 유람하며구단협(제1협)으로 이동 HOTEL : 백제호 선내숙박	호 선 선
5 6/22	삼협	유람선	전일	6시경 구단협 통과 백제성(공명사당)으로 조망)후 무협(제2협)으로 이동 무협관광후 무산 도착 하선 "북락선으로 소산협 관광" 유람선으로 귀환 서릉협 이동 HOTEL : 백제호 선내숙박	선 선 선
6 6/23	삼협 이창 무한 상해	전용 버스 (CZ3543)	07 00 09 00 17 55 19 25	서릉협(제3협)통과 삼유협(공사장)우의 휴식 도착 삼유협관광후 무한이동 황학루 관광 삼유협관광으로 상해 이동 상해 도착 호텔 투숙 HOTEL : 상해빈관	선 중 한
7 6/24	상해 서울	M.5541	09 05 11 55	조식후 호텔출발 항공편으로 서울 향발 김포국제공항 도착	호

장강 · 삼협 (2차) ₩1,280,000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방문지 및 내용	식사
1 6/24	서울 상해	M.5502 S.2544	12 55 13 50 18 10 20 35	항공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상해 도착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식사후 중경으로 중경이동 황궁관으로 중경선 탑승 도착후 유람선 탑승 HOTEL : 동방왕조 선내숙박	x 기 중
2 6/25	중경 삼협	유람선	전일	유람선으로 협곡 장강 유람 풍도도착후 하선 "귀신성 관광" 장강유람하며 구단협(제1협)으로 이동 승선 장강유람하며 구단협(제1협)으로 이동 HOTEL : 동방왕조 선내숙박	선 선 선
3 6/26	삼협	유람선	전일	6시경 구단협 통과 백제성관광(유람선에서 조망)후 무협(제2협)으로 이동 무협관광후 무산도착 하선 "북락선으로 소산협 관광" 유람선으로 귀환 서릉협 이동 HOTEL : 동방왕조 선내숙박	선 선 선
4 6/27	삼협 시 무 시 상 해	유람선 전용 버스	08 00 전일	시시 도착 시시지역 관광 황주로이동 미수보탑 관광 식사후 호텔투숙 HOTEL : 형주빈관	중 중 중
5 6/28	사 무 상 해	전용 버스	08 30 11 30 전일	시시 출발 무한 도착 중식 무한 지역 관광 황학루 관광 식사후 호텔투숙 HOTEL : 이화호텔	중 중 중
6 6/29	무한 상해	전용 버스 (CZ3579)	오전 12 05 13 25	무한 장강대교 관광 오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이동 시내 관광 식사후 호텔 투숙 HOTEL : 상해빈관	호 기 한
7 6/30	상해 서울	M.5561	09 05 11 55	조식후 호텔출발 황궁공항으로 서울 향발 김포국제공항 도착	호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조건 : 전일정 식사 포함 입금호텔 사용(2인1실) 공항세 포함 ※ 해외 여행자 보험 (여행 기업(연장별)

한진그룹 한진관광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일반여행업 8호

02-726-5702~3

예약 담당 대리 박동룡 박정숙

• VISA 비용별도 ₩16,000 • 구비서류 : 여권, 사진1장
• 신청금 ₩100,000 제일은행 : 105-10-095402 / 예금주 : (주)한진관광

지점 및 영업소 · 부산 : 463-2115 · 제주 : 42-7217 · 팔레스호텔 : 536-0368~9 · 경주 : 745-3070~3 · 광주 : 228-0041~2 · 가든호텔 : 718-3140~1 · 대구 : 426-6706~8 · 대전 : 252-2034~5 · 서울르네상스호텔 : 566-1768 · 서초구청 영업소 : 575-8324~5

법회안내

기원정사(0342)713-018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주지 법경스님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유달산 관음사(0631)44-5725



초상일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주지 일호스님

율곡사(062)263-4575



초삼일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초이레정진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주지 혜럼스님

대전 지장암(042)221-6208

산중기도 매월1일(음) 입제 오전10시30분
산중기도 매월3일(음) 회향 오전10시30분
문수보현기도 매월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참길청년회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7시30분
서예법회 매주 수·일요일 오전10시30분

호압사(02)803-4779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입제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3일(음) 회향 오전10시30분
약사재일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백중기도 6월4일~8월11일(음) 오전10시30분
참선기도 8월1~3일(음) 오전10시30분

정암사(0398)591-6825

일반신도 백상회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오후1시
학생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절약 낭비 일삼으면 노병에 후회

온 국민의 작은 정성을 모은지 한달여만에 저축계약고가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9일, 외채극복을 위해 3조원 저축운동을 펴기로 하고 지난달 7일 한일은행에 '경제살리기 국민저축통장'을 개설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1조1백80억원의 계약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24만8천여명.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유치원 어린이, 회사원, 노인, 주부, 군인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왜 근검·절약하며 살아야 하는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 나는 일체의 옷을 저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또한 저축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만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런 옷을 저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음식 등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중아함경〉

▨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지니라. 부디 스스로 금 은 따위의 보물들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잡아함경〉

▨ 그윽한 산해진미 군침을 삼키지만 조절해 먹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되네, 학들이 장수함은 절식(節食)이 원인이니 그대 양을 알면 수명을 보존하리. 〈잡아함경〉

▨ 이 몸이 영원한 줄 어이해 믿었던고. 수행을 멀리하고 낭비를 일삼으며, 익혀온 악업 습기 즐기기 다했더니, 노병에 짝 잃으니 후회해 무엇하리. 〈법구경〉

▨ 비록 백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루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출요경〉

▨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자신을 위해 재물을 받거나 모으지 않고 모든 재물은 가난하고 고생많은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에만 쓰겠습니다. 〈승만경〉

▨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걱정하고 재산이 없으면 또 재산에 고통받는다. 〈대무량수경〉

▨ 친구로서 남에게 물건을 기증하는데는 다섯가지 뜻이 있으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가까이하여 뜻을 얻는 것, 존중하는 것, 오래 마음을 통하는 것, 내 것을 쓴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쁜 것이니라. 〈근본설일체유부〉

▨ 나쁜 친구와 친해져서 재화를 구함은 비도(非道)이다. 기생과 가무를 즐기기 위해 재화를 구함도 비도이다. 〈중아함경〉

▨ 재물은 종종 번뇌죄업의 인연이 된다. 지계 선정 지혜와 같은 종종의 선법은 열반의 인연이된다. 〈대지도론〉

▨ 절약하되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흘리어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갚음을 받으리라. 〈잡아함경〉

▨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마땅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라. 〈불유교경〉

시민선원 하안거 결제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태응스님) 시민선원은 8월 17일까지를 일반불자들의 하안거 기간으로 설정하고 21일 결제에 들어간다.

시민선원은 스님들이 여름 장마철 기간인 90일동안 한 곳에 머물며 수행정진 하는 하안거를 불자들에게도 적용, 기간동안 일정한 참선, 기도, 묵언 등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은 매일 오전9시~오후4시이며 동참비는 5만원이다. (051)816-2241

제1회 불교사경대회

전통 서예문화의 계승과 신행 활성화를 위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가 동방연서회(이사장 김응현)와 조계종총무원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승려부와 일반부로 구분 시행되는 이 대회는 6월10일 예선, 6월20일 설악산 영시암에서 열리는 본선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우수 사경작품은 화엄사 등 국내 대가람에 석각(石刻) 보존될 예정. 참가희망자는 25일까지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02)733-0131

외국스님이 외국어 법회

연등불교국제회관(원장 원명스님)은 매주 일요일 저녁6시 외국어 법회를 개최한다.

외국인 스님들이 법사로 초청돼 예불, 불교의식과 기초교리 강좌를 외국어로 진행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참석가능해 불심도 다지고 외국어와 불교상식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 기대. (02)735-5347

지장성지 구화산 순례

중생을 모두 제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 지장보살이라 칭송받았던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이 수행했던 성지 구화산. 불교방송은 6월18일 교각스님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중국 구화산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6박7일 일정으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는 상해 보타산 영파 천동사 아육왕사 영은사 항주 구화산 남경 등을 둘러보게 된다. 참가비는 총 1백22만원이며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는 불교방송에 신청하면 된다. (02) 726-5702

금산사 사찰생태기행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25일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스님)로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떠난다.

청량한 자연의 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산사를 찾아가 사찰주변의 생태를 조사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돌아오는 길에는 모악랜드 건설현장에 들러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앞에 오염되는 청정 수행도량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02)741-4696

자연 및 문화사랑 탐사

무등산 선덕사(주지 행법) 유적답사단은 25일 호남대 이두표교수(생물학과)와 행법스님을 안내자로 자연 및 문화탐사를 떠난다.

'숲과 새들, 그리고 들에 핀 꽃'이란 주제로 떠나는 이번 탐사는 무안군 용월리와 전남 농업박물관, 월출산 도갑사〈사진〉 등지를 둘러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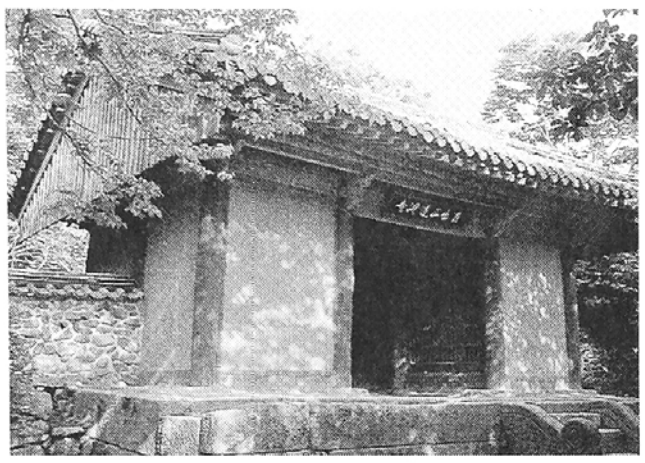
대자연 속의 식물과 동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습에서 자연사랑의 소중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이 탐사의 목적.

회비 2만5천원(점심공양 포함) 8시30분 출발. (062)264-8024.

북동포 돕고 선화도 감상

우리의 반쪽 북녘 2천4백만 동포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동체대비심을 발휘하여 북동포를 돕는 자비보시의 보살행,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동포와 민족을 구하고 평화통일을 완성하는 진정한 방생불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부응해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는 6월1일 세종문화회관 제3 전시실에서 '범주스님 선묵초대전'을 개최한다. 이 방생불사장에서 선화도 감상하고 북녘동포도 돕자. (02)735-5558



◇국보 50호 도갑사 해탈문. 건물의 정면에 '월출산 도갑사(月出山道岬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선덕사유적답사팀은 25일 월출산으로 문화탐사를 떠난다.

나의 수행일기

박희청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 시작'

말·생각·행동도 '가르침' 따르려 노력

새해 첫날이면 항상 나는 한해를 좀더 알뜰한 삶으로 가꿔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세계사를 찾아간다.

아침일찍 혜화동 로터리에서 출발한 버스는 도반들과 〈금강경〉을 7독하고나니 목적지에 도착했다.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고 전날 눈까지 많이 와서 모든 길은 빙판이었다. 세계사는 빈 절터만 남은 곳이지만 미륵불 상만은 긴 세월을 견디어 온 듯 하얗게 빛바랜 모습을 하고 허허벌판에 인자하게 서 계셨다. 추운 날씨라 잠깐 서 있기 조차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미륵불 앞에서 〈금강경〉을 독송했다. 독송이 끝난 후 온몸이 얼얼했으나 마음만은 무척이나 상쾌했고 불자의 도리를 한 것같아 일견 마음이 뿌듯했다.

이렇게 내가 〈금강경〉을 독송해온 생활이 5년째다. 처음에는 한번 읽기도 어려웠으나 이제는 아주 수월하게 독송하며 나름대로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소 생활속에서도 항상 〈금강경〉의 이치를 적용시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모든 일들이 더욱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다.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라나 부모님 삼촌따라 신촌 봉원사를 다녔던 기억은 아름한 어린시절의 행복이었다. 절에 가면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예경하고 나서는 줄곧 사찰의 곳곳을 기웃거리며 호기심을 키웠다. 성장하여서는 10여년간 롯데그룹 신격호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신행생활은 멀어졌으며 오직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바쁜 사회생활로 일관했다. 그러다 결혼하기 전 장모님을 따라 통도사 백련암에서 원산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뵙고 스님의 수행모습과 덕을 흠모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심의 기회를 갖게 됐다. 스님은 결혼을 앞둔 나에게 인생살이 전반에 대해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후에 수많은 스님과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배워가는 생활에 뜻을 두게 됐다. 그러다보니 故 이기영박사님도 만나뵙게 됐고 한국불교연구원 이사로 활동하며 좋은 인연속에 신행하게된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한다.

5년전에 천도재를 지내기 위해 상의하러 갔던 포항 금강경독송회와 인연이 돼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게 됐다. 〈금강경〉을 독송하다보니 음식업체인 상의실업 운영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다. 직원들을 한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더니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해주는 것은 물론이다.

불교에서는 철저히 이성에 호소하여 그것이 확신으로 자리잡고 저절로 바깥을 향해 우러나오기를 바란다고 본다. 따라서 불교는 알고 믿어야 하며 믿는대로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 아닌가. 그러나 비록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생활속에 전개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기도 해 〈금강경〉에 담겨진 그 윽한 원(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을 읽는 공덕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애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기운과 마음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금강경〉을 일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만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맑아지고 활기차 진다. 하는 일도 더욱 빛나는 느낌이다.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사람들이 이 〈금강경〉을 잘 읽어서 세세생생 밝은 날과 같이 복많이 짓길 발원한다. 나의 평생 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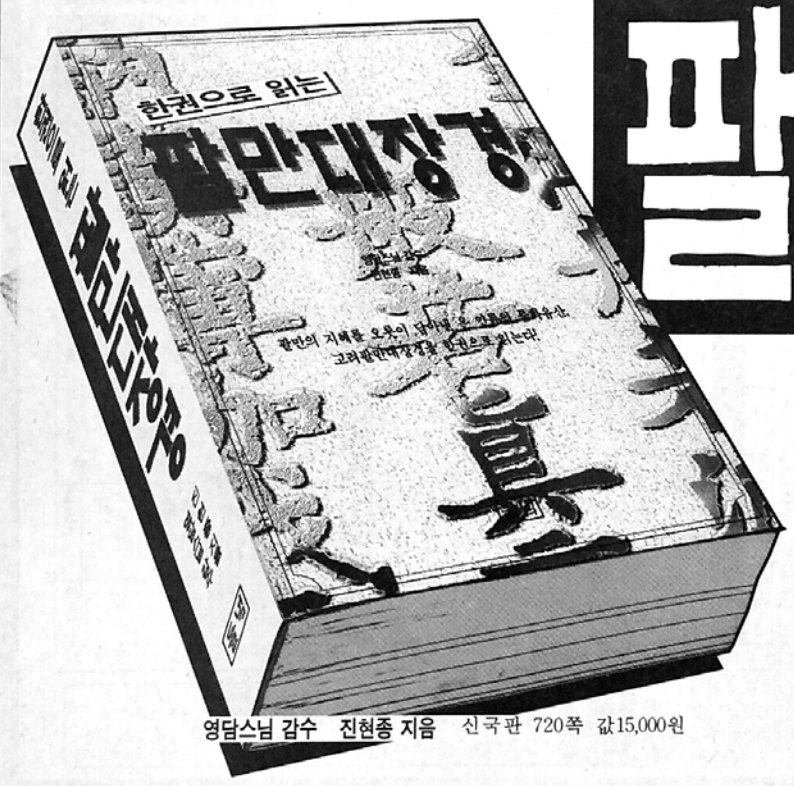
〈상의실업 대표〉

신행수첩

들녘 TEL:337-0296 FAX:338-9640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영담스님 감수 진현종 지음 신국판 720쪽 값15,000원

팔만의 지혜를 담아낸 온 인류의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읽는다!

팔만사천 번뇌의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들 중생을 위해
팔만사천 법문을 연 부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자한자 뜨거운 호국의 염원으로 빚어냈기에
팔백년의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흠결 하나 없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고려팔만대장경.
해서 세계는 전인류가 보전해야 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확정하였다.
팔만대장경은 단지 불교사상의 결집체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백전불굴의 기개와 뛰어난 문화창조자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이 담겨 있으며
오묘한 우리 전통과학의 정수가 체현되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방대하고 중요한 팔만대장경의 구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해봄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문화의 향기와 자긍심을 듬뿍 안겨줄 것이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를 낱낱이 읽는다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는 500여년간의 왕조사를 한권으로 묶은 이 책은 조선의 역사에 관한 입문서다. 각 왕통의 가계도와 함께 조선의 과학지식,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당파싸움 등 조선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64쪽 값 10,000원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 역사의 허리에 해당되는 고려왕조. 그러나 고려의 진면목은 짙은 안개에 가려 있다. 외세의 힘을 빌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북방을 경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 그 강인했던 역사를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소상히 알아본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88쪽 값 10,000 원

불자 세상보기

"국민단합 난국극복하자"

대학총장 300명 호소문 발표

전-현직 대학총장 3백여명이 한보사건 등으로 어지러운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대학총장들의 모임'을 가진 이들은 호소문을 채택하고 "우리 사회는 노동법 파동과 한보사건 등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력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하고 정쟁을 지양해 국민 복리와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인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한 한보사건의 처리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제도를 만들어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완규 전서울대총장, 홍일식 고려대총장,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사교육비 "가정도 국가도 멍든다"

한해 20조원…공교육 제도개선 절실

과중한 사교육비는 계층간 소득격차로 인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교육비증가는 결국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과외를 시키는 가구의 비율이 93년 34.5%에서 96년 70.9%로 증가했다.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94년 16.8%에서 96년 19.5%로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96년 교육부 국정조사 제출자료, 이 가운데 순수과외비는 6조7천억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71조4천6억원)의 30%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과외경제'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12일 초-중-고생을 위한 과외전담 위성방송 8월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과외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서울대교육연구소와 한국교총이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4천6백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외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지역별 분포가 62.5%~74.1%로 고르게 과외를 받고 있었다. 시군 지역도 과외 수강학생이 30%를 넘어 과외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 한사람이 매달 평균 지출하는 과외비는 21만7천원. 서울의 경우는 3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과외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다른 조사(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서 싼 값으로 특별활동이나 과외수업을 시킨다면 내 아이도 시키겠다는 응답이 81.6%로 나와 과외의 학교 및 공교육으로의 흡수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물신 가치관 변해야"

김형증교법사(밍성여고)는 "힉력위주의 사회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물신주의에 중독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과외열풍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삶의 의미를 물질보다 정신적 풍요에서 찾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구비유경〉에서는 도(道)를 행함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천장(千章)을 외울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외다 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또 안전 불감증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붕괴우려가 있다며 안전점검을 요구했으나 이상이 없다며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서울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축대가 14일 무너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으며, 아파트 주민 2천5백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시론

과외, 학생도 원하나

박 부 권 〈동국대교수 · 교육학〉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원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건 국무총리는 서울대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등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과외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 열린 '경제난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안병영 교육부 장관을 초청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을 청취하는 등, 정부는 여러방면에서 과외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암기시험이 낳은 폐해

그러나 과외를 보는 학부모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정부가 과외비를 불필요한 투자, 낭비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비하여 학부모들은 대부분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는 생산적인 투자로 보거나 그렇게까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을 위하여 불가피한 투자로 본다. 시각차가 이토록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것이어서 정부의 관점에서 취해진 백가지 처방이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고능력보다는 암기능력에 의존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험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십중팔구 과외공부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성적 올리는데 효과를 가질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교사라면, 그가 가르치는 교과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시험문제로 출제된다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좀 더 부지런한 교사라면 여러 유형의 교과서와 문제집 속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분석하여 그 문제들을 푸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기계적으로 숙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는 학교의 교사들보다 학원강사들이 훨씬 더 열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보통의 학생들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강사들이 시키는데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가 혼자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과외공부의 비밀이 있다.

이런 방식의 정답 알아내기 훈련이 갖는 문제는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한 문제를 붙들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집요함과 거기에 필요한 인내심을 길러주지 못하며, 쉽게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그러므로 과외공부가 나쁜 것은 과외에 돈이 지출되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점수 올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을 지적으로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 과외공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반을 넘는 액수를 과외수업비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우리의 2세들이 더욱 현명해지고, 더욱 사려깊게 되고, 더욱 인간답게 된다면 그 돈의 액수가 많다 하여 아깝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동일한 맥락에서 어머니가 반찬값을 줄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용돈을 줄여 가계수입의 상당액수를 자녀의 과외비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 과외비로 인하여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가치있는 지적 훈련을 쌓게 된다면 어찌 그 지출이 아깝고, 그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궁핍이 문제될 수 있는가?

'과외공부'는 그것을 정부처럼 '경비'를 절감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학부모들처럼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교육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권위회복해야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보는 타성에서 벗어나, 그것을 교육적 안목으로 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과외공부를 시키기 전에 그것이 자녀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에 줄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사들은 적어도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해서는 정통하여 교육의 주도권을 학원강사와 과외교사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대학들은 학교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워 수학능력시험 점수 1~2점을 다툴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학답게 왜곡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을 바로잡는데도 공헌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계 금주 파계

서울시 청백리 뽑는다

●…서울시는 업무와 관련된 업자나 단체의 유혹에 의연히 대처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매년 1~2명 선발해 '서울 청백리'로 선정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는 엄정한 심사를 위해 별도의 민간심사위원회를 두어 올 연말쯤 청백리를 뽑을 계획이다.

'나부터 개혁' 단체 발족

●…'나를 반성하고 남은 칭찬하자'는 구호를 내건 '나부터 개혁실천연합'이 30일 창립된다. 이 단체에는 전북지역 대학 총학장, 병원장을 비롯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립대회 때 '국민칭찬대회'도 열 예정이다.

노인성질환 무료 치료

●…대전에 노인들에게 무료로 질병을 치료해주는 경로병원이 생긴다. 사회복지법인 한국경로복지재단(이사장 서윤식)은 23일 대전시 석봉동에 '신탄진경로의원'을 열어 본격 진료활동에 들어간다. 66평 규모에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 4개 전문과를 갖춘 이 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을 치료해준다.

교수가 中企 기술지원

●…전문대학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가 지난 2일 창립되어 산학협력이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립대 재료공학전공 교수가 납땜기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다. 정교수는 작년부터 인천 일특엔지니어링과 함께 반도체기판을 납땜하는 최첨단 납땜기를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 연대 환경대처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5개 지자체 환경관련 실무자들은 13일 '환경분야 실무자회의'를 갖고 시도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각종 광역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비용 분담 기준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거리의 스승'에 카네이션

●…경희대 총학생회(회장 박정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30년간 경희대 교정 안팎의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워온 78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김남식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김선생님을 '실천의 스승'으로 모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대받는 아동 4만명

●…우리나라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4만여명에 달하고 있느나 이들을 위한 시설은 3백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집 청소년상담소 이상순소장은 13일 아동학대예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국가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콩나물서 또 농약검출

●…경기도는 10일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중 불법 농약을 쓰거나 함량이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식품 5개를 적발, 제조정지와 고발 조치를 취했다. 콩나물에서는 사용금지된 농약잔류물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3일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청암샘물과 강화해암샘물에 대해 제품의 폐기처분토록 제조지 자치단체에 의뢰했다.

아파트 베란다높이 낮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부산 분당 일산 등 9개 도시 집단주택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 1백10㎝에 미달된 곳이 조사대상의 3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추락한 사고(자살 및 화재 추락사고 제외)는 52건이었다.

골프장 농지 편법매입

●…골프장을 증-개축하기 위해 농지를 편법매입하고 산림을 훼손한 골프장 대표들이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레이크사이드 은화삼 태광골프장 대표들은 산림의 무단벌채와 골프장 용도를 호화주택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 대출자금 빼돌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9일 고객명의를 도용, 대출금계좌를 만든 뒤 컴퓨터단말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은행 대출자금을 빼돌린 주택은행 광명지점 대출담당직원 정모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0여차례에 걸쳐 13억6천7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과거옹호 세력 확산

●…일본 극우파 지식인들의 글을 모은 〈일본에서 가르치지 않는 역사〉가 80만부 이상 팔리는 등 일본의 과거를 옹호하는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LA타임스지가 9일 도쿄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과거옹호'를 지지하는 세력은 일본사회 각계를 망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하출판 TEL:778-6826/7 FAX:778-6828



"생각없는 생각의 묘함으로서
끝없이 신령스런 불꽃을 숙고하여
존재의 근원에 돌아오면 둘이 아닌 원칙인
성품과 그 형상이 항상 머무르니. 이것이 참부처님이다."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중에 -

"어디가 참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은 선(禪)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선 '그저 지켜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대인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의
진수를 경험해 보자!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당신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부처, 깨달은 자로 존재할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앙산 (仰山)
위산의 법제자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출가했다.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담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의 문을 열었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 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2장경
오쇼 라즈니쉬 지음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CREATIVE WOO AD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⑦

구지의 손가락

俱胝和尙, 凡有詰問, 唯擧一指. 後有童子, 因外人問, 和尙說何法要, 童子亦竪指頭. 胝聞, 遂以刀斷其指. 童子負痛號哭而去. 胝復召之. 童子廻首, 胝却竪起指. 童子忽然領悟. 胝將順世, 謂衆曰, 吾得天龍一指頭禪, 一生受用不盡. 言訖示滅.

無門曰, 俱胝舁童子, 悟處不在指頭上. 若向者裏見得, 天龍同俱胝舁童子, 與自己一串穿却.

頌曰, 俱胝鈍置老天龍, 利刀單提勘小童. 巨靈擘手無多子, 分破華山千萬重.

*구지화상은 학인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없이 엄지 손가락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 손님 하나가 절의 동자(童子)에게, "스님께서 무슨 설법을 하시더냐"고 물었다. 동자는 늘 보던 대로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구지가 이를 전해 듣고, 칼로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동자는 아픈 손을 움켜쥐고 울면서 달아났다. 구지가 다시 그를 불렀다. 동자가 고개를 돌렸다. 구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그 순간 동자는 깨달았다.



구지가 세상을 뜨며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천룡(天龍)의 '손가락 선'을 얻어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했다." 말을 마치자 곧 입적했다.

*나 혜개가 말한다. "구지와 동자의 깨달음은 손가락 끝에 있지 않다. 여승이 평소 뭘 가르치시더냐." 어려운 걸음에 대덕(大德)을 만나지 못하고 가야하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아이는 늘 보던 대로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인다.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산을 내려간다. 밖에서 돌아온 구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 냉큼 칼을 들어 그 손가락을 잘라 버렸다. 극심한 고통에 울부짖으며 방을 나가던 아이를 구지가 다시 불러 세운다. 아이가 돌아본다. 그때 구지의 손가락이 다시 세워진다. 아이는 홀연 구지의 손가락에 가리운 비밀을 깨닫는다.

참으로 극적인 드라마이다. 그런데 〈오등회원〉이나 〈선문염송(禪門拈頌)〉은 좀 더 치밀한 플롯을 갖고 있다. 아이가 손가락을 부둥켜 안고 방을 뛰쳐나가고 그를 구지가 불러 세우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아이가 돌아볼 때, 구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대신, 아이에게 묻는다. "부처의 진리가 무엇이냐?"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치켜올렸다. 이를 어쩌나, 아이의 손가락은 거기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의 빈 자리, 아이는 할 연대오했다.

대체 구지와 동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가 화두의 눈이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벽암록〉에도 실려 있다. 혜개는 말한다.

"손가락 끝에다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라. 손가락을 통해 그 너머의 소식을 당하(當下)에 붙잡으라. 그리하면 손가락을 전한 천룡과 그것을 전해받아 쓴 구지와, 손가락을 잘린 동자와 그리고 지금 그 소식을 '읽는' 네가, 한 줄에 꿴 듯 동일한 눈으로 보고, 동일한 귀로 들으며, 동일한 공간에 참예할 것이다."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혜개는 앞의 제1칙 조주무자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는다. 한번이면 됐다고 여겼을 것이다. 선은 중언부언을 싫어한다. 송(頌)이라는 형식이 선호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혜개의 송을 보자. "구지는 천룡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렇지, 천룡의 뜻이 어찌 손가락에 있겠는가. 구지는 평생을 천룡의 뜻을 왜곡하고 기망했다.

그래서 현사(玄沙師備 835~908)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놈의 손가락을 분질러 버렸을텐데." 이 비난을 들었던지 구지는 과연 동자의 손가락을 자르고 말았다. 그 호쾌함이라니, 긴 말이 필요없는 그 단순성과 직접성. 그것은 거령신(巨靈神)이 첩첩 구만겹인 화산(華山)을 한 손에 쪼개버린 것과 같다. 짤린 동자의 손가락 사이로 지금도 누런 황하가 유유히 웅혼하게 흐르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손가락 너머 소식을 붙잡아라"

천룡·구지·동자·독자 한 공간에 참예

기서 그 소식을 얻는다면, 천룡과 구지와 동자를 그대와 한 꼬챙이에 꿰어 찬다."

*송하여 가로되, "구지는 천룡을 바보로 만들고, 예리한 칼을 들어 동자를 시험했네. 그 옛날 거령신이 성큼 손을 들어, 화산의 천만 겹을 돌로 갈라 버렸듯이."

〈오등회원(五燈會元)〉 권4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처음 무주(婺州)의 금화산(金華山)에 머물고 있던 구지(850-?)에게 한 여승이 찾아왔다. 삿갓도 벗지 않고 성큼 들어와서 방안을 세바퀴 돌고 이렇게 물었다. "한 말씀을 해 주시면 삿갓을 벗지요." 세번이나 물었지만 구지는 진땀을 흘리며 아무말도 못했다.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감연히 분발, 제방(諸方)의 선지식을 찾아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산신이 나타나, 곧 육신 보살이 찾아올 것이니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다고 일러준다. 며칠 후 천룡이 구지의 우거(寓居)를 방문한다. 구지가 전에 있었던 일을 고하자, 천룡이 문득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구지는 이 대답에 일대사를 마쳤다. 그는 천룡으로부터 얻은 이 손가락을 평생을 써도 못 다 쓰고 갔다.

그런데 한 동자가 구지의 흉내를 냈다. 구지를 찾아온 손님이 동자에게 묻는다. "네 스승은 무슨 법을 설하시더냐?" 동자 또한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인다. 손님은 "그것 참 좋은 법을 설하시는구나"라고 말하고 돌아간다. 동자는 구지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한다. 구지는 칼을 들어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동자는 울면서 달아난다. 구지가 다시 동자를 부른다. 동자가 고개를 돌린다. 구지는 손가락을 세워 보인다. 동자는 깨닫는다.

구지는 동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것이다. 동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이 구지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구지는 동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을 보고 동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구지는 동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을 보고 동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삼학가운데 정학(定學)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법을 닦는 것이다.

정은 인도어 삼마디(Samadhi)를 번역한 말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말들로 선나(禪那 Dhyanu), 등지(等至 Samapati), 등인(等引 Samadhita)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경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선정(禪定)이라는 말로 통일시켜 사용한다.

계를 지켜 악을 조복받고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닦는 사람은 이제 마음을 한곳에 두는 선정 공부를 수반해야 한다. 아무리 계를 엄수했다 해도 정을 닦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정학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혜학을 이룰 수 없고 혜학이 없으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이고득락의 경지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계학이 정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정학은 혜학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끊임없이 흐르며 작용한다. 마치 원숭이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온갖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일으키면서도 자신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고 꺼지는 마음의 활동은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온갖 번뇌를 야기시키고 한없는 방황을 가져오게 한다. 때로는 보고 듣고 맛보는 경계를 따라 마음은 흘러가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회상하며 빠져있기도 한다. 정학은 바로 마음의 이러한 작용을 쉬게하고 뒤에 나오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행덕목인 것이다.

法數로 배우는 불교

〈17〉

삼학(三學) 中



◇통칙스님 作 '板齒生毛'

선정 마음 집중 지혜 성취 수행

번뇌 차단…세속적 몰입과 달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지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빗물이 새듯 마음을 굳게 수행하지 않으면 번뇌가 스며든다"고 하셨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즉, 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그릇된 마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지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뇌를 차단시키고 마음의 고요를 가져오게 하는 정은 몇가지로 나를 수 있을까.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세가지란 세속적인 정, 몰입을 주로 하는 정, 지혜를 낳게 하는 정이다. 먼저 세속적인 정이란 수행과는 관계없이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악사가 악기를 다룸에 있어 그 마음이 자신이 켜는 악기의 음률에 집중되어 일체의 다른 생각이 일지 않는다면 이것도 일종의 정은 정인셈이다.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사가 바둑에 몰입되어 전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은 아무리 깊더라도 수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대상에 빼앗겨진 상으로써의 집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은 계를 닦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탐욕을 일으키면서도 얻을 수 있다.

몰입을 주로 하는 정이란 마음이 대상을 향해 빼앗겨 있다든가, 과거나 미래를 상상함이 없이 마음에 어떤 주제를 만들어 집중하고 있는 정을 말한다. 이것은 불법을 제외한 다른 종교, 예컨데 힌두교나 자이나교 혹은 신선도 같은 곳에서 행하는 일종의 단순 몰입적 '정'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마음에 신의 이름이나 주문, 혹은 어떤 경구를 암송한다든가 호흡등을 다스려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의 주제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깊이 몰입되어 있는 정이다. 정을 불교에서는 하나의 정당한 수행방편으로 인정을 한다.

불교내에서도 이러한 수행방편을 때에 따라 쓰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사의한 신비 체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뒤에 나오는 혜학을 성취하게는 못하므로 진정한 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혜를 낳게 하는 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작용을 되비추어 보는 조견법에 입각한 정이다. 즉, 단순한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정으로 혜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16

불교와 수학

⑩

우주론

김 용 운



과학 空의 상태서 대폭발후 우주탄생

불교 삼천대천세계 10억 수미계 존재

필자는 수년전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적인 동양 과학사와 생화학, 두 분야에 걸친 세계적인 권위자 J.니담 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인간 생명의 우주적 환경'을 주제로 한 매우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종교 또는 신학은 최신의 거시, 극미 세계에 관한 새로운 과학 업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대종교는 대부분이 이천년하고도 수백년 전에 창시되었으므로 당시의 교리를 경전의 내용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만화적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이천 수백년 전의 공간관이 지금의 과학 지식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랫동안 황당 무계한 것으로 여겨져 왔을 것이다. 현대의 최신 과학 지식과 불교의 공간관, 시간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최신의 우주론은 '우주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고대 이래의 인류적인 중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주는 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불교의 "무시무종(無始無終, 시간도 끝도 없다)"과 일맥상통한다. 최신 과학은 이 사실을 빅뱅(Big Bang)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설에 의하면 우주의 시작은 소립자보다 작은 극미의 우주이며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등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다. 이것에 양자론적인 물리현상(던넬효과)이 발생하므로써 우주가 탄생되었다. 우주가 탄생된 1/100의 1초 후의 온도는 1000억도, 그리고 1초 후에는 100억도로 냉각되고 10억년 후 은하계가 형성된다. 154억년 후에 행성이 태어나고,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200억년 후의 일이다. 〈법화경〉의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에서는 빅뱅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실때 사바세계의 삼천대천국토(三千大千國土) 모두가 진동하여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무량천만억의 보살이 솟아난다. 팔천항하사(八千恒河沙, 갠지스강 전체 모래알의 팔천배 개수)의 보살이 '석존이 입멸한 후 이 사바세계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지키며 읽고, 베끼고, 공양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간청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그 청은 필요없다'고 하신다. 이때 대지가 진동하여 갈라진 대지에서 육만항하사(六万恒河沙) 만큼의 종자(從者)가 뒤따라 나타난다. 이들이 미래 세계에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차례로 나타나는 엄청난 보살의 등장은 빅뱅의 결과와 같다. 불교의 거대한 시간관, 공간관은 오늘날의 천문학적인 광년의 세계에 대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불교적 공간 세계는 삼천대천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수미산(須彌山)이 있다. 불교적인 거리 단위인 요자나(由旬, Yojana)가 그 크기를 나타낸다. 세계의 중심에는 팔만유순(八万由旬, 약 9억미터) 높이의 수미산이 있다. 이 산을 팔산(八山), 팔해(八海)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곳을 태양과 달이 돌고 일수미세계(一須彌世界)를 이루고 있다. 일수미세계가 1000개 모여 소천세계(小千世界), 소천세계가 1000개 모여 중천세계(中千世界), 중천세계가 1000개 모여 삼천대천세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삼천대천세계에는 약 10억의 수미계(須彌界)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우주론에서 이 전 우주에는 수천개의 태양이 산재하고 있다고 추측되어 있는데 삼천대천세계에는 10억의 태양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삼천대천세계는 현재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를 넘은 거대한 세계이다.

이들 수가 모두 $((10^{10})^{10})^{10}$…이라는 식으로 멱승으로 표시하고 있다. 거시 세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다. 현대의 종교가 마크로(macro, 거대), 미크로(micro, 극미)의 과학 업적과 접목되어야 한다는 J.니담의 주장을 이미 2500년 전의 불교가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제2회 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11]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인국동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통일의 그날…梵音 울려 퍼지리"



◇두마리 용이 등을 맞대고 있는 용뉴는 금방이라도 승천할듯 조각이 생생하다.



◇연복사가 소실되자 개성 남대문으로 옮겨진 연복사종. 중국종 양식을 따르고 있다.



◇섬세한 조각의 보살과 신중상.

개성 연복사종

650년전 자비·화합 '오늘로 기원'
'부처님의 축복' 범어 명문 새겨져

금방 살아 승천할듯한 용뉴
봉황·거북등 몸통조각 '웅건'
삼존불부조 고려불심 상징

개성에 있는 '연복사 종'이 울릴 통일의 그날은 언제일까. 연복사 종이 주조될 때는 몽고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14세기. 연복사 종에는 '부처님의 축복'이라는 뜻의 범어로 쓰여진 명문이 있다. '부처님 축복'이란 바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영원한 평화를 이룬다'는 뜻이 아닐까.

고려시대의 대표적 범종 '연복사 종'을 연구한 영문책이 최근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에 의해 발굴 소개됐다. 이 책의 저자는 영문학자 故 양한성박사(1922~1995 · 한양대교수).

양박사는 '고려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했던 연복사 범종은 오늘날 통일된 한반도를 기다리는 한민족의 염원과 같다'는 신념으로 12년의 연구를 정리해 지난 95년 5월 영문판 〈Yonboksa Bell in Kaesong, Korea〉를 5백권 한정 출판해 미국 영국 등 해외에 보급했다. 그러나 양박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 책은 한동안 묻혔다가 이번 발굴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목왕 2년(1346년)에 주조된 연복사 범종은 동합금을 사용해 높이 3.3m, 입지름 1.9m, 두께 23cm 규모로 중국 종 양식을 따르고 있다. 종의 형태가 우아하고 조각이 섬세할 뿐 아니라 소리 또한 아름답고 맑아 그 여운이 백리 밖에까지 울려 퍼진다고 한다.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등을 맞대고 얽힌 용뉴는 금방이라도 살아 승천할 듯 생생하다. 몸통에는 용·봉황·거북 등이 파도를 남는 웅건한 형상으로 조각돼 있다. 그 아래 4방향으로 연화대좌 삼존불이 부조돼 고려인들의 지극한 불심을 우아하게 표현해 놓았다. 당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저축량의 서체로 일필휘지한 '법륜상전(法輪常轉) 국왕천추(國王千秋) 불명증휘(佛明增輝) 황제만세(皇帝萬歲)'란 4구(句)의 양각 문자를 안고 있다.

종의 허리에 있는 범어 팔부불보살명(八部佛菩薩名)은 고승 지공스님의 필적이다. 범종의 끝자락에는 훼손이 심한 몽고문자와 고려인으로 추정된 사람 이름(시주자인듯), 팔괘(八卦), 팔엽곡선(八葉曲線) 등이 새겨져 있다.

이태녕박사는 "북한 범종 연구서로서는 유일한 〈개성 연복사 범종〉은 범종을 단순한 불교문화재로 한정하지 않고 범종에 양각된 명문(銘文) 연구를 통해 고려의 관제(官制), 평민들의 삶, 원나라와의 관계 등의 역사 이면을 밝혀내고 범종을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사적 유물로 승화시켰다"고 설명한다.

종이 주조됐던 1346년은 원의 노골적인 개입에 의해 국왕의 책봉과 퇴위, 고려왕실과 원황실과의 혼인, 정동행성의 설치 등과 같이 파행적인 정치현상과 토지개혁 실패로 농민유랑·반란, 가뭄 등 고려의 정치·사회적 모순이 참예화됐던 시기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는 당연히 부처님 가피로 원(元)의 폭압을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故 양한성박사가 범종의 명문에 문화사적 해석을 가했던 것 또한 이러한 까닭이다.

비단 연복사 범종 뿐만 아니라 몽고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목공이며 1348년 13m에 달하는 경천사십층탑을 세웠던 석공, 고려가요를 읊었던 시인의 마음에서 연복사 범종을 주조했던 고려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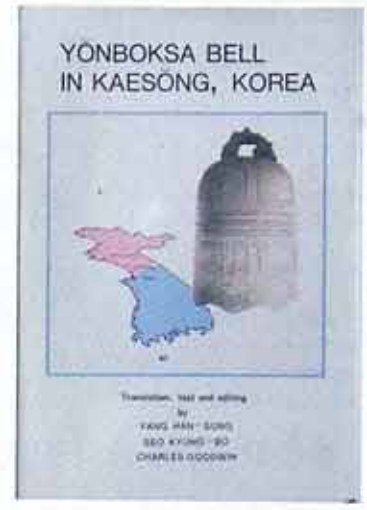
고려인의 평화에의 갈망은 범자 명문 뿐만 아니라 몽골어 명문(銘文)에서도 나타난다. 혜초스님(704~787)의 〈대교왕경〉(大敎王經)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진 이 몽골어 명문의 내용은 '자비와 화합'. 이 문구는 중국 북경의 외곽에 있는 거용관과 일본 회성사의 암석 등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원이 세웠던 거용관은 다름아닌 거대한 몽고제국과 인접국을 연결했던 관문이다. 이 곳에도 '자비와 화합'을 염원한 문구가 새겨있다.

몽골어명문 외에도 연복사종에는 범어명문이 새겨있다. 범어권위자 유아마 아키라박사(日 국제불교연구소)가 일제시대 범어명문을 해석한 자료중 "온전히 정화돼 깨달은 사람은/승리하리라/…/정화되어라/삼계(三界) 도처에 도사린 허상과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리라"는 내용이 있다. 고려인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고난이 허상임을 깨닫고 불심을 통해 이를 벗어나 자유와 평화에 도달하고자 하는 깊은 염원이 느껴진다.

연복사 범종은 조선(1563년)에 이르러 연복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범종은 개성의 남대문으로 옮겨졌다. 이후 연복사 종은 1900년대 초까지 개성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남대문 종'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범종을 대표하는 연복사 범종은 단순한 문화재만이 아니다. 이 종은 '자비와 화합'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고려인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故 양한성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통일이 이루어져 온 한반도에 연복사 범종이 울렸으면 한다"는 간절한 기원을 밝히고 있다.

오종욱 기자



故 양한성박사 영문연구서
이태녕교수 최근 발굴 소개



◇연화대좌 위의 삼존불. 고려인들의 불심을 보는듯 섬세·우아하다. 밑에는 범어명문이 새겨져 있다. 종의 4면에 부조돼 있다.

북한의 범종

'평양종' '연복사종' 보물급 문화재로 지정

북한의 범종 가운데 국가지정을 받은 문화재는 2건. 보물급 문화재 1호 광양종과 30호 연복사종이 그것.

평양 대동문 옆 종각에 안치돼 있는 광양종은 높이 3.1m, 입지름1.6m, 무게 12,914kg에 달하는 거대한 조선시대의 종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몸매에 용뉴의 청룡과 황룡이 종을 딱 움켜잡은 모습이 기운차다. 종의 표면에는 험상궂으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금강역사와 아름다우면서도 날카로운 운양문, 파도문 등이 조화를 이룬다. 종을 조성한 내력을 적은 명문도 있다. 1890년대까지 이 종은 통행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용도로 혹은 비상경보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최근 평양의 한 고등학교 공사장에서 발견된 소형의 정사명동종(높이 33.5㎝, 입지름 20.2㎝, 무게 4,830g). 비록 국가지정은 받지 못했지만, 옷자락을 휘날리는 비천상 2구와 삼국시대 연화문막새기와를 방불케하는 4개의 당좌 등 신라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세부에서 변화를 주었다. 종견을 17개 연꽃으로 장식한 것이 이채롭다. 종에 새겨진 82자의 명문에 '정사(丁巳)'라는 연호가 적혀 있어 '정사명동종'으로 명명했다.

이밖에 보현사에도 금강산 유점사에서 옮겨온 조선시대 동종이 있다고 한다.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보급, 보물급, 사적 셋으로 나눠 총 176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이 중 불교문화재는 58점(국보급19점, 보물급35점, 사적4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사찰문화연구원刊 〈북한의 사찰〉 1993). 1971년 당시 우리의 문화공보부도 북한소재 불교문화재 총18점을 지정해 놓았다.

윤기석 기자

법륜사 ●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급변하는 사회적인 제도에 밀려 대가족적인 공경심과 효의 미덕이 핵가족 및 물질만능시대에 가려 잠된 성품을 잃고 하루가 일년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얼키고 설킨 시대에 나라는 고귀한 존재가 망각되며 곳곳요소마다 불안한 현실안에 잠재해 있어서 어느때 어느시 가족·형제·친구·직장등에서 갈등·고통·허무가 닥쳐올지? 우리 불자님께서는 부처님을 의지하고 마음닦아 과거·현재·미래생의 삼세고를 멸하시여 성불성취하소서!
금번 법륜사 대중기도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인연에 따라 수행 '수향',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 독경, 좌선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옵고 지치고 허무, 분노, 인간사의 고통번뇌를 이곳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산수 수려한 만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을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로서 욕당, 독서실 및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 가족이 함께 기도와 심신을 맑게 하시여 다함께 성불 인도하옵고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함께 성불합시다.

주 지 : 김 운 봉　　총 무 : 손 자 혜 합장

법륜사 대중처소 내용별 안내

남·녀 총인원	65명	연령 제한 없음	
방 1실 인원	1명	小실	(*평생 수행하실분 가능함)
방 1실 인원	2명	中실	
방 1실 인원	3명	大실	
고시 준비생	약간명	시험을 앞둔 고시생 환영합니다!	
문의처	본사) 합천 법륜사:(0543)955-1379		
	마산) 법륜사 포교원:(0551)21-8775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뜻과 불심의 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 충만하소서!		
접수일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선착순 마감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자인품(慈仁品) ③

水火不喪 수화불상
在所得利 재소득리
死昇梵天 사승범천
是爲十一 시위십일

물이나 불에도 죽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나 이로움이 있어
죽어서는 범천에 올라가니
이것이 열한가지 기림이다

若念慈心 약념자심
無量不廢 무량불폐
生死漸薄 생사점박
得利度世 득리도세

혹 자비심 품기를
한량없이 버리지 않으면
나고 죽는 일 점차로 엷어져
저도 이롭고 세상도 건지리라

仁無亂志 인무란지
慈最可行 자최가행
愍傷衆生 민상중생
此福無量 차복무량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맺힌 맘을 풀고 나쁜 마음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스스로 사라진다

夫士之生 부사지생
斧在口中 부재구중
所以斬身 소이참신
由其惡言 유기악언

무릇 사람이 태어나면
그 입속에 도끼가 들었으니
그것으로 제 몸을 베는 까닭은
나쁜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淨爲小利 쟁위소리
如掩失財 여엄실재
從彼致淨 종피치쟁
令愈向惡 영의향악

작은 이익을 놓고 다투는 것은
재물잃는 것을 덮어 가리는 격이니
남들과 다툼을 하게되면
마음이 악한 쪽으로 향하게 된다.

豐惡惡所豐 예악악소예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로 남 공경하며 나쁜 마음 참으면 미움·원한 사라진다"

어짐에는 산란한 뜻 없나니
인자함이 최상의 행이라
중생을 가엾고 가엾게 여기면
그 복은 한량 없으리라

假令盡壽命 가령진수명
勤事天下人 근사천하인
象馬以祠天 상마이사천
不如行一慈 불여행일자

가령 목숨이 다 할때까지
천하의 사람들을 정성껏 섬기고
코끼리와 말 같은 제물로 하늘에 제사해도
한번 자비한 맘 내는 것만 못하니라

언어품(言語品) ①

惡言罵詈 악언매리
驅擯賤人 교빈멸인
興起是行 흥기시행
疾怨滋生 질원자생

나쁜 말 꾸짖는 말로
잘난체 남을 멸시하여서
이런 짓 자주 일으키면
미움과 원한이 예서 생긴다

遜言順辭 손언순사
尊敬於人 존경어인
棄結忍惡 기결인악
疾怨自滅 질원자멸

是二俱爲惡 시이구위악
好以口會鬪 호이구승투
是後害無安 시후개무안

악한 것을 기리고 악한데서 기림 받으면
이둘도 다 악이되는 것
말로써 기승부려 싸우길 좋아하면
이는 뒤에 모두 안심을 없이한다.

無道墮惡道 무도타악도
自增地獄苦 자증지옥고
遠思修忍意 원우수인의
念諦則無犯 염체즉무범

도심이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
스스로 지옥고를 더해가나니
어리석은 이 멀리하고 인욕을 닦아
진리를 생각하면 도를 범하는 일 없으리라

從善得解脫 종선득해탈
爲惡不得解 위악부득해
善解者爲賢 선해자위현
是爲脫惡惱 시위탈악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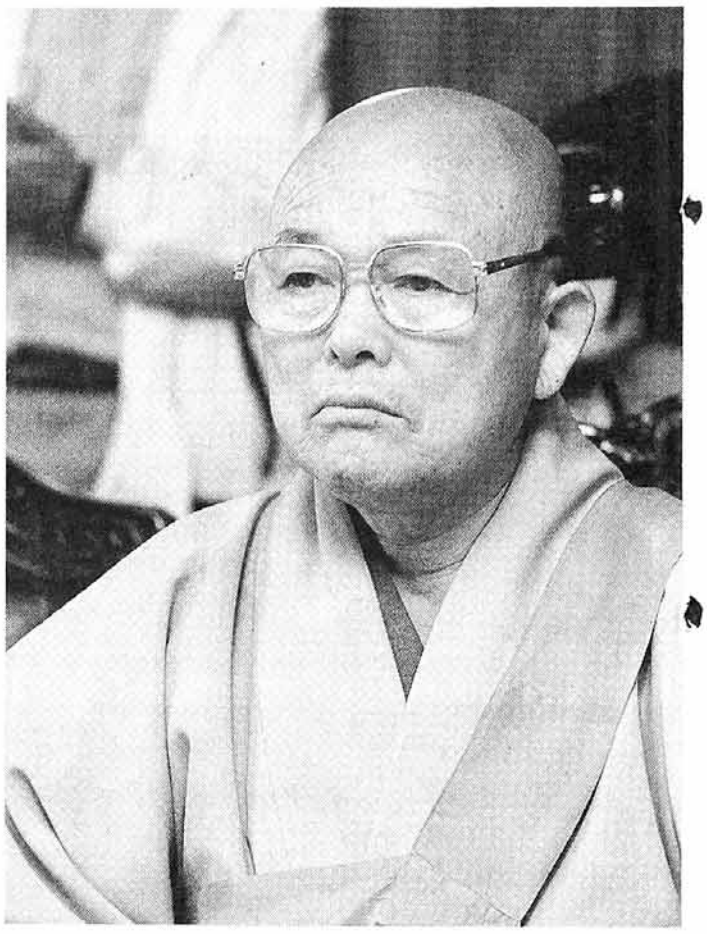
선을 좇으면 해탈도를 얻고
악을 일삼으면 해탈하지 못한다
옳게 아는 이 어질다고 하나니
그는 악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거울 꺼내놓고

정영스님 〈갑사 주지〉



"흙탕물 가라앉혀야 하천바닥 보듯 분별심 버려야 중도실상 얻어요"

봄이오니 온 산하의 꽃들이 화사하지요. 이 봄에 부처님이 오셨고 우리 자신도 깨달음을 알면 부처님같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만큼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하루에 세번씩 간절히 마음모으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불교를 알면 꽃비가 수북히 내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을 그냥 스쳐버리면 안돼요. 무엇이든지 다 원래의 뜻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이 곧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말고도 4천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방세계이기에 외계인도 심령학 등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과 다르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근원은 하나의 법신체로 모든 것이 다 한마음에서 비롯됐어요. 그 한마음이 분별심을 일으켜 너와 나, 큰 것 작은 것, 잘난 것 못난 것을 만들어 낸것이지요. 깨달아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없어 안온한 열반락을 이룰 수가 있지요.

삼천대천세계 빅억의 세계가 부처님의 보개일산속에 다 나타납니다. 일산속에 부처님세계 중생세계등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화엄경〉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인의 도인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식중에는 스님 보살 신선 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산스님이 나옵니다. 구산스님은 선재동자에게 '아, 네가 착하구나 이렇게 보살을 구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면서 손을 잡으니 우주전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싯다르타〉라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도 선재동자같은 구도자를 내세워 53인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설화 한 것입니다.

선재동자가 사공을 만나는데 이 분이 선지식입니다. 그것은 〈화엄경〉의 정신을 서술해 놓은 것이지요. 뱃사공의 이마를 보는 순간 우주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것과 같지요.

부처님의 전기중 깨달음의 장면을 형상화한 '알레프'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약혼까지 했던 죽은 애인의 1주기에 참석하여 그녀의 오빠집에서 알레프라는 동전만한 발광물체를 보는순간 우주삼라만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울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견명했던 경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전체를 한눈에 보시고 다 들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것을 다봤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이는 것 뿐아니라 듣기도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이 그립습니다. 스님들 수는 적었는지 몰라도 수행열

- 1923년 경남 창원 生
- 1942년 해인사 출가 상월스님 은사로 비구계수지
- 1943년 해인사 칠불암 대성사 미래사 보문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 십안거
- 조계종총무원 교무부장 재무부장 천축사 봉은사 망월사 주지 역임
- 1964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무문관 개설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대자암 주석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다는 착각 탐내고 성내고 집착하는 이유 모두가 꿈과 같고 물거품 같아"

정은 대단했지요. 대부분 폐쇄된 곳에서 일심으로 정진했어요. 효봉 경허 성철스님 등이 그 대표적이시지요.

무섭게 공부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요즘 도인이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 풍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다닐때 누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고나니 죽음에 대해서 겁이나고 아찔해요. 그런 와중에 외사촌 형도 죽었어요. 그때는 밥도 안먹고 잠도 못이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어린시절을 보내고 사춘기때 죽지않는 법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신선이라는 영생의 비법이 있다는 소리를 얼핏듣고 나서 각종교의 종교서적을 탐독했지만 뾰쪽한 것을 못봤습니다.

어느날 인도철학에서 "'범(凡)' 즉 우주의 근원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고나서 '그것이 말이 되는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안된다 생각되면서도 이상한 것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안떨어져요. 일본유학중에 우연히 〈금강경〉〈반야심경〉을 보고 공사상을 알게되면서 실제로 이런 도(道)가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즉시 경도에서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왔어요.

〈금강경〉을 보고 도닦을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해도 처음에는 출가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스님들이 염불이나하고 재나 지내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금강경〉의 이치를 제대로 알려면 수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보였기에 그런 생각에 젖어든 것이지요. 산에가서 3년동안 수행하면 부처님 도를 이룰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쌀을 들고 눈으로 뒤덮힌 금강산 마하연에 들어갔어요. 동굴에서 참선에 들려는데 한 스님이 동굴속에서 다가 오더니만 "선을 아느냐?"고 물어요. "예"하고 대답하니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가만히 들어앉아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공부해야겠다하고 눈속을 헤치고 들어가다가 감기에다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창원에 있는 백부 숙부집으로 돌아와 살면서 겨우 병이 나았어요.

집에서는 장남이 도닦는다고하니 반대가 컸습니다. '나 죽는 것은 부모도 말릴 수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나 또한 구해드릴 수 없다. 내가 도를 얻어

생활 속의 불교 (123)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그 자리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고집하지 말라. 고집은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을 다 안아들이고도 남음이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 그러기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함으로써 세상을 다 안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요 자유인이 되는 과정인 것이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내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 항상 마음의 고개를 숙여라. 그런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주는 마음이 먼저다. 받고자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기는 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된다. 고로 받으려거든 먼저 주어라. 주어야 받는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가 무엇을 준다는 행위 이전의 열린 마음이다. 내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 들이는 것-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받아 주는 것, 그것이 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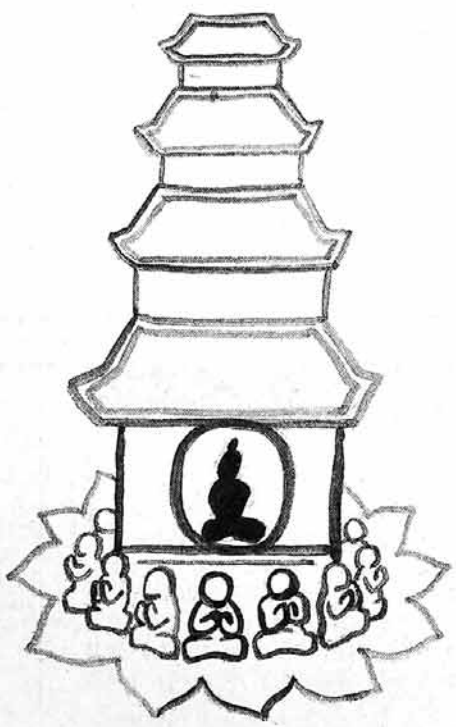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열린 마음이면 그건 주는 마음이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다. 벽도 없고 담장도 없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누구하고라도 너나들이를 할 수 있다. 울타리가 없으니 거칠 게 없다.

넓디 넓은 들판엔 수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뭇 짐승들이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는 떠난다. 거기엔 아무런 시비도 남지 않는다. 갈등도 없다. 장애도 없다. 들판 위로 부는 바람엔 소리도 없다. 세운 게 없고 선 게 없으니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요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울타리가 좁으면 들어 설 자리도 좁다. 좁은 공간에 쌓아두면 얼마나 쌓겠는가.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쳐라.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라. 넓은 들판엔 아무리 많은 양을 쌓아놓아도 여전히 빈 자리가 남는다.



그런데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서 반대로 울타리를 더 좁게 더 굳게 치려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된 일인가. 많이 갖고 싶거든 넓게 쳐라. 더 많이 갖고 싶거든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 버려라.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높은 게 아니다. 그걸 높다고 하면 나의 착각일 뿐이다.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더 높은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높은 것은 어떤 것일까. 높이 세우지 않은 것이 가장 높다. 왜냐? 세상에 제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세우지 않은 것과 높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공이 가장 높다. 아무 것도 세운 게 없기에 가장 높다.

가장 강한 것은 열린 마음이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는 마음, 누구와도 맞서지 않는 마음이 가장 강하다. 무심과 겨룰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심은 작정한 바가 없으므로 아무도 맞설 수 없고 아무도 꺾을 수 없다. 허공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허공과 어떻게 겨룰 수 있는가.

높이 오를 수록 낮아져야 한다. 많이 가질수록 가난해져야 한다.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라.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라.

오를 때는 내려가는 이치를 생각하고 내려갈 때는 그것이 본래의 길임을 잊지 말라. 오르면 내려가야 하고 내려간 것은 오르게 되어있다. 그것이 세상의 겉모습이다.

거기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작정하기를 멈춰라. 세우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을 과감히 포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다.

저 광활한 들판이 다투지 않듯이 일체의 다툼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되면 모두가 나와 더불어 사랑하고 나누고 같이 먹으려 할 것이다. 거기 자유인의 길이 있다.

협찬 : 염홍수 · 조인숙

큰 스님 수행한담

지금 내 생각 비추세요"

"참선하기 어렵다 지레 포기마세요 5분 10분 집중력 늘리다보면 매사 최선다하는 삶 살게돼요"



◇3월 10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 추대돼 원로회의에 참석한 정영스님(오른쪽 끝).

생사를 멸하면 부모님의 생사도 건질 수 있는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나왔습니다.

초봄이되어 지리산 덕산 골짜기에서 한 노인을 만나니 천왕사에 도닦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갔더니 격암스님이 계셨고, 편지한장을 써주셔서 그것을 들고 해인사로 입산했어요.

1942년 해인사에 가보니 환희심이 납디다.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니 신심이 절로나요.

일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불교가 허무주의 아니냐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자신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안에 갇혀사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공(空)의 도리를 체득하여 참생명의 실상을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무소주 응단기심'처럼 응당 상(相)에 머물지 말고 그 본시의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선은 업을 녹이는 작업입니다. 의식적으로 계행을 해도 업을 녹이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참선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업을 짓고 녹이고 할 필요가 없지요.

요즘사람들이 참선 염불선 위빠싸나 명상 등 수행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서로 자신이 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알고보면 모두 같아요. 잡념을 없애고 일념으로 한생각하는 편한 방법대로 하면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지 선은 정(定)혜(慧)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정으로 공의 이치를 통달케하는 혜를 이루어 항상 흔들림없는 마음을 이루어야지요. 정혜를 벗어나면 모두 사도(邪道)입니다.

참선을 어렵다고 속단하지 말고 처음에는 5분 10분씩 가만히 앉아 마음을 집중해보세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자리를 놓는 삼매에 들지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을 하다보면 게을러 질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이 강화되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돼 있지요.

교학은 부처님 말씀이요. 참선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선을 통해 부처님 마음과 똑같아지면 하는 일마다 다 보살행이 될 수밖에 없지요.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무조건 염불인지 알지만 염불은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한 생각도 놓치지않고 일념으로 하면 그게 염불선이지요. 참선을 하고 염불선을 하는 동안 회광반조하게 되고 정혜를 균등하게 하면 이세상은 불국토가 됩니다.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정화담화이후 선방에서 나와 징화운동에 참여했지요. 정화후 조계종총무원 교무부장 재무부장을 역임하면서도 늘 선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되기위해서는 무문관의 혹독한 수행도 필요하지요. 하천의 바닥을 깨끗하게 보기위해서는 흐르는 물을 막아 흙탕물을 가라앉혀야지요.

수행을 위해서는 성성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삶에 빠져버리고 생각이 없으면 죽음에 빠져버려요. 생(生)이나 사(死)에도 빠지지않는 생사의 자재로움을 갖기위해서는 중도실상(中道實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중도실상을 명백하게 보고 생사자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 무념무상 공 중도 인연 본성 자비가 다같은 말로, 한 생각이 삼매에 들어 견성하면 모든것이 한순간에 다 알아차려지고 우주의 근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보면 아주 어렵고 불쌍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복지분야가 타종교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됩니다.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감싸야지요. 봉사 불사등 나름대로 자기입장에서 자비행을 실천하다보면 종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회의 혼란은 경제가 성장하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부모형제도 몰라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패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만 고기를 먹기위해서는 그만큼의 목초지와 곡물이 필요합니다. 목초지만 가지고도 세계의 식량사정은 해결됩니다.

오계의 첫째덕목이 불살생이지요. 자비종자를 끊는 육식섭취를 줄이는 것을 생활화하십시다. 살생을 하지않으면 세상이 평화롭지요. 그렇게되면 업도 줄어들고 건강해지고 그만큼의 가계이익으로 북한동포돕기에 앞장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시행이지요.

부처님께서도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기도 하는등 수없는 세월동안 선업을 쌓지않았습니까. 아무리 자비행을 하려 해도 업장이 두터워서 못하고 자꾸만 업장만 짓는 분들이 많아요. 참선을 해서 삼매를 이루면 업이 자연히 소멸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자비행을 실천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깨달아 날마다 수행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善 쌓아 업 녹이면 좋은인연 저절로 얻어 부처님 마음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2월에 백련암 포산스님 문하에 들어갔는데 도를 닦아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어요. 행자시절 은사스님 시봉들면서 공양간에서 공양을 지으며 틈만나면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을 화두삼아 참선을 하니 은사스님이 '너는 선방에 들어가라'고 이례적으로 허락하신겁니다. 2개월만인 행자가 선방인 퇴설당에서 참선만 했습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일이고 참선수행만 하도록 허락해준 은사스님께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如夢幻泡影)'는 사구게는 모든것이 잠시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순간만 지나면 모두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고 어떤 실체가 영원히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을 마음거울에 비춰보고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성현은 인연소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미륵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지 않습니까. 미륵보살도 도솔천 내원궁에서 용화세계를 장엄하기 위해서 인연중생을 맺어놨습니다. 인연은 공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인연을 만들어서 성현을 맞이해야지요.

1964년 무문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객스님들의 참선도량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듣고 천축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참선만 하는 무문관을 열었지요.

부처님의 6년고행을 본받아 6년결제를 했는데 2회차까지 12년간 보문 관응 구암 제선 현구 지효 경산스님 등이 거쳐갔지요. 무문관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속에서 경계에 부딪쳤을때 파도에 휩싸여 공부가 어려워지기에 고요하게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견성하기 전에는 고요한 곳 번잡한곳에 대한 분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분별을 여의고 대자유인

절에 부처님이 여러분 계시는데…

문 사찰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있고 명부전 관음전 등 여러 전각이 있습니다. 이 전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 소견으로는 부처님을 일념으로 모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상동 · 중구 입정동〉

답 삼계가 다 부처님의 나툼 아닌게 없으니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 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거기에 아니 계십니다.

〈금강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처를 상호나 이름으로 보고 형상으로 숭배한다면 그런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은 없습니다. 일체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대웅전에도 계시고 관음전에도 계시고 도량 어디에나 계십니다.

처사님께서 일념으로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셨는데 부처님은 처사님 마음 속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십니다. 처사님의 발 길 닿는 곳, 눈 길 닿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만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처처에 부처님이지만 가령 처사님이 특정한 곳에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거기 밖에는 안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대웅전에만 계시다든가 관음전이나 삼성각엔 아니 계시다든가 혹은 내 마음 속에만 계시다든가 하는 것은 처처불의 가르침을 편협되게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밖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라'하는 것은 바깥 부처만 부처인 줄 알면 이게 빈 집처럼 되고 그렇게 해서는 부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안팎이 둘이 아닌데 안이다 밖이다 경계를 나누니까 제 속의 부처부터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처처불인 줄도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요즘 불자수가 늘지 않아요

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피와 살에는 불교가 배어 있고 우리의 문화재나 전통사상에도 불교 체취가 홈뻑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불자의 수가 제자리 걸음이고 대신 도시나 젊은 층에선 그나마 불교가 2, 3등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불자의 수가 크게 늘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이러다간 제 조상, 제 역사까지도 잊어버리는 종족이 되지 않을는지요.

〈윤성호 · 경기도 고양시〉

답 지적하신 말씀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죄다 타신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자기 부처를 똑바로 보고 자기부처를 믿고 거기서 물러서지 말아라, 타의에서 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자의에서 구하면 그게 다 불교입니다. 왜냐? 불교는 특정한 종교라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도리를 떠나서라면 불교는 어디있고 기독교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떠나서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껍데기 입니다. 껍데기.

그까짓 껍데기 종교라면 불교면 어떻고 기독교나 가톨릭이면 어떻습니까? 껍데기일 뿐인걸요.

생명의 영원한 도리를 떠나서 어디에 기독교가 있고 예수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의 참 뜻은 자기 완성을 말합니다. 자기 완성이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일체를 꿰는 그 능력이 하나님, 하느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것은 내 걸상이다 조것은 네 걸상이다 하면서 자리다툼을 한다면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가 가르치신 참 뜻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요 저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다 하고 금을 긋고 패를 가른다면 그거야 중생 놀음이지 진짜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처사님 잘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살펴보면 독불장군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아니 우리들만해도 그렇지요, 모두들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고… 그렇게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내 자리 저기는 네 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독불장군 말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의 도리에서 보면 일체만물 만생이 다 불자입니다. 그래로 불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 수로 불자가 는다 준다를 염려하지 마시고 자기 부처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어 자기 완성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다른 분들도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본래부터 생긴 그대로 모두 불자요 모두 불교인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 - 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 - 4162 팩스 : (02)737 - 0698

봉축 불기 2541년 부처님 오신날

늘 봄 공 원
▶ 강릉시 송정동 112-5호
전화 :0391/653-2121

영 동 기 획
대표 김 동 민
▶ 강릉시 포남동 1116
전화 : 0391/653-2399

대한불교조계종
수리산 대 의 왕 사
주지 일 관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108-17
전화 : 0343/69-1562

무진장스님 불교 교리 강좌개강(여름반)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 기본교리를 공부할 제5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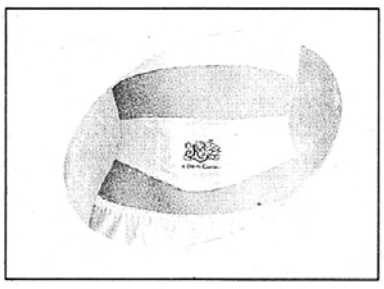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교육장소	동산법당(웅전갤러리3층)
3.개강일시	1997년 6월1일(일)오후6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무진장스님(前 포교원장),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TEL 732-1206~8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2~3년전부터 방광염과 불면증이 생기면서 기미가 끼기 시작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한약재 성분인 "향비"를 써보라 했습니다. 착용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불면증이 없어지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도 잘 도는 것 같아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 9개월이 되었는데 끈기있게 사용하고 있고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고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심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회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 — 9821,080) 200 — 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아수라의 어느날



► 127 ◄

우녀는 단식 21일이 지나자 감자기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기력이 박약지로 쇠잔한 것이다.

암굴 안까지 들어와 주는 파도소리나 그밖의 새소리 따위 비 오는 소리 따위가 얼마나 고마웠던가.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되자 다시 한번 무욕도기 척박한 심원을 알게 해주었다.

무욕도는 오랜 무인도였으므로 이렇다 할 짐승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설모나 다람쥐 들쥐 두더쥐 따위와 곤충암고는 까지 참새 까마귀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지 없었지요… 어릴 때부터 나는 역마살이 끼어 밤톨톨 없이도 별빛 아래서 잠어야 할 아이라 하였지요…."

이런 하루로 시작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 이야기는 천상계의 그것과도 같은 것이어서 남자 우녀는 그의 부정기적인 정신이상상태가 얼어진 정상상태에서는 기이한 느낌마저 들었던 것이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동안 바라보기만 해도 교감이 되어 바로 깊은 애욕에 빠져 황홀경에 들게 된다.

아이를 낳아 거리에 버려두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한번씩 빨면 1주일만에 어른으로 부쩍 자라버린다.

대소변을 볼때는 땅이 갈라졌다가 그 일을 마치면 땅이 아물어버린다.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앉아있고 싶으면 하루내내 앉아있을 수 있다.

그 뿐인가. 생각만으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이 착착 해결된다. 죽음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낙원일 뿐이다.

그런데 그 젊은 길손은 그런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 나쁜 임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지옥, 무위(無爲)지옥이라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녀는 그 길손을 마음 속에서 사모하였다. 사랑하고 싶었다. 아니 그 이야기대로 그런 생각만으로도 교감이 되기를 바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길손이 말하기를 "남자도 나처럼 멀리 떠날 때가 있을 것이오… 지금의 고된 일을 조금만 참 견디시오… 그리하였다.

어렵고 어려운 것은 참 버리기니 참 버려 다하면 밝은 구슬 빛나라
(難難難足盡情難
情盡難時一顆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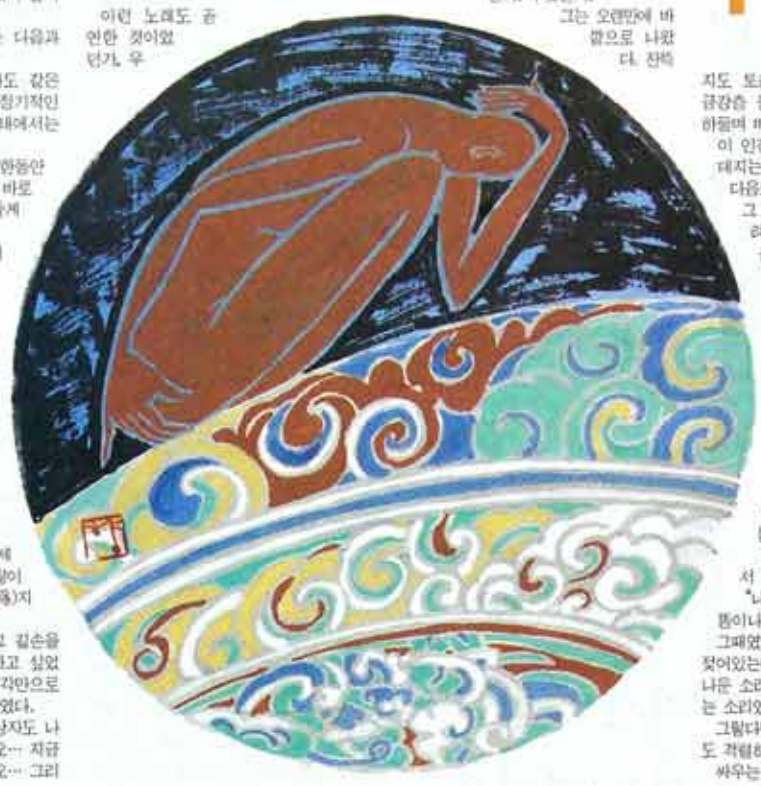
이런 노래도 곧 언한 것이었던가, 우

"지진? 지진의 징조?"

아니었다. 그 뭉! 소리는 일정한 사이를 두고 한나절 내내 들렸다. 그러다가 한동안 뚝 그쳤다. 그러다가 다시 들리는 것이었다.

"아아 이 무욕도 밑에 지옥이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그는 오랜만에 바깥으로 나왔다. 잔뜩



"그동안 들려온 소리조차 내 업보였던가" 우녀는 예성강시절 길손의 말을…

지도 토층(土層) 석층, 금사층(金沙層), 금강층 등으로 단단히 이루어져 있는데 하물며 바다 밑이라…."

이 인간과 축생들이 함께 사는 섬부주 대지는 우선 토층이라 하더라도 진흙 다음으로 흰 흙, 그 다음은 붉은 흙, 그 아래로 노란 흙이 층층으로 내려가 있다. 그런 뒤 푸른 흙의 지층이 나온다.

바로 이 푸른 흙 지층을 더 내려가면 거기에 지옥 여덟개의 엄청난 크기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 여덟개의 지옥이 바로 8한(八寒) 8열(八熱)로 나뉘어져 이 세계에서의 가장 극한의 고통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세계이다.

무욕도는 오직 파도소리 밖에 없다. 뭔일인지 갈매기들도 다른 곳으로 건너가고 없었다. 이 섬에 남겨놓은 그것들의 하얀 똥들이 말라 붙어있을 뿐이다.

우녀는 그 똥들을 몇개 바위에서 뜯어보았다.

"나도 이승을 떠나면서 이런 흰 똥이나 몇개 남겨놓고 싶도다."

그때였다. 모처럼 아늑아늑한 감회에 젖어있는데 파도소리를 누르고 아주 사나운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코 싸우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굴 안에서 듣던 뭉! 뭉! 소리도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였던 것일까.

싸우는 소리는 섬에서 나는 소리가 아

"그동안 들려온 소리조차 내 업보였던가"

우녀는 예성강시절 길손의 말을…

흙도 탄성이 나오는 우녀는 한참 뒤에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웅장하고 찬란한 도성인데 그곳에서 사나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아수라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아수라의 외이에도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아수라의 세계는 본노 집투지만 어리석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투의 세계이다. 그것은 해탈이 좋은 줄은 알지만 생사의 과보와 패락만을 좇아서 해탈에 나아가지 않는 마음의 세계이다.

본디 페루시아의 아후라는 선신이었고 범어 아스라도 선신이었는데 뒷날 악신이 되어 제석천과 끊임없이 항쟁 대립하는 신이 되어있다가 불법 이래로는 불법을 지키는 천룡8부중(天龍八部衆)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선과 악의 대립과 항쟁 고뇌를 되풀이하는 것을 통틀어 아수라라 하기도 한다. 〈법화경〉은 이런 아수라를 다스리는 아수라왕이 녯이나 된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수라에도 예성이 있어 아수라녀가 싸움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간세계에서 유난히도 싸움질을 잘하는 여자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아수라가 지난 날의 선신이었을 때 타던 아수라금(阿修羅琴)이 있는데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그 복덕에 의해서 듣고자 할 때 그 금을 타지 않아도 자연히 소리가 남으로써 무현(無絃)의 금(琴)이기도 하였다.

"무욕도 밑에 지옥이…용궁에서도 중생놀음 이로군"

말은 갈매기 등속이었다.

소리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그동안 들려온 소리조차 내 업보였던가."

그는 문득 지난 날 예성강 하류 벽란도의 한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 지나가는 길손에게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그 갈고 큰 눈을 가진 대지관이의 젊은 길손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어디에 꼭꼭 숨어있다가 이제야 그 길손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이 있었다.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많아서 살만 하지요. 아가씨께서도 구정물 버리는 일을 너무 싫어하지만 마시지요. 이렇게 짐처럼이 떠도는 나도 떠도는 일 없이는 살 수 없다오. … 몇반이나 밥이 부르트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며칠씩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앉아있을 때는 정녕 답답하기 그지 없고 주인이 남자를 미친년이라고 자주 욕하더라도 미친년이 아니라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라 말한다고 여기시오… 배사를 거꾸로 여겨 이 괴로움이 곧 기쁨임을… 세상의 즐거움이 곧 괴로움임을 가만히 알고 있기 바라오."

그 젊은 길손은 찬물 한 바가지와 집안에 버려진 짚신 한 켤레를 받는 일에 감사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섬의 암굴에서조차 아무 소리도 못듣는 귀가 된 것도 그런 무위지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물에 실컷 불린 쌀을 아주 조금씩 늘어서 씹고 씹었다. 그리자 들리지 않던 파도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옛날의 선사 화산(禾山)이 "동동동동…"이라고 말한 경지인가.

어느 납자가 묻기를 "무엇이 참되게 지나가는 것입니까"라는 것에 대한 북소리 시늉이었던가. 다시 묻기를 "무엇이 부처의 참된 가르침입니까"에 대한 북소리였던가, 또 물어도 그 북소리 뿐이 아니었던가, 또 물어도 또 물어도 다만 "동동동…" 이었다.

옛날 선사 경청(鏡淸)이 한 납자에게 묻는 바가 "밖에 무슨 소리인가"였다.

대답은 "빗방울소리입니다" 였다.

이런 소리의 수작들이야 지금 우녀의 마음 속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암굴의 어딘가에서 뭉!뭉! 하는 아득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녀의 눈에는 그 바깥이 눈부셨다. 바다 위의 거뭇거뭇한 파도자락조차도 눈부신 것이었다.

물론 그런 암굴 밖에서는 뭉! 뭉!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흐린 날씨만큼 수평선은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암굴 입구 쪽으로 죽 그어놓은 것처럼 투명하였다. 바로 발 아래로 달려온 듯한 그런 가까운 명료성이었다.

우녀는 어린이라도 되어봄직 하였다.

"저 바다 밑에는 용궁이 있겠지… 그 용궁에는 용왕이 그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겠지… 그럴진대 뭇 고기와 자라 거북들을 제외하고라도 수많은 수중 중생이 살고 있겠지."

"…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이 대지 또한 바다 속에서 모든 물의 깊이를 돌고 솟아오를만큼 사나운 소리였다.

"용궁이라는 곳도 중생놀음이란 말이군"이라고 우녀는 큰 돌을 들어먹은 것처럼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눈을 감은 뒤 잠정 그의 머리 속에 아주 천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엄청난 초대형의 도성이었다.

80만킬로의 바다밑 도성이었다. 수심(水深) 18만킬로나 되는 바다밑인데 도성은 일곱겹의 성벽으로 에워싸였고 그 안은 궁궐과 광장 그리고 산호의 찬란한 숲도 이루어져 있었다.

도성 전체가 일곱가지 보배인 금은 따위로 장식되어 있어서 마치 천상계의 궁전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아아!"

"아아! 용궁다운 용궁이로다."

로로 탄성이 나오는 우녀는 한참 뒤에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웅장하고 찬란한 도성인데 그곳에서 사나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아수라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아수라의 외이에도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아수라의 세계는 본노 집투지만 어리석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투의 세계이다. 그것은 해탈이 좋은 줄은 알지만 생사의 과보와 패락만을 좇아서 해탈에 나아가지 않는 마음의 세계이다.

본디 페루시아의 아후라는 선신이었고 범어 아스라도 선신이었는데 뒷날 악신이 되어 제석천과 끊임없이 항쟁 대립하는 신이 되어있다가 불법 이래로는 불법을 지키는 천룡8부중(天龍八部衆)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선과 악의 대립과 항쟁 고뇌를 되풀이하는 것을 통틀어 아수라라 하기도 한다. 〈법화경〉은 이런 아수라를 다스리는 아수라왕이 녯이나 된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수라에도 예성이 있어 아수라녀가 싸움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간세계에서 유난히도 싸움질을 잘하는 여자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아수라가 지난 날의 선신이었을 때 타던 아수라금(阿修羅琴)이 있는데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그 복덕에 의해서 듣고자 할 때 그 금을 타지 않아도 자연히 소리가 남으로써 무현(無絃)의 금(琴)이기도 하였다.

지 고대중국 6조시대의 시인 도연명이 그렇게도 그리워한 바 있던 줄 없는 금이 곧 그것이기도 하다.

우녀는 그런 아수라금 무한금에라도 맞추는 듯이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것이었다.

어허 바다 밑 아수라 뿐이리
어허 바다 밑 아수라 뿐이리
이 인간세상이야
그 바다밑 아수라보다
더 아수라였고
더 아수라이고
더 아수라이리 더 아수라이리
그러다가 아수라금 그 아름다운 소리로
곱게 아수라의 싸움 그치리
아흐 조각달 밝아라

그림 · 조향숙

법화경연구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의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법화경을 고찰한다!
대승불교의 완성, 법화경의 핵심사상을 규명
원예한 대소승의 대립으로
불타교법이 상실될 위기에,
이 양자를 화합융회하려는 노력들의
결과물이 법화경 방편품이다.
그리고 그 핵심사상이 바로
일승이란 대명제였다.
일승사상의 규명을 통해 우리는
'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中國淨土教理史
중국의 정토사상을 시대별 · 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중국정토교의 변화 · 발전 · 쇠퇴의 모습을 한눈에!!
염불 · 사경 · 불상조성 등 타력(他力)신앙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한 사람들의 발자취
정토의 교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다.
이 책은 중국 후한시대에 정토사상이
도입되면서부터 청나라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정토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쇠퇴 등을 개관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정토수행자들의 사상과
실천수행의 모습을 풍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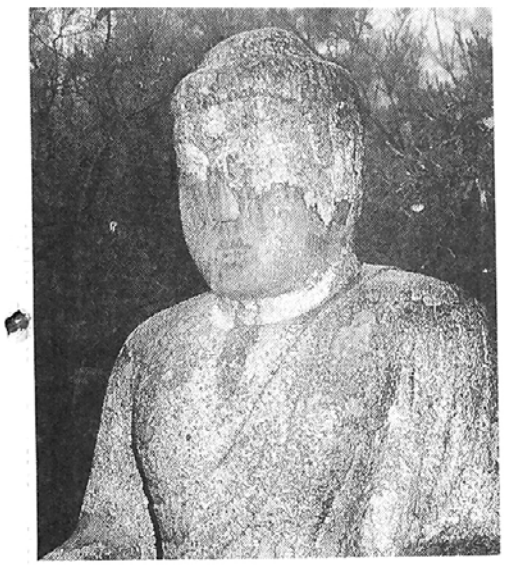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절대의 행복 · 죽음으로 부터의 자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누구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죽음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과연 의연할 수 있는가?
웃으며 죽음을 맞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은 대만족,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성보관리 정신문화 '맥잇기'

교불련 24일 '불교유산 보존…' 심포지엄 논문요약



◇ 아래턱과 입, 코에 마구 덧붙여진 시멘트 덧칠로 인해 원형의 아름다움이 손상돼 국보지정에서 제외된 경주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1천6백여년 동안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아 전승해 온 불교문화유산. 골동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정신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전승방법은 어떤 것일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가 부처님오신날과 97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주제로 24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발표에 앞서 각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이인자교수(경기대)는 '한국인의 정서와 불교문화유산'에서 "사찰 기둥과 주춧돌, 창살문, 축대 등은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된 아름다움의 극치"라며 "서구사상과 차별화된 한국인의 자연조화사상이 불교문화유산 속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 정서와 정신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서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는 불교미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석조물에 대한 보존책으로 △원위치에서의 원형보존 △보호각 설치 및 배수로 등 기초시설 확보 △전문가에 의한 보수 △폐사지 복원 등을 제시했다. "문화유산의 전승은 문화재 조성기술의 연마에서 비롯된다"는 정교수는 전승의 전제조건으로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육성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위상 정착 △사회교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무형 불교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문제'에서 박범훈교수(중앙대 음대)는 "작법(법고)에서 유래한 승무의 경우 보유자가 두 명이나 지정된 반면 그 모체인 법고는 한 명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무형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 안 돼 상당수가 전승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불교역사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양을 지니고 있는 범패와 작법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교수는 △행자과정에서의 범패와 작법 교육 △불교교육기관에서의 불교예술교육 △종단차원의 불교예술단 육성 △사찰 축제 활성화를 통한 공연의 확대 △불교문화재보호에 관한 중법 제정 △전문공연장 건립 등을 제시했다. 박교수는 "불교음악과 무용이 종교적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국악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이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황진수교수(한성대 행정학과)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행정체계의 재정립'에서 "문화재 보호에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논리에 밀리고 있다"며 정부의 문화행정을 꼬집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성의 결여를 들었다. 황교수는 문화유산의 해와 관련 "행사보다는 현실에 맞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역사도시의 자연풍치보존법 제정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인자 "불교유산 자연-인공 조화 극치"
정영호 "석조물 현위치 원형보존해야"
박범훈 "행자에 범패·작법교육 의무화"
황진수 "정부 문화재정책 일관성 절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87〉

거울 속을 걷는 사람

大野東溟盡 (대야동명진) 큰 바다 동해로 끝나고
層峰北極遙 (층봉북극요) 층층의 봉우리 북극까지 닿다
俯看城下水 (부간성하수) 굽어보는 성 아래 물에는
人渡鏡中橋 (인도경중교) 거울 속 다리를 건너는 사람

위 시는 천경대사(天鏡·1691~1770)의 '낙민루(樂民樓)'라는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해원(海源)이고, 호는 함월(涵月)이고, 천경은 자이다. 속성은 이씨로 조선왕조의 후손이다.

대사의 시는 그의 문집인 〈천경집〉에 20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경적 시가 많으면서도 그 시격이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소탈함이어서 승 속의 거리를 뛰어넘은 소박함이 가득하다. 위 시도 그러한 면이 보이는 담박한 소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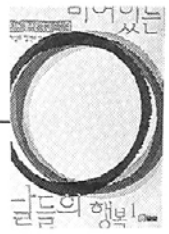
제목이 낙민루이니 누대에 올라서 지은 시일 것이나, 누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없다. 그러면서도 이 누대의 청초한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게 한다. 바다까지 닿도록 끝없이 펼쳐진 들, 하늘까지 먼 봉우리, 성 아래로 펼쳐진 수면, 그 수면 위에 점 하나로 비쳐져 있는 나그네, 무한의 수평과 수직으로 이어진 공간으로 시선을 자유로이 이동시키고는, 마침내 물그림자로 비쳐진 다리 위의 한 사람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어 정지시키고 있다. 굽어본다는 한 구절에서 이 낙민루는 수면에 정지된 이 한 점의 위에 있음을 알게 한다.

다시 이 시를 선으로 상상해 보자. 첫 구에서 큰 들이라 하였으니 이 선은 수평의 가로지름이다. 이 선이 수평선의 끝까지 가서 다한다. 다하다의 한 단어가 이 선이 갈 수 있는 무한의 끝을 암시한다. 다음 이어지는 구는 층봉이다. 층층으로 솟은 봉우리이니 수직선이다. 이 선 또한 북극성까지 닿았으니 수직의 무한이다. 이렇듯 기승의 어울림이 수평 수직의 교차로써 무한의 외연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 구에서 굽어본다 하였으니 이 또한 수직으로의 선이고, 다음 구가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이니 이는 수평의 횡선이다. 이렇듯 이 두 구가 다시 종횡의 교차이다. 한 편의 시가 상하 좌우의 균형잡힌 구도로 이루어졌다.

상하 좌우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이 자유로운 시상, 공간을 무한으로 확대하다가 거울 같은 수면의 한 점으로 응축시키고 만다. 무한의 확대가 동의 극치라면, 다리 위의 한 점으로 압축한 것은 정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정서란 어차피 동보다는 정의 가라앉음이라 한다면, 이 시는 이렇듯 정적으로의 휘갑이 멋있다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거울 속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바로 이 시의 제목인 낙민의 대표인 것처럼 한가롭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이상우씨- '비어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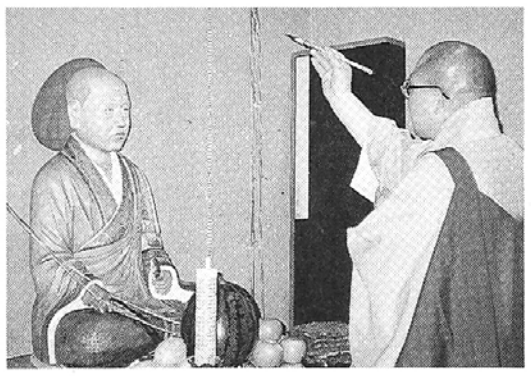
이가을씨- '오대산이…'

불교문학상 당선작 '단행본으로'

'문학의 해'를 기념해 지난해 조계종이 주최했던 제1회 불교문학현상공모의 장편소설과 동화 당선작이 책으로 묶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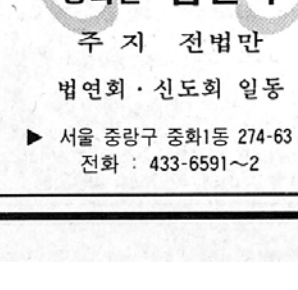
이상우씨의 장편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전2권·밀알刊)에는 십여년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작가의 체험을 통해 참된 삶에의 화두를 무소유로 풀어나간다.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강선생)는 도시와 잘못된 교육관행에 지친 교사. 강선생은 이상향 부평농장에서 통도사에 살았던 진당이라는 법명을 가진 일꾼 조씨를 보며 참된 무소유의 삶을 배우게 된다. 농장에서 만난 최선생, 농장주 김사장, 일꾼 조종환 등의 사람들과 쌍계사 곰보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끈질긴 업보의 끈을 묘사하고 있다.

〈빛을 가진 아이들〉 등의 동화를 집필해온 이가을씨의 동화 〈오대산이 품은 아이〉(조계종출판사 刊)는 불전을 훔치는 길동이를 부처님께 귀의시키기까지의 과정이 삽화와 함께 그려졌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오대산 한 암자에 머무르게 된 길동이가 마음을 잡지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가슴아파하며 병을 앓는 이족거사. 방황하던 길동이 돌아왔을때 그는 가을이 짙게 밴 오대산을 산책하며 길동이에게 가슴 속에 품은 선재동자 얘기를 들려준다. 길동은 주지스님과 이족거사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진정한 불자로 태어나 선재라는 이름도 얻게 된다.



초의스님성상 봉안 초의선원(원장 용운)은 지난 11일 '5월의 문화인물' 초의스님성상을 봉안했다. 한국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스님의 선지를 받들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번 봉안식에는 용운스님이 집전을 맡고 6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 초의스님상은 박찬수(목아박물관장)씨가 실물크기로 조성했다. 초의선원은 봉안식과 함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와 무료 차 시음회도 가졌다.

봉축주제가 '오늘은 좋은날' CD나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선정한 봉축행사 주제가 '오늘은 좋은 날'(황학현 이종만 작사 이종만 작곡)과 '길 떠나자(황학현 작사 이종만 작곡)'가 들어있는 CD와 카세트테이프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가 나왔다. '오늘은 좋은 날'과 '길 떠나자'는 흥겨운 리듬과 경쾌한 곡조로 누구나 따라부르기 쉽게 만들어져 연등축제때 큰 호응을 받았던 노래로 황성호씨가 불렀다.

찬불가 전문제작사 '좋은 벗 풍경소리'가 만든 이번 CD와 테이프에는 이 2곡과 함께 '부처님이 오셨네' '보시하는 마음' 등 총 8곡이 들어 있다.

(02)730-7525

"극락으로 가는 풍광을 보자"

박윤성씨 풍경화展 31일까지 부산 영동화랑



◇박윤성作 '경주남산(백운곡 마애불)'

전통미술적 미감으로 주홍색 필선이 뼈대를 이룬 독특한 풍경화전 시회가 오는 31일까지 부산 영동화랑에서 열린다.

박윤성씨가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열고있는 한 이번 개인전에는 경주 남산 넝골, 부처바위 등 우리 산하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풍경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미술평론가 옥영식씨는 "근원 체험에 의해 열려진 밝고 투명한 심안으로 이 강토의 모습을 형상화해 '극락'으로의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한다. (051)803-8181

문화소식

불교음악 한마당

소리샘예술기획(대표 묘심스님)은 6월 3일 저녁 7시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불교음악한마당을 펼친다. 봉은사, 구룡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금강선원 등 8개 사찰 합창단과 테너 조풍상, 바리톤 배천종, 소프라노 오승희 연정숙 메조소프라노 손아지씨 등이 참여해 불교가곡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연주한다. (02)591-7848

디딤무용단 '흡' 공연

국수호 디딤무용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갖는다.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의 전체 테마는 들이쉼과 내쉼을 주제로 한 '흡(吸)'. (02)272-2153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부천 석왕사
회 주 고산
주 지 영담
대중일동
▶ 부천시 원미동 산 2912
전화 : 032/663-7771

백 련 사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주 지 이설산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전화 : 303-0024~5

청소년수련원 신흥사
주 지 오성일
신도회 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전화 : 0339/57-2695, 3916

관 음 사
주 지 박 종 하
신도회장 유무심화
대중일동
▶ 서울 관악구 남현동 519-3
전화 :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 주 송월주
대중일동
▶ 서울 광진구 구의동 산9
전화 : 02/444-4321, 7215
부설 관인 영화유치원
전화 : 02/453-5149

金剛禪院 方背布教院
소리샘예술기획
대 표 송묘심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77-14
전화 : 596-7162
전송 : 596-7163

지장도량 영월암
주 지 정무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관교동 438번지
전화 : 0336/635-3457

염 불 암
주 지 성수
신도회장 김일심월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7
전화 : 0343/71-2300, 3680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 포교원
원 장 박지상
신도일동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2-16
전화 : 02/547-8268,8269

수 안 사
주 지 세 민
대중일동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12
전화 : 02/587-4677

수 국 사
주 지 한자용
신도회명예회장 한선심화 합창단총무 김찬희
신도회장 김자비심외 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
전화 : 356-2001
전송 : 356-2002

두타산 삼화사
주지 慈光 李遠行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전화 : 0394/34-7661~2, 8313
전송 : 0394/34-7546

봉화산 법만사
주 지 전법만
법연회·신도회 일동
▶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74-63
전화 : 433-6591~2

망 해 암
주 지 법 두
봉사회원일동
신 도 일 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산19
전화 : 0343/74-5557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주 지 신법인
총 무 서대원
대중일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전화 : 0417/61-3545, 62-5332
전송 : 0417/556-1425

"절음식 이렇게 요리하세요"

김연식씨 '한국사찰음식' 펴내



지금까지 사찰요리전문점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 주부의 손맛을 통해 직접 맛볼 수 있게 됐다.

전통사찰에 구전(口傳)돼 온 우리나라 사찰음식을 생생한 칼라사진을 곁들여 한권에 담은 〈한국사찰음식〉이 우리출판사(대표 무구스님)에서 출간돼 화제다.

불살생(不殺生)의 불교정신을 담은 채식위주의 사찰음식은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신문이나 여성지, 요리백과에서 간략하게 소개되던 형식이 아닌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정수만을 모아 옥구슬 꿰듯 정성스레 엮은 이 책은 명산고찰에 전해 내려오는 사찰음식의 조리법을 소개하고 음식 이름이 갖는 자료적 가치까지 살피고 있다.

이 책은 한때 승려로서 직접 사찰의 원주소임을 담당하며 사찰음식 조리법을 계승한 김연식씨가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자료수집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내 놓은 결과물이다. "사찰음식은 건강식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조리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아쉬움을 느껴오던 중 책으로 간행하게 됐다"고 말하는 김씨는 현재 인사동에서 사찰전문음식점 '산촌'을 운영하고 있다.

사찰음식은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와 육류를 제외한 산나물과 해조류, 나무열매, 나무껍질, 나무뿌리, 곡류가 주재료다.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요즘, 이 책은 전통사찰음식의 묘미는 그대로 살리면서 일반인들의 입맛에 맞는 건강식으로 응용해 파, 마늘, 젓갈 정도는 넣어 요리하는 조리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사찰음식을 종류별로 묶어 제1부 밥, 제2부 국 탕, 제3부 나물, 제4부 무침, 제5부 전, 제6부 구이, 제7부 볶음 조림 찜, 제8부 김치, 제9부 잡채, 제10부 장아찌, 제11부 떡과 수제비 국수 죽 묵 화채 수정과 식혜 강정 등을 다룬 기타부분으로 구성됐다. 이중 제주도와 전북 변산반도에 자생하는 춘란으로 만드는 춘란숙회와 고사리와 비슷한 모습의 고비로 만드는 고비회 등은 처음 소개되는 사찰음식이다.

권말부록으로 '불교와 사찰음식'과 '사찰음식의 효능과 영양분석'을 실어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성인병 예방식으로 관심 고조

전래조리법 사진 곁들여 소개

이은자 기자

신앙-인간-사회 연결고리 밝혀

강원불교 역사·특성 '한눈에'

'강원불교사 연구' 나와…논문 5편 수록

강원도 오대산 일대와 강릉의 도굴산문, 춘천 청평사 등 강원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강원불교의 사상적 특성과 역사적인 의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강원불교사연구(소화)〉가 출간됐다.

한림과학원이 펴낸 이 책은 김용선(한림대) 신종원(강원대) 김복순(동국대) 김두진(국민대) 김남윤교수(동덕여대)등 5명의 불교학자들이 저자로 참여해 종교적인 교리의 탐구보다는 하나의 신앙과 그것을 신봉한 인간 그리고 그들이 살던 사회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를 고찰했다.

'신라 오대산 사적의 형성'(김복순)은 설화로 중첩된 오대산 사적을 하나씩 가닥을 잡아 자장율사의 문수신앙 진영원 밀교 등을 자세히 수록했으며 중국의 오대산과 연계, 신라 성덕왕대에 문수신앙이 이식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오대산 사적은 신라 중기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되다 신라하대의 혼란한 세태에 이상적 세계를 바라는 종교결사로 이어졌으며 신라중기이후 신라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화엄사상과 사리신앙의 영향으로 오대산을 성지로 인식하게 됐다고 결론지었다.

'청평사 상사뱀 전설의 역사성과 설화성'(신종원)은 청평사 상사뱀 전설을 시대순 유형별로 검토하고 상사뱀과 관련된 민담과 비교, 춘천지역의 대표적인 설화인 상사뱀전설을 통해 춘천지역 불교를 조명하고 있다.

이밖에 '도의(道義)의 남종선 도입과 그 사상', '고려전기 법안종과 지종', '고려전기의 법상종과 해린' 등을 통해 한국불교사상사에 있어서 강원불교의 중요성을 간파해 내고 있다.

출판가소식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특징을 밝힌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이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됐다.

이 책은 경기도의 불교미술, 음악, 춤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을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문화유적과 예술의 특징을 정리했다.

지역포교지 '군산불교'

군산지역 불교포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군산불교〉 제3호가 나왔다.

군산불교대학이 발간하고 있는 이 책에는 송월스님(성흥사 주지)의 '불교의 윤리관'와 청운스님(청운사)의 '불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 생활불교를 위한 기본교리가 문답형식으로 책 뒷편에 정리돼 있다.







새로나온 책

▲양산=중국의 작은 부처로 불리울 만큼 출중하였고, 후에 스승 위산선사와 더불어 중국 오가종의 하나인 위앙종을 창시한 양산혜적선사에 대한 오쇼라즈니쉬의 강의를 모았다. 불교에 입문한 이들에게 선(禪)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하 6천5백원〉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심각한 경제침체의 해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책. 성균관대 유필화교수(경영학)가 집필한 이 책은 경전을 인용해 불교적인 경영이란 어떤 것인가를 밝힌다. 서양적인 경영패러다임의 한계상황에서 '중도의 경영학' 실천과 팔정도를 경영학적으로 재해석해 경영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덕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언론자료간행회 9천8백원〉

▲둥지마을 이야기=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에서 30명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법현스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 둥지청소년의 집에서의 인연과 생활을 통해 진정한 불법 실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출판사 5천원〉

▲천상의 묵시록=석가모니 예수 모하멧 등의 성인들이 천상에서 겪는 일들을 위대한 장군들의 지혜와 전략을 통해 흥미롭게 전개했다. 불교가 천상세계를 화해와 평화로 이끄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 책은 이를 통해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임을 깨닫게 한다. 〈세명문화사 전2권 각권6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3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4	불교입문	포 교 원	조계종출판사
5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6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 은 날
7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8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철학교육	산 하
9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10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구입문의:(02)737-0695

'불교대전' 개정판 나왔다



91년 절판…독자 요청

가로쓰기 읽기쉽게

만해 한용운스님이 편찬하고 이원섭시인이 역주한 〈불교대전〉이 가로쓰기로 편집을 바꾼 사륙 양장본 개정판으로 선보였다. 현암사 刊.

만해스님이 1910년부터 3년간 통도사에서 대장경을 열람하며 집필, 1914년 범어사에서 국한문으로 간행됐던 〈불교대전〉은 1980년 1월 현암사에서 이원섭 역주로 출간됐었다.

이 책은 1991년 6쇄 발행을 마지막으로 절판됐다가 스님, 불교학자, 불자등 꾸준히 찾는 독자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해 이번에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원하게 재편집했다.

이 책은 불교의 기본적 교리와 수도 방법의 문제를 체계있게 분류해 위로는 깨달음부터 아래로는 국가사회 가정의 문제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경 율 론에서 초록, 인용 경전만도 한역대장경과 남전대장경을 합해 44부에 이르는 방대한 서적이다. 대장경을 주제별로 재구성해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한 이 책은 불교경전의 정수로 평가되고 있다.

화제의 책

성철스님 인간적 면모 진솔하게 담아

침묵의 깊은 뜻을… 원정 지음



생식과 장좌불와(長座不臥) 용맹정진으로 유명한 대선사 성철스님의 인간적인 진면(眞面)을 한치의 굴절없이 진솔하게 펼쳐놓았다.

'상좌에게 온 사랑의 편지' '난 목포의 눈물이 좋더라' '장미꽃을 좋아한 스님' 등의 일화에서 스님의 인간미를 흠뻑 느낄 수 있다. 또 청담스님과 뒹굴면서 레슬링을 즐기고, 차 한잔을 단숨에 마셔버려 동석한 일본스님들을 무색하게 한 일화는 계율을 뛰어넘는 무애의 경지를 엿보게 한다. 지난 69년 해인사 백련암에 입산해 10여년간 성철스님을 곁에서 직접 모셨던 상좌 원정스님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당시의 추억어린 여러 일화를 직접 엮었다. 원정스님은 83년 환속해 독일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도예가 차대완으로 활동하고 있다.

〈맑은소리 6천5백원〉

기자의 눈으로 본 1600년 한국불교

한국의 성지-불교편 이선민 지음



16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우리민족과 함께한 불교. 한국불교는 이같은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유려한 명산고찰과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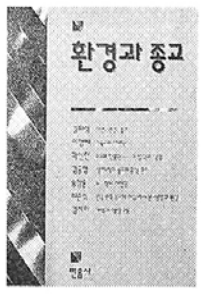
오랜 세월동안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큰스님과 불자들은 삼천리 강산 곳곳에 수행과 신심의 자취를 남겼고, 우리 국토 곳곳이 영험한 부처님의 도량이다.

조선일보 이선민 기자가 전국을 직접 취재하며 가려뽑은 '한국의 성지-불교편'(부제:예불소리 끊이지 않으리)은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통도사 금강계단, 해인사 경판전, 태고종 선암사, 천태종 구인사 등 우리 나라 10대 사찰의 창건유래와 고승들의 발자취를 사진과 함께 살피고 있다. 또한 총론부분에서는 한국불교의 흐름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있다.

〈샘터 4천원〉

종교학자들이 본 환경문제 극복대안

환경과 종교 길희성 外 지음



길희성, 이정배, 곽신환, 김용정, 송항룡, 최준식, 김지하 등 중견종교학자들이 환경문제 극복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서.

소비자본주의 구조에 빠져 심각한 환경오염과 공해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생명체를 공평하게 존중하는 종교적 자연관을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 이분법적 사고, 자연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기독교 전통, 물질적 풍요를 숭배하는 소비자본주의 등이 환경 위기와 심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생태윤리학적 공동체 차원에서 불교의 중도, 연기, 무아, 자비사상 수용을 생태계 위기시대인 오늘의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음사 9천원〉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조계종 **정각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전화 : 02/742-1231
전송 : 02/744-3784

대 성 사
주 지 정성
(전국비구니회 호법부장)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939-2
전화 : 914-6532

화 승 사
주 지 김용담
▶ 관악구 봉천11동 173-51
전화 : 883-7030

대 성 암
주 지 법 용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3리 262
취악역뒤
전화 : 0371/763-8837

대한불교조계종 **성보사**
주 지 신천
신도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산78-35
전화 : 0346/594-2683, 1397

무애원 포교당
원 장 설봉
신도일동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611
전화 : 846-2156

한국불교태고종 **법성사**
주 지 이석천
○ 홍익인간 학회 이사장
○ 인류 평화운동본부 부총재
▶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산 23-4
전화 : 651-4382

인과선원
주 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덕 화 사
주 지 김월단
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4동 190-3

대한불교조계종 **만의사**
회 주 정락
주 지 성직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전화 : 0339/376-6005

(사) 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 포교원
원 장 구윤회
신도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28
전화 : 02/381-1234, 2727

지장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원적정사
주 지 운 광
대중일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71의1
전화 : 0342/704-8272, 705-3662
전송 : 0342/701-0138

대한불교관음종 **불암사**
주 지 양종명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5번지
전화 : 0351/42-7684, 45-7684

불 광 사
주 지 조광현
신도일동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5-1
전화 : 359-5367

대한불교총화종 원로원장주석
승 통 사
조 실 전야옹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00-61
전화 : 814-7536

"비교종교학 기독교 편향"

윤원철교수 '해방 50년 종교연구사' 세미나서 주장

"아전인수식 연구풍토 지양 객관적-다원적 시각 필요"

우리나라 비교종교사는 주로 기독교 시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호교적(護敎的) 경향을 띠고 있어 종교다원주의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종교학회(회장 이은봉)가 10일 '해방후 50년의 한국 종교연구사'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해방 후 50년의 비교종교 연구사'란 발표를 통해 "종교와 종교를 직접적으로 비교-연구한 것은 70년대부터로 대체적으로 호교적인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종교 상호간의 올바른 이해를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종교간 비교-연구서 총 90여권(종교학계 발표 기준)을 조사 분석한 윤교수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학적 시각과 체계에 입각해 타 종교를 비교한 연구서는 총 15권. 이중 기독교적 시각에서 불교를 연구한 책이 9권인데 비해 불교 시각에서 기독교와의 비교를 시도한 논문·단행본중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5권 뿐이라는 것. 윤교수는 "아전인수격인 비교-연구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다원화된 비교-연구를 시도해 비교종교학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종교사회·종교철학 △무속·종교심리·한국종교 △인도종교·신종교 △유교·도교 등을 주제로 분과토의가 개진된 이번 세미나에서 혜원스님(동국대)은 '법안문익(法眼文益)의 선사상'의 주제발표에서 "법안스님은 시절인연을 관(觀)하는 '삼계유심'(三界唯心)을 통해 화엄 사상과 선(禪)을 융합했으며 이것은 석두희천의 수행관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허인섭교수(연세대)가 '이질적인 pre-vedic과 vedic의 신화적 사고방식이 anti-vedic으로서의 불교이론에 미친 영향' 이진구교수(서울대)가



◇윤원철 교수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자유 개념의 수용' 김성철교수(동국대)가 '공(空)과 윤리' 김장룡교수(원광대)가 '소태산 은사상의 본질:불교 연기와 관련해'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종욱 기자

국제원효학회(IAWS)가 5월30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원효의 사상체계와 원효전서 영역상의 제문제'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원효전서 영역사업의 기초가 될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영태교수(동국대

국제원효학회 30일 학술회의

불교학)가 '원효의 사상체계' 박성배교수(동국대 석좌)가 '원효사상의 논리구조' 로버트 버스웰교수(UCLA)가 '원효전서 영역상의 난점들'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랭카스터교수(버클리대) 등 15명의 학자가 토론에 나선다.

(02)260-3500

"조선시대 암자 급증…불교 맥이어"

이병희교수 '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추이' 발표

억불숭유정책이 극심했던 조선시대 불교는 지배이데올로기, 사회운영 이념으로서의 구실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수행·신앙처로는 도리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끈다.

이병희교수(목포대 사학과)가 〈역사교육〉(역사교육연구회 刊) 97년호에 발표한 '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추이'에 따르면 조선전기(1530년) 1천6백58개였던 사찰이 말기(1918년)에 이르면 22.6%가 감소한 1천2백83개로 조사됐다. 반면 수행처나 기도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암자는 초기의 1백67개보다 418%나 증가한 6백98개로 밝혀졌다.

이 숫자는 조선시대 사암수가 기록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여지도서〉(1757년) 〈조선불교통사〉(1918년) 등을 조사한 것. 또한 조선개국후 130여년이 지난 중종때 군·현별 사암이 전체 평균 5개인데 비해 황해도는 8.9개로 이는 "고려시대 수도가 위치한 황해도가 불교의 요충지였으므로 그 사암분포를 조선전기까지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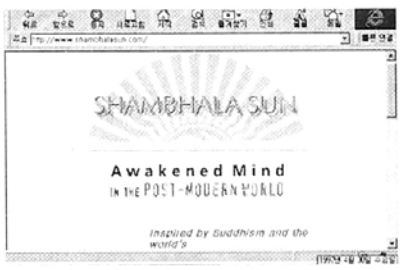
조선후기 사암 수는 〈여지도서〉를 토대로 할 때 1천9백2개이고 경상도가 4백75개로 가장 많다. 이 책에는 특히 도량으로



1918년에 간행된 〈조선불교통사〉에는 전국 사암 수가 1천4백78개(암자 6백98개)며 본사(本寺)는 경기도가 4개 충청도가 2개 경상도가 8개 등이며 마곡사 봉은사 등이 1백여개 말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감소…산중 암자 4배 증가

이병희교수는 "조선전기에서 말기까지 420년 동안 격변없이 지속한 사암이 15.5% 정도에 불과한 것은 불교가 심히 위축된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하고 "각 도별 사암수의 추이는 지방불교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척도"라고 덧붙였다. 〈욱〉



美 불교시사지 기사 사진등 검색·가져오기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삼발라선

세계적인 불교시사 계간지 〈삼발라선〉(美)의 모든 기사와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삼발라선'이 개설됐다.

이 사이트는 미국의 감포선원장 페마 쵸드론 스님을 커버스토리로 다룬 신간 소식을 비롯해 1995년 봄호까지의 기사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삼발라선〉지는 티벳의 정신지도자 달라이 라마, 마야마의 민주운동가 아웅산 수지, 미국의 불교시인 알렌 긴스버그, 필리핀의 틱낙한 스님, 미국의 여성운동가 벨 후크 등의 주요 인물들을 커버스토리로 실어왔으며 예술·사회·정치·국제·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룬 시사계간지.

이곳을 방문한 불자 네티즌은 지금까지 게재된 기사와 사진 이외에도 〈삼발라선〉지가 '불자 선언(宣言)'이라는 주제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구독신청도 할 수 있다.

'삼발라선'은 미국의 티벳불교계가 인터넷 상에 '삼발라 정보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봄직한 사이트이다.

주소는 'http://www.shambhalasun.com/'

대장경에 새 생명 직지심경 찾기

통신 캠페인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와 직지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현문)가 5월부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유니텔·하이텔 등에 '팔만대장경'(go k80000) 방을 개설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서비스 안내 △경전전산화 △사색의 창 △대장경 △세계불교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이텔 서비스는 △문화재 보존 란을 개설 '장경각 및 고려대장경판 보존' '古 문화재 보존 연구 자료' '세계 문화재 보존 경향'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게 특징.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소식지 '장경도감' 한글대장경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직지찾기운동본부도 5월초 '직지찾기' 홈페이지를 개설해 '직지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조찬묵(캠페인 운영위원)씨가 오픈한 '직지찾기'는 △직지찾기운동 △흥덕사지 △한국고인쇄문화 △직지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직지〉를 흥덕사에 유치하려는 국제적인 캠페인 '직지찾기'의 홈페이지는 한글 뿐 아니라 영문도 제공한다. http://www.academy21.co.kr/jikji/

능엄경



김 성 렬
〈대구지검 검사〉

미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한(多聞第一) 한 수행자가 걸식을 하기위해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살던 처녀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 어머니에게 주술로써 그를 유인해 주도록 애원한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 주술을 걸어 그를 방로 끌어들인다. 방에서, 주술에 걸린 그와 애욕을 즐기려는 찰나, 그의 스승께서 주술을 깨뜨리고 구해주신다. 학식과 용모에 만족해 하다 톡톡히 망신을 당한 그는 자신의 부족한 수행력을 비통해 하며 스승께 수행의 방편을 묻는다.

〈능엄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행자는 아난다이고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비록 2500여년 전의 일이지만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미모와 학식이 존중받는 우리 시대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용모가 뛰어났다. 또한 왕자의 신분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출가한 후에도 부처님의 시자로서 항상 곁에서 모셨으며, 기억력이 출중하였으므로 학식에 관한 한 당대의 일인자였다. 그러한 점에서 아난다는 우리 현대인의 한 모습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모를 다듬고, 갖가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위와 자격증으로 치장한다. 그것도 모자라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 매일매일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지식 습득은 허깨비를 끌어 담는 것과 같아 억겁을 뛰어다니더라도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할 뿐 진실의 추구(實相)와 정신적 능력(德性)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다. 마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난다가 일곱 번 씩이나 말을 바꾼 것(七處徵心)과 같고, 도둑을 자식으로 알고 친자식을 버리는 격이다.

〈능엄경〉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경전이다. 그러하다 보니 옛부터 〈능엄경〉은 많은 질시를 받아왔다.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서술된 다른 경전과는 달리 〈능엄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실체를 규명한 경전이라서 자신의 견해를 장식(牽强附會)하는데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능엄경〉의 핵심은 망상(妄想)을 극복하고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망상을 진심과 구별하지 못한다면 무량억겁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마음의 도둑만 키울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능엄경〉은 실상(實相)을 추구하는 대승 수행의 가장 기초가 된다. 옛부터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법화경과 더불어 강원의 교재로 사용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육체는 망망대해 가운데 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아지랑이와 같아 실체가 없다. 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물거품 같은 육체와 생각에 집착하며 살아 왔던가.

도둑을 도둑으로 알고 애착을 버렸을 때의 편안함과 기분은 체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값진 선물이다. 이를 가리켜 선현은 '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설산동자(雪山童子)는 나머지 구절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몸을 던졌던 것이다.

망상극복 진심 찾는 현실적방법 제시

겉치레만 탐하는 현대인에 경종울려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62세 되던 해에 설하셨다. 이는 싯달타와 나이가 같았던 파사닉왕이 자신의 연령이 62세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는 반야시(般若時)에 해당한다. 그때쯤이면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승의 기초를 열심히 공부한 때일 것이다.

〈능엄경〉을 배우면 대승의 기초가 되는 실상(實相) 내지 공(空)의 의미와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과 관음보살의 무변신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원성불(久遠成佛) 등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경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능엄경〉은 대승 수행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부하여야 할 경이다. 교법(敎法)만이 존재하고 수행(修行)과 증과(證果)는 사라져 버린 말법(末法)시대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신 뜻과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개운당 대성스님의 〈정본수릉엄경환해산보기〉(1993년 윤양성 번역으로 대영문화사에서 간행)를 참고할만 하다.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노 적 사
주 지 석종후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전화 : 353-5016

도 림 사
주 지 성도
신도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76-75
전화 : 815-6516

보 현 회
대 표 김혜향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8-1
전화 : 923-2804

동성방 화랑
대표 장재천
전화 : 723-6577

윤조각실
종합불사(기획, 설계, 조각) 백옥불 금동불 개금
대형불상(석불, 청동불) 소형조각
각종 석조각 (천불전, 삼천불전, 만불전)
특수재료불상 제13회 불미전 장려상 수상
(천불전, 만불전) 제14회 불미전 우수상 수상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전화 : 0357/33-3568, 31-8963
원장 윤수천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전화 : 742-0172

경 수 사
주 지 김보경
신도회장 조상래
신도일동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목신리
전화 : 0334/72-3668

진 관 사
주 지 진관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전화 : 359-8410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 선 사
주지 차 동 광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04번지
종무소: 993-3161~3 주지실:993-5002
FAX : 993-3164
※ 바로잡습니다 : 본지 127호 도선사 광고중 주지 차동광을 주지 정영도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 1차 인쇄이후 바로잡아 인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佛教原典專門學林 三學院
佛教大事典編纂部
修行院 大愛道園
伽山學會
理事長 李智冠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전화 : 765-9602~3
전송 : 765-5673

약사포교원 정법대학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각성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6-4
전화 : 474-0554
전송 : 472-5292

(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회장 성순경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60
전화 : 02/395-2571~2

문화재 수리: 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단청·불상조성
한국불교미술원
원장 정규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전화 : 02/730-8072 (야)648-0930

■ 바로잡습니다.

본지 127호 대한불교 조동종 광고중 총무원장 김송정을 윤송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좌골신경통 · 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주 · 五四三一七三〇六 야 · 七一一 · 四三七〇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간경화 · 완치 보장
만성 신장병 · 정신질환 · 신병
대체의학
전화:0552-82-8128, 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출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ISD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포교당안내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전철역 5분거리)
▶ 평 수 : 51평, 3층
▶ 보증금 : 2천 5백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 절충
연락처 : 0336-32-4404

■ 위 치 : 경기도 송추 유원지쪽
■ 평 수 : 미니 2층-24평
■ 전세금 : 1,500만원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연락처 015-273-9342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재적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사, 불자불이사, 불등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스칼라스 등록가능
3. 출퇴근제에서 월 2회~4회 강의
전화(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외)
만대교학대학원

전원주택 안내

■ 위 치 : 경북 청도읍 (대구근교)
■ 건 물 : 신축주택 30평 1동, 창고 36평 1동
■ 대 지 : 210평
■ 특 징 : 교통편리, 산수수려, 농지 확장가능, 스님토굴 및 별장들의 용도
연락처 0542-71-084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기타정보내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 원 사
연락처:
0331)262-0606



천부경의 참뜻 바로 보이다
대원 문제현 역저

病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희왕사(대흥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태화사) 법당 수미단 총각 복전함
• 음성(성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강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병.
● 절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노보살님 모십니다(노부부도 가능)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011-453-8611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신증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특별지(접은데)와 감식초회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장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딸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엮음/신국판/값 18,000원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와
형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의식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신국판/값 12,000원



전국 대형서점 절찬리 판매중!!

깨침의소리
전화:(02)444-357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大地를 적시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와 머문다.
조그만 물잎 끝에도
따뜻한 生命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찬바람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살얼음 끝 녹아 내리는
청아한 여울 물소리

버들 가아지도 겨울잠 깨고
잎망울 터트리는 속삭임
상큼한 봄 내음
생기를 머금고
봄빛 따스한 온기가
大地를 포근하게 감싸며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
며 바람은 춤을 춘다
내 그리움
또한 그속에 머물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정성과 얼이 담긴
남원 木器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품위있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목기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표 임동주 합장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성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숭가대 송천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승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관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편지를 전함
⑩ 월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속속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올여름 휴가도 '나'를 찾아 산사로…

유명사찰 '단기출가' 수련대회 준비

해인사·송광사·대흥사등 참선프로 다채

신청자 해마다 폭주 지금부터 서둘러야



◇산사의 여름수련대회는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짧은 출가, 큰 깨달음'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하여 전통 유명사찰에서 대규모 여름수련대회가 준비되고 있어 발심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2박3일 또는 4박5일의 '단기출가' 생활은 용맹정진을 체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또 일상의 찌든 때를 벗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름휴가를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노심초사 하지말고 일찌감치 산사 여름수련대회로 일정을 잡아보자. 몇몇 유명사찰에서 개최하는 수련대회에는 모집인원의 2~3배가 넘는 신청자들이 몰린다. 따라서 단기출가 희망자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하기 전에는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는 주관 사찰의 수련대회 프로그램 성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련생활 정도가 자신의 수행수준과 맞는지 수련경험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6백명 모집에 1천5백명이 몰려 신청자 반수이상을 탈락시켰던 송광사는 올해도 규율의 엄격함과 강원 율원 선원을 갖춘 총림이라는 점에서 재가신도들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통도사는 정계 재계 교육 등 직능반을 편성하고, 수련대회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등 변별성을 강화한다. 특히 6차 수련대회는 유경험 전문가반으로 강도높은 수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산대사의 임제선풍과 초의스님의 차향이 어우러지는 고찰 해남 대흥사는 참가자격을 19세에서 50세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정토수련원도 18세부터 65세까지로 신청대상을 제한하고, 매회 선착순 20명만을 접수 받는다.

해인사는 1천80배, 독경, 사경수행을 주된 내용으로 수련대회 참가자들이 일상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초발심자나 타종교인 외국인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도필선 기자

◇단기출가 여름수련대회 일정

주관	날짜	마감	횟수	대상	문의
송광사	6.29~8.17	6.10	8회	불일회 임원, 일반인, 한일학생회, 청년회	0661)755-0407
법주사	7월 중순	미정	·	·	0433)43-3615
직지사	8.1~8.5	선착순	1회	제한없음	0547)436-6174
통도사	7.14~8.4	선착순	5회	어린이·교사·일반	0523)82-7182
해인사	7.2~2.16	6.25	7회	초등·중고·일반	0599)31-1001
대흥사	7.7~7.25	6.21	3회	19세~50세	0634)34-5502
무량사	7.24~7.27	선착순	1회	초등학생~일반	032)575-3882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30~6.1	당일	1회	불자대학생	02)732-0239
정토수련원	6.10~6.22	선착순	2회	18세~65세	0581)71-6031
까치마을회	7.25~7.31	선착순	2회	부모동반가족, 청소년	02)838-3385
곡신사	7.29~8.28	7.26	2회	17세이상	0656)351-5125
동사섭수련회					

어린이법회 총서 나와

수행덕목·교리등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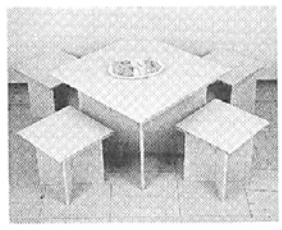


어린이 포교의 지침서가 될 〈어린이법회를 위한 설법, 교리연구 총서1집〉이 (사)불국토 어린이불교 교육연구소(소장 혜총)에서 나왔다. 이 책은 15년전부터 펴내오던 어린이용법회 교재 〈연꽃〉과 교사용 지도서 월간〈동련〉을 종합·보완한 것으로, △월별 수행덕목 및 주제 △설법·교리자료 등을 엄선, 재편집해 수록했다.

〈도서출판 부다가야 1만원〉

1회용 의·탁자 재생종이 사용 '조립식'

생상품



화성제지(대표 이영국)가 개발한 '재생종이로 만든 1회용 의자·탁지'는 100% 재생용지로 만든 환경상품. 재생지를 여러 층으로 붙여 나무판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종이판 두개를 십자형으로 끼워 세우고 그 위에 다른 종이판을 얹어 간단하게 조립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하다.

4인용 탁자와 의자 가격은 1만2천원. (0345)86-1981

건강과 식품 〈7〉

토마토

토마토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으로 원종은 앵두정도의 작은 채소이었으나 멕시코 마야 문화권에 들어와서 오늘날 볼 수 있는 크기에 가까운 것으로 개량되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중엽에 스페인 사람에 의해 구라파로 도입되어 구라파 남부 각국에 있어서 중요한 식용식물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2백년쯤 된다고 한다.

온열대 지방에서는 다년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년시(柹)' '일년감' 등으로 불렸던 토마토는 미네랄(광물질), 비타민 즉 칼리움, 비타민C, 비타민A(프로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 섬유질 등의 좋은 자원이다. 중간크기의 토마토에서는 성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대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토마토에 있는 붉은 색은 리코펜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색소 때문이다. 사람의 혈액이나 조직 중에서 볼 수 있는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이 주를 이룬다. 리코펜은 베타카로틴과는 달리 비타민A의 작용은 하지 않으나 베타카로틴, 비타민E(토코페롤)보다도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또는 프로라디칼의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항산화제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성 전립선 중에는 이



비타민·미네랄 풍부
붉은색소 리코펜
전립선암 예방효과

리코펜 함량이 다른 조직에 비해 많이 들어 있는데, 연구 결과 전립선 암환자의 전립선에는 리코펜 함량이 정상인의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최근 하버드대학에서 4만7천명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조사 연구에서는 토마토 식품을 매주 10번이상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토마토를 덜 섭취한 사람보다 45%나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같이 리코펜은 항산화작용 외에도 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예상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마토와 수박의 경우 붉은 색소가 바로 리코펜이며, 당근 등 붉은 색을 띠는 여러 채소나 과일에도 이 리코펜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과 더불어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후식이나 간식, 조미료로서 뿐만 아니라 토마토를 조리식품의 원료로도 널리 활용하여 섭취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태넝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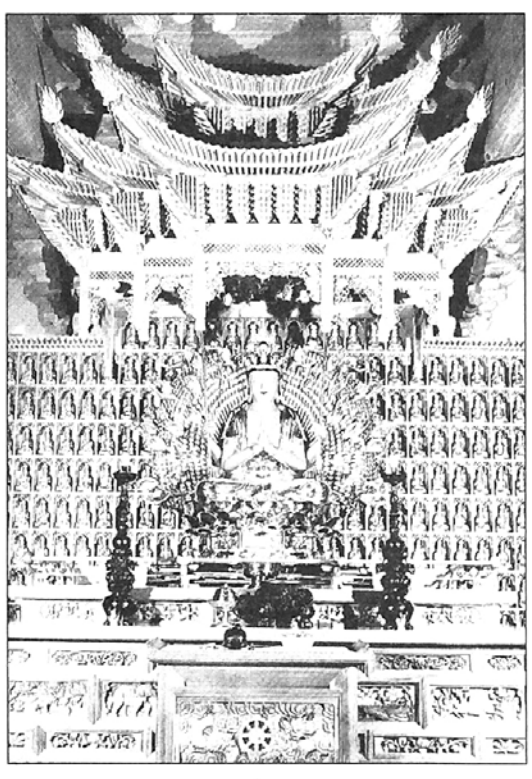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종단소식

조계종

쌍계사 '문화의 집' 착공

하동 쌍계사(주지 선곡)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하동읍 읍내리에서 종합복지센터인 '문화의 집' 착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901평에 지상 5층 지하 1층규모로 건립되는 문화의 집은 유치원,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노인시설 및 청소년 시설(2~5층)은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해인사 대구포교원 개원

해인사 용탑선원 대구포교원(원장 정선)이 지난 6일 개원했다.

동포교원은 참선수행을 비롯 교리강좌, 문화교실 등을 개설해 지역포교에 앞장서는 한편 노인무료급식, 효도관광 등을 통해 노인복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태고종

승덕정사 사리탑 봉안

관악산 승덕정사(주지 덕화)는 7일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과 지역 기관장, 신도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창건 30주년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탑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사리탑은 기존의 양식과는 달리 금동불을 4면에 모시고 사리를 모신 탑 4면을 유리로 처리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항상 친견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94년 미얀마 종교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10과가 봉안됐다.

혜운사 아미타불 점안

서울 봉천동 혜운사(주지 정담)는 지난해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에 기도도량으로 혜운사를 창건, 삼존불을 봉안한데 이어 4월 23일 아미타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혜운사는 신중단과 후불탱화, 영단, 납골당, 칠성각, 용왕각 조성불사도 함께 봉행했다.

천태종

삼광사 한글·논문상 시상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16일 경내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제10회 삼광한글학술상 및 제4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글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자에게 매년 주어지는 삼광사 한글학술상의 올해 수상자로는 김인택교수(부산대) 김영선(국제신문 편집부)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해 학술논문 발표대회 시상식에서는 박혜진(부산대) 등 모두 10명의 학생이 입상, 상패 및 부상을 받았다.

진각종

울릉지구 수계관정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28일 오후 1시 울릉도 여래심인당에서 진기 51년도 울릉도 지구를 대상으로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한다.

수계교도를 신청한 신교도는 수계관정을 위한 7일 이상의 습의불공을 해야 하며, 현실행사를 실시하거나 참석할 수 없다.

원효종

원효대사 추모 화쟁사건립

총무원은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시라리 일대 1만9천여평에 원효대사의 위업을 기리는 대규모 사찰인 화쟁사를 건립키로 했다.

화쟁사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대운)는 13일 "원효대사의 불교사상을 재조명하고 현대사회를 계도하는 불교적 가치관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화쟁사를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두 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17개동으로 구성되는 화쟁사는 원효대사 유품을 모은 1백여평 규모의 전시관과, 화쟁사상을 연구하는 2백여평의 화쟁사상 연구실, 요사채 4개동, 영묘전 3개동 등이 들어선다.

화쟁사는 오는 8월 착공해 2002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여래종

한·일·스리랑카 합동법회

봉축위원회(위원장 혜안)는 11일 성남 산성유원지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한국·일본·스리랑카 합동 대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간부 및 일본, 스리랑카 불교관계자 등 모두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법회는 세계평화와 호국안민,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문 낭독과 노래자치 한마당 등으로 이어졌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교과목 수강 가치관 변화"

동국대 개교 91돌 재학생 348명 설문

비불자학생 불교에 호의적
연구·박물관 활성화 지적도

동국대학교 재학생은 대체적으로 건학이념을 잘 알고 있으며, 불교관련 교양과목이 학생들의 불교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교 91주년을 맞아 동국대가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서울캠퍼스 학생 3백84명(불자 39%)을 대상으로 '동국대의 불교적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2,3,4학년의 경우 72.1%, 1학년의 경우 47.5%가 불교적 건학이념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64.3%. 1학년과 상급학년의 건학이념 이해도의 차이는 학교생활을 통해 차츰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교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286명 74.5%)중 수강후 불교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긍정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74.5%) 변하지 않았다(19%) 그렇지 않다(20.6%) 순으로 나타나 불교교양수업이 학생들의 불교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응답자의 41%가 학교생활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40~60%정도라고 답해 학교생활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응답자의 평균값은 52.5%. 학교생활의 절반이상이 불교와 관련돼 유지·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분포도는 60~80%가 87명, 20~40%가 68명, 80~100%가 43명 순이다.

상(上)중(中)하(下)로 응답을 요구한 '종립대학교로서의 위상'에 대한 설문에서는 1백42명(37%)이 '상'이라고 답했으며, 1백24명(32.3%)은 '중', 73명(19%)은 '하'라고 응답해 종립대학으로서의 확고한 위상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불교관련 학문의 활성화 및 연구, 박물관 활성화, 건학이념구현 등의 순으로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불교종립대학임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는 불교관련 교양과목(34.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각원(17.7%) 불교대학(16.4%) 스님들의 모습(11.7%) 학교건물 명칭(10.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1%인 2백38명의 비불자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느낌을 점수로 환산해 보라는 질문(1백점 만점)에서는 평균 62.4점으로 집계돼 불교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점수분포는 50~60이 78명, 60~70이 71명, 70~80이 65명 등이다.

응답자 3백84명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백22명(31.7%), 2학년 1백6명(27.6%) 3학년 86명(22.3%) 4학년 70명(18.2%)이며, 오차한계는 5% 신뢰한계는 95%다.

한명우 기자

1천불자 봉축 '한마음'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사암서 법요식

각 종단 지역별 제등행진·문화행사도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1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 전국의 각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는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봉원사에서 인곡 총무원장과 종단 간부스님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을 봉행하고 백련사를 출발해 흥은동 일대를 도는 제등행렬을 실시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3일 총본사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말사에서 동시에 점등식을 실시한데 이어 14일 오전 사찰별로 일제히 법요식을 봉행했다.

보문종(총무원장 혜일)도 14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연극 풍물 어린이 발표회 등의 공연을 연데 이어 보문동 일대를 도는 제등행렬을 실시했다.

봉축위원회는 이에앞서 11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등법회를 갖고 조계사까지 제등행진을 했다. 특히 이날 제등행사에는 20여종류의 전통등을 비롯 아기부처님, 용, 코끼리등 각종 장엄물이 선보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부산 봉축위원회(회장 성오)는 11일 부산역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대재를 봉행했다. 이어 82개의 사찰과 신행단체는 부산역에서 범냇골 로타리까지 제등행진을 실시했다.

대구 봉축위원회(위원장 무공)는 14일 두류축구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에 이어 각 사암과 신행단체 소속 사부대중 2만여명은 두류축구장을 출발 반월당을 거쳐 봉산육거리까지 제등행진했다.

장성군 백양사 흑색비방 물의

관변단체 동원 '가짜승'등 내용 괴문서 살포

장성군(군수 김흥식)이 행정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관변단체와 이·동장등을 동원하여 주민명의로 '사찰에서 지역화합을 깨뜨리지 말라'는 탄원서를 백양사(주지 지선)에 보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5월 8·9일 장성군을 비롯 광주시와 고창 선운사일대에 살포된 가공단체인 '백양사 청년신도회' 명의의 문건은 '가짜승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을 다같이 규탄하자. 불탄일 연등불사를 백양사에서 하지말자'는 내용을 담고있어 지역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장성군과 백양사의 마찰은 장성군수 김흥식씨가 백양사땅에 불법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사찰뒷산을 관통하는 길내기등 파행 행정을 펴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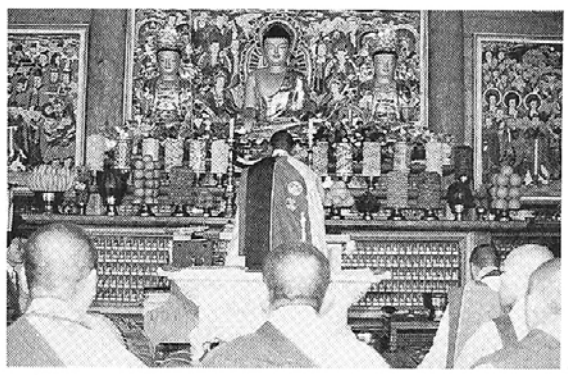
황룡사 대종찾기 한달만에 중단

경주시(시장 이원식)가 문화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벌여온 황룡사 대종과 감은사종 찾기 탐사작업이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작업 한달만인 13일 중단됐다.

경주시는 4월13일부터 탐사선 2척을 동원,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대왕암과 감포읍 대본리 일대에서 황룡사대종찾기 탐사작업을 벌여왔었다. 〈본지 124호 19면 보도〉

용화사 소년가장 결연

청주 용화사(주지 월탄) 중고등학생회는 14일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는 '자비의 등불' 법회를 봉행했다. 학생회는 이날 용화사 주요 신행단체대표와 신도 등 1백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소년가장 5명에게 20만원씩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학생회원과 의형제를 맺었다. 학생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이 행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자비정사 문수·보현보살 점안

광주 자비정사(주지 일광)는 지난 1일 황산, 혜안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문수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일광스님은 "문수·보현보살의 인연으로 무량복덕을 성취하고 또한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백나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

거조암, 7월 나한재 봉행

5백나한 수행도량인 팔공산 거조암(주지 혜해)에 소장된 '5백성중청문(五百聖衆請文)'이 개개 나한상과 명호를 담은 사진집으로 나온다. 이를 위한 컴퓨터 작업은 이미 마친 상태.

조선조 화엄학의 대가 영파스님이 쓴 5백성중청문은 40여장의 분량으로 석가모니의 10대제자와 16성 및 5백나한을 일일이 청(請)하는 예문형식으로 기록돼 있는데, 지난 95년 혜해스님이 발견, 일타스님과 한학자 등의 판독을 거쳐 한글판 책으로 엮어 각 사찰 등에 3천여부를 배포했었다. 제대성중(諸大聖衆)으로 두리뭉실하게 표현되던 5백26나한의 명호가 전부 밝혀져 중국이나 일본식 표기로 혼용되는 나한의 명호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거조암은 오는 7월 영산전(국보 14호) 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5백나한을 다시 영산전에 봉안해 대규모의 나한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창립

학술·사회·문화사업등 추진

경주지역에 처음으로 학술, 복지, 교육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될 연구원이 개원된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 ·대구 불광사 주지)은 16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학술연구사업 △사회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3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경주개발 재검토 절실"

공청회, 고도보존법 촉구

경주시가 추진중인 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13일 보문단지내 육보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주시의 용역을 맡아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95년부터 오는 2천25년까지 30년간 총7조7천억원을 투입하여 '도농통합형다핵도시' '국제교류도시' '역사문화도시' 등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총 3백5개에 달하는 미지정 문화재지구의 선별적 지정 검토와 신경주역사(화천리)를 출발해서 불국사 보문단지 경주대학교 등을 연결하는 총연장 47.5㎞의 내부순환 경전철망 계획(LRT)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지나치게 개발위주로 작성됐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경주 고도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음 누구나 성불할수 있다

나무을 쪼갠다고 해도 그 속에서 꽃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된 힘이 그 속에 있다. 그러하듯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 3.5cm×10.5cm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長腦 장뇌 山蔘 산삼

정통 심마니의 대를 이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최고의 산삼을 보급합니다.

강원도 홍천임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15~30年根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봄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존경하옵는 불자님!

건강과 성불을 발원하옵고 가내화평하시길 빕니다.

최고의 산삼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최저가격에 모시고 있사오니 연락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2)486-6495
0346-591-3989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여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강원도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외국인노동자 '불심 만개'

석왕사 초파일 '문화마당' 1천여명 동참

"부처님 품에서 향수달래요"
북돕기 모금행사에도 자비손길

"한국에서 생활하며 가장 힘든 점이 외로움입니다.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오랫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고국의 부처님오신날을 생각하며 예불 올리고 축제에도 참석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마련한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이 열렸던 11일 오후,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앞마당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1천여명이 모처럼 고향이야기로 얘기꽃을 피우고 있다.

11일 연등법회에도 네팔불자모임 회원 60여명이 참여, 제등행렬에서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불교기와 네팔기를 흔들며 동참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외국인노동자의 동참과 기쁨이 더욱 확산됐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불교계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북한동포돕기에도 정성을 보탰다. 석왕사 문화 한마당 행사장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접 준비한 북한동포돕기 모금함이 비치돼 있었다. 안내문과 함께 마련된 모금함에는 하루종일 외국인노동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석왕사 문화 한마당의 절정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한국인 고용주의 부당행위를 묘사한 연극공연 '누가 잘못했습니까?'.

연극의 대본을 쓴 미얀마의 얀나이 퉁(27·인천 남동공단 4년 근무)씨는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일을 더 많이 해야하는 외국인의 고충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각 나라별로 민속의상을 선보이고 민속춤 공연을 지켜보며 향수를 달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표정은 부처님의 품안에서 불법체류의 긴장감도 잠시 잊은 듯 한결 느긋해 보였다.

3년전 부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영담스님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을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부터가 외국인 포교와 세계일화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첫 행사로 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땀흘리는 이에 지혜와 행복을"
봉축위 '나라위한법회' 사부대중 1천여명 참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가 9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가 주최하고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주관, 기원법회와 만찬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원 석주스님을 비롯 직할사암 주지와 교계 주요신행단체장, 고건 국무총리, 송태호 문체부장관,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씨 등 3당대표, 이한동 이수성 박철언씨 등 각 정당 불자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기원문을 통해 "외롭고 가난한 사람, 병들고 고난에 지친 형제와 풍요와 평화를 가꾸기 위하여 땀흘려 일하는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행복을 주옵소서"라고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웃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에 개인의 행복도 완성될 수 있다"며 이타행의 실천을 당부했다.

초파일 모범수 354명 석방

법무부는 13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재범우려가 없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형자 3백12명과 보호감호자 42명등 3백54명을 석방했다.

이날 석방된 대상은 월례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기수 3인과 형기 3년이상의 장기수 38명, 각종기능자격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기능대회 입상자등이다.

'북돕기 1백일 결사' 20일 결제

북돕기불교추진위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효림)는 20일 오전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북녘동포돕기 1백일 결사법회 결제식을 개최하고 차량스티커를 배포했다.

불교추진위는 하안거 기간인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1백일 결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각 사암연합회 및 지역불교단체와 사찰 등을 조직화, 1백일동안 법회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각 사찰별로 현재 봉행하고 있는 초하루, 관음재일 법회 등을 북녘동포를 돕기위한 법회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단체 여름캠프일정 확정

파라미타 8월8일~11일 고성

청교련 7월31일~8월6일 제주

불교청소년계의 쌍두마차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의 여름캠프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파라미타는 '밝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8월8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수련장에서 '제2회 파라미타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6월20일 접수 마감되는 파라미타 캠프는 3천명의 청소년불자와 5백여명의 인솔지도자, 진행지도자, 지원요원들이 참가해 지난해에 이어 교계 최대규모로 펼쳐진다. 또한 삼천불탑만들기, 화엄사 순례 및 생태계 연구, 노래가사 바꾸기, 모험활동, 불꽃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미와 모험심을 자극한다. 02)723-6165

올해를 '국제 청소년 교류의 해'로 정한 청교련은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제주도 김녕 해수욕장에서 '국제청소년캠프'를 마련한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3개국 청소년 5백여명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캠프에는 선체조 및 명상수련을 비롯 보트타기, 모형배 만들기, 동굴탐사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또 제주도 사찰 및 시내 관광도 겸한다. 접수마감은 6월10일까지. (02)735-8165

'벙어리 함성전' 수익금 북동포돕기에 기탁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 30여명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 21세기회랑에서 북한동포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작품전시회 '벙어리 함성전'을 개최하고 판매수익금 전액을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 기탁했다.



◇외국인노동자 문화한마당에서 미얀마의 모에모에 퓐씨가 민속의상을 입고나와 민속춤을 추고있다.

제2 석굴암 조성 추진

불국사, 훼손방지위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제2의 석굴암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불국사(주지 설조)는 9일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이 61년 보수공사 이후 균열과 누수현상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가 관람객들의 체온과 입김 등으로 훼손이 가속돼 이를 막기 위해 제2석굴암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관리국측은 "석굴암의 원형보존과 관람객들의 욕구 충족에 일조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불국사측은 "새로 조성되는 제2의 석굴암은 원래의 석굴암 구조 및 형태를 똑같이 해 불국사 경내나 석굴암 인근에다 설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불국사측은 문화재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위문품보내기 종단·불자 '무관심'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와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추진한 군장병불자 위문품 보내기운동이 종단과 불자들의 무관심으로 지난해 보다 낮은 호응도를 보였다.

군불교진흥회는 13일 "3월10일부터 봉축기념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3천4백40만원의 성금을 접수, 1만7천2백개의 위문품을 육·해·공군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군에 3천개, 3군에 4천개, 논산훈련소에 3천5백개, 기타 사단에 2천2백개가 전달됐으며 해군본부에는 1천개, 해군 제2함대에 1천5백개, 공수특전사에 1천개씩의 위문품이 각각 전달됐다. 이밖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 해군 2함대에 5백20만원의 성금을, 박상길 군불교진흥회장이 육군 1사단에 3백30만원을 전달했다.

이하전 군불교진흥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통해 2만여 불자 장병에게 봉축의 기쁨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올해 성과가 저조해 안타깝다"며 군포교에 대한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목탁소리

동아시아대회와 포교

천 미 회 〈부산주재 기자〉

부처님오신날 부산지역의 봉축행사는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맞물려 특히 주목받았다. 동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한다는 취지여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부산불교봉축위원회측은 동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선수단을 각종 봉축행사에 동참토록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그들을 감화하는 인연의 자리로 만들고자 불교관련 안내책자 배포 통역요원 배치등의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다.

일정이 다가오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선지 안내책자에서 전단으로 바뀐 포교전단은 봉축행사일정 부처님 탄생과 그 가르침 우리나라 연등제의 유래등을 상세히 담아 영어 일어 중국어로 9천부가 제작되어 선수단이 묵고있는 호텔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포교전단이 비치되어야 할 선수단 숙소측은 그런 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14일 현재 전단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방법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전단이 배포된지 일주일도 채안된 부처님오신날까지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분명히 배포되었다는 전단이 선수단 숙소 어느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의 기획의도에 비춰 동아시아인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속에서 감화되도록 한다는 뜻은 추진방법이나 진행상에서 빛이 바래졌다는 아쉬움을 떨칠수 없다. 그리고 2002년에 열릴 월드컵 대회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불교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막연하나마 우려가 됐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에는 왕도가 없는 것이나 특히 외국인 포교에는 가시밭길을 헤치듯 보다 치밀하고 내실있는 준비가 요구된다.

현불뉴스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결성

조계종 본사주지들이 친목을·도모하며 종단발전을 논의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법주 마곡 수덕 직지 동화 은해 불국 쌍계 통도 백양 대흥 선운사 등 12개 본사가 참여하고 있는 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불국사주지)이 3일 수덕사에서 발의된데 이어 16일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종정사퇴 불교방송 문제 선본사 문제 등에 대한 본사주지들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故 진제당 도원스님 49재

원로의원 故 진제당 도원대종사 49재 및 사리친견법회가 31일 오전 11시 고운사에서 봉행된다. 4월 13일 열반한 도원스님의 정골사리는 수습 이튿날 2과가 불어나는 이적을 보여 총 24과가 되었으며 연골사리는 8과가 출현했다.

부산 '화지문화회관' 개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20일 부산 양정1동 화지공원내에 부지 6만5천평 연건평 1천36평의 청소년수련실 '화지문화회관'을 개관했다.

이 회관은 부적응 아동 가족상담, 비행 소외청소년을 상담지도하고 무료예식 경조사모임 공공행사 대관등으로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화지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실은 동래정씨 문중에서 설립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요청해 3일 부산시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아 개관하게 됐다.

부·경불교 언론인협 창립

부산·경남지역 불교언론인들의 모임인 부산·경남불교언론인협의회(준비위원장 이영구 불교부산방송 총괄국장) 창립총회가 21일 오후 7시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열린다.

전·노씨 석방 서명전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중앙승가대학생회가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승가대 임직원을 비롯 1천여명이 동참했다.

동화사에서도 전씨 측근의 요청으로 12~15일 서명운동에 6백명이 동참했다.

장애인 북한산 등반대회

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과 성북구(구청장 진영호)가 주최한 장애인 등반대회가 3백여명의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깔딱고개에서 열렸다.

보현사 연꽃노인잔치

보현사(주지 일관)는 20일 오전 11시 중계4동 삿갓봉공원에서 회주 일면스님(광동학원이사장)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연꽃노인잔치를 개최했다.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cm×(세로) 160cm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들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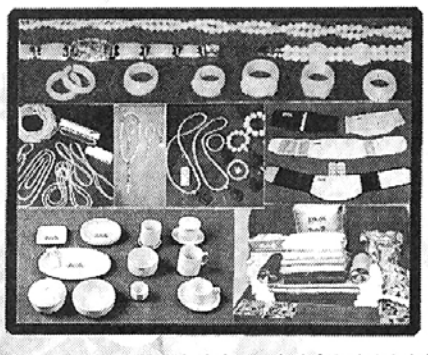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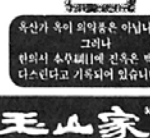


전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찾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히 깁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편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찍찜어서 사아만 효괴가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건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연등축제 화보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11일 종로거리는 3만여 불자들로 축제의 물결을 이뤘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라는 주제로 펼쳐진 연등축제는 동대문운동장 연등법회를 비롯 종로거리 곳곳에서 환희와 감동의 순간이 5시간여동안 연출됐다. 연등법회 제등행진으로 수놓은 연등축제를 지상전시한다. 〈편집자 주〉


◇북한주민을 돕기위한 성금이 줄을 이었다.


◇손에손에 연등을 들고 무명의 세상을 밝히려는 보살들의 제등행진.


◇연등축제로 종로거리는 지혜와 자비의 물결을 이뤘다.



◇각 사찰의 장엄물은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청보사 유치원생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제등행렬에 동참, 갈채를 받았다.


◇연등축제 회향식에서 불자들의 환호속에 비상하는 종각 시계의 아기부처님.


◇자국의 국기를 들고 제등행사에 동참한 외국인 스님들.


◇봉축 캐릭터 파코의 손을 잡으며 기뻐하는 어린이들.


▶조계사가 재현한 마야부인.

◀차량 연꽃컵등을 나눠주고 있는 부산한마음선원 청년회원. 〈부산=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이모저모

연꽃저금통 무료배포

○… 이번 초파일봉축의 최우수 보시품은 플라스틱제 '연꽃저금통', 조계종자원봉사단은 포대화상과 연꽃 모형의 저금통을 각각 1만개와 5천개씩을 준비, 동대문운동장 입구 두군데에서 북한돕기 전단과 함께 무료로 배포. 행사장에 들어가는 불자들과 지나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받아가 30여분만에 배포를 완료했다.

내손으로 만드는 연등

○… 제일은행 본점 뒷편에서는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부스 2개에서 연등만들기 시연회를 벌여 초·중·고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길놀이공연 '어깨 으쓱'

○… 종묘공원에서 펼쳐진 자비예술단의 길놀이 판굿 설장고 사물놀이공연은 주위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공연중에는 흥에 겨운 시민들이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시민 이장용(56. 서울시 불광동)씨는 "소녀들의 사물치는 수준이 높다"며 "초파일을 맞아 우리문화의 흥겨움을 느끼게돼 즐겁다"고 말했다.

봉축가요로 분위기 고조

○… 종묘공원과 종각회향식에서 공연된 봉축가요 '오늘은 좋은날'과 '길을 떠나자'는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가요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리 각 방송사와 사찰등에 홍보를 펼쳐 제등행렬에 참여한 불자들이 다함께 따라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곳곳에 외국인 구경 인파

○… 외국인 관람이 크게 늘었다. 도로 연변에 늘어서 구경하다 뛰어들어 참여하기도 하고 무리져 관람하기도 했다. 연등국제불교회관 국제포교사들이 구경하는 외국인들을 모아 '연등시연회'에 참여시키기도. 이런 한국불교의 봉축행사가 세계적인 문화행사로의 도약 가능성을 찾기에 충분했다.

능인선원 7천여신도 동참

○… 제등행진에서 최대 인원과 최다 장엄물을 준비한 곳은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을 선두로 7천명의 신도들이 용 코끼리 등 11개의 상징 장엄물을 등장시켜 단연 눈길을 잡았다. 연등축제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D-3일부터는 아예 날밤을 지샜다는 것.

설악콘도미니엄 97년 6월 10일 OPEN!

금호 제주리조트 골프 콘도미니엄 착공기념

마지막 기회! 바로 신청하십시요!


금호제주리조트(콘도+골프+해양레저) 공사중


금호화순리조트(온천+콘도+골프) (97년 9월) 개장


금호스키리조트(서울근교 추진중)


금호설악콘도미니엄(콘도+온천+스키+골프) (6월 10일) 개장


금호충무콘도미니엄(콘도+골프+요트) (운영중)


충무마리나(요트+콘도+골프) (운영중)


금호해양레져타운(영종도부근)

■ 특별 분양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평형	층분양가	계약금	납입방법
충무 마리나 콘 도	16평	분 양 마 감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분납가능 (10% D.C된 금액임) -5월 31일까지 적용-
	27평	23,920	5,200	
	60평	52,850	11,500	
설 악 콘 도	27평	24,300	4,860	
	59평	53,100	10,620	
제주 골프 콘도 미니엄	97년 7월중 공개분양 예정			

※ 위 분양가 전액은 보증금액입니다.

■ 특별 회원 혜택

1. 진주 C.C 이용권 부여
2. 아시아나 항공 할인예약 서비스
3. 금호 계열사 상품 할인혜택(금호타이어, 금호렌트카등)
4. 광주 웨밀리랜드 이용시 50% D.C 혜택
5. 국내 최초 일괄예약 시스템 운영 (콘도+골프+요트+스키+항공+렌트카)
6. 국내 리조트업계 최초 ISO 9001 품질인증획득

회원문의처 (02)733-9923

株式會社 錦湖開發